

자유 사회의 기초

자유 사회의 기초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자유 사회의 기초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15년 12월 23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15

Foundations of a Free Society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13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3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5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Kyung Sung University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08-5 (93300)

차례

- 옮긴이 서문 _ 8
- 지은이에 대해 _ 10
- 서문 _ 12
- 감사의 말씀 _ 15
- 요약 _ 16

| | |
|----------------------------|----|
| 1 서론 | 21 |
| 이 책의 목적 | 21 |
| 이 책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 22 |
| 2 자유의 도덕적 편익과 경제적 편익 | 25 |
| 자유 사회 | 25 |
| 자유에 대한 도덕적 옹호 | 30 |
| 자유에 대한 경제적 옹호 | 40 |
| 3 자유 사회의 제도들 | 56 |
| 국가 없는 사회 | 56 |
| 정부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 59 |
| 정부를 제한하는 방식들 | 75 |

| | |
|--------------------|-----|
| 규칙의 설정 | 82 |
| 4 평등과 불평등 | 87 |
| 자유 사회에서의 평등 | 87 |
| 평등의 종류 | 88 |
| 결과의 평등 | 98 |
| 평등과 정의 | 104 |
| 평등주의의 추가적 피해 | 110 |
| 5 자유 기업과 무역 | 115 |
| 자유 시장 경제 | 115 |
| 부자가 되는 법 | 120 |
| 시장들이 작동하는 방법 | 128 |
| 국제 무역 | 136 |
| 6 재산과 정의 | 142 |
| 사적 재산 | 142 |
| 정의의 규칙들 | 149 |
| 법의 지배 | 157 |
| 인권 | 163 |
| 7 자생적 사회 | 168 |
| 명령 없는 질서 | 168 |
| 관용 | 173 |
| 이타주의의 문제 | 187 |

| | |
|--------------------|-----|
| 8 민영화와 세계화 | 194 |
| 이민과 기술 | 194 |
| 자유 사회를 기르기 | 196 |
| 작동 중인 재산권 | 198 |
| 정부 없는 인적 서비스 | 208 |
| 세계화와 무역 | 217 |
| 평화의 중요성 | 222 |
| 9 논의의 요약 | 226 |
| 자유의 옹호 논거 | 226 |
| 제한된 정부 | 227 |
| 더 큰 평등 | 227 |
| 자유 경제 | 229 |
| 정의와 법의 지배 | 230 |
| 자생적 사회 | 231 |
| 자유 세계 | 231 |

• 가려낸 참고 문헌 _ 233

• 옮긴이에 대해 _ 236

유킨이 서문

이 역서는 Eamonn Butler, *Foundations of a Free Society*,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13을 번역한 것이다. 에이먼 버틀러는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시장 경제에 관해 많은 책들을 썼다. 그는 책을 쓸 때 어려운 주제도 명쾌하게 서술한다. 이 책에서도 그 장기는 유감없이 발휘되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는 어째서 좋은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재산권, 정의, 평등, 법, 정부, 관용 그리고 공식적 권력에 대한 제한과 같은 쟁점들을 포함하여 자유 사회를 옹호하는 도덕적, 경제적 그리고 실용적 논거를 제시한다. 이 책은 자유가 어떻게 번영을 낳고 발명과 혁신을 촉진하는지 개설한다. 이 책은 자유가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지도 언급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세력들이 있다. 평등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자유를 희생시킨다. 그들은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해 적대적이다. 그들이 이 역서를 통해서 자유가 왜 소중한지, 평등을 가져오는 길이 어째서 자유인지 배웠으면 좋겠다.

때로는 자유의 확산에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유의 범위를 국한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경

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자유도 최대한 넓힐 것을 옹호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너무 쉽게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가 희생될 수 있음을 그들은 간과한다. 그들이 이 역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역서는 자유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읽는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선 대북 풍선에 이 역서를 담아 띄워 보내어 북한 주민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동포가 전체주의 북한 당국의 통제를 뚫고 www.iea.org.uk에 들어가서 우리말로 된 『자유 사회의 기초』를 읽어보는 것이다.

버틀러의 이 책에 대한 번역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책이 2014년도 앤터니 피셔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말 독자들에게 이 역서는 자유 사회의 기초를 이해하는 기본서가 될 것이라고 율킨이는 믿는다. 또한 자유의 온갖 주제들에 대해 그 풀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의 역할도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자유 사회의 주제에 관심 있는 많은 한국 독자들이 이 역서를 애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율킨이는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역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편집·기획 이사 필립 부스(Philip Booth) 교수와 경제문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 감사한다. 율킨이는 또한 이 책의 편집을 언제나처럼 성실하고 능숙하게 수행해 준 김지혜 선생에게도 감사한다.

지은이에 대해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는 지도적인 정책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the 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 철학 그리고 심리학 학위들을 가지고 있고, 1978년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대에 그는 미 하원에 근무했고, 미시건 주 힐스테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으며, 애덤 스미스 연구소를 창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2012년 에든버러 경영대학(Edinburgh Business School)은 그에게 명예 문학박사(Hon DLitt) 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2013년] 현재 몽펠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의 간사다.

에이먼은 선구적인 경제학자들인 밀턴 프리드먼, F. A. 하이에크 그리고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관한 책들의 저자이자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에 관한 입문서의 저자이다. IEA를 위해, 그는 애덤 스미스, 루트비히 폰 미제스 그리고 공공선택론에 관한 입문서들을 썼다. 그는 임금과 가격 통제의 역사, 그리고 IQ에 관한 시리즈 책들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그가 낸 최근의 대중 간행물들, 『시중에서 최고의 책(The Best Book on the Market)』, 『부패한 영국(The Rotten State of Britain)』 그리고 『대안적 강령(The Alternative Manifesto)』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그는 영국 인쇄 및 방송 매

체에 빈번하게 기고한다.

서문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들은 종종 자유에 대한 공격을 초래했다. 대공황 동안 모든 주요 경제들은 관세를 올려 무역을 제한했다. 이 반사적인 반응은 지정학적 긴장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곤란을 더욱 증가시켰을 뿐이다. 급진적 사회주의 정권들의 출현은 세계의 반에서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전면적 억압을 초래했다.

더욱 최근에는, 9/11 사건과 미국의 대응으로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유를 희생시킨 정책들이 개시되었다. 비슷하게, 2008년에 시작되었고, 역시 미국 토양에서 싹트기도 한, 세계적 금융 위기는 통제, 규제 그리고 보호의 증가로 이어졌다. 자유 시장의 창조적 파괴 원리에 의존하는 대신에, 대서양 양쪽의 정부들은 파산하는 기업들을 구제 금융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납세자 돈을 사용했다.

자유에 대한 위협은 많이 있다. 한 세기의 한 4분기 전에, 세계는 소련의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기꺼이 맞이했고 그 다음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찬양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들이 지금 유럽에서 신민족주의(neo-nationalism)와 중동에서 급진주의(radicalism)의 형태로 생겼다. 만약 양 경향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자유를 줄일 것이다. 유럽에서, 민족주의와 심지어 인종 차별주의(racism)로의 이러한 복귀는 비교적 고도의 정치적 자유—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존재한다—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중동에서, 종교적 급진주의의 상승은 털 예상 밖이다—시장도 민주주의도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개인들은 많은 면들에서 이전 세기의 자기들 선배들보다 더 자유롭다. 정보 및 통신 기술 혁명은 모든 종류의 장벽들을 낮추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리첵펑(Li Chengpeng · 李承鵬)은 저명한 작가이자 사회 비평가다. 그의 시나 웨이보(Sina Weibo · 新浪微博) 블로그는 거의 6백만 팔로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랍의 봄 동안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광범위한 정치적 및 사회적 진보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만약 정보가 힘이라면, 정보 기술은 개인에게 힘을 주었다. 지리적 경계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들은 점차 관계가 없게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의 모노그래프의 출간은 시의적절하기가 그지없다. 『자유 사회의 기초(Foundations of a Free Society)』는 자유에 관한 현대 입문서들의 일군(一群)에 고마운 추가물이다. 버틀러의 독특한 역량은 그가 복잡하고 고도로 영향력 있는 견해들을 알기 쉬운 영어로 표현하는 능력에 있다. 그는 또한 자기 견해들을 설명하고 이론적 논거들을 지지하는 현실 세계 실례들을 가지고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의 논거들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침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부정기 연구 논문(Occasional Paper)은 자유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탁월한 입문 교과서다. 그것은 전통적인 자유들이 공격받고 있는 곳들에서 자유를

보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이 대개 알려져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 자유를 촉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용할 것이다.

2013년 9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시장 경제 정책 연구소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Market Economy · PRIME)

설립자 및 소장

알리 샬먼(Ali Salman)

이 모노그래프에 표현된 견해들은, 모든 IEA 출판물들에서 그렇듯이, 필자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본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들도 아니다. 강연의 출판과 같이 몇몇 예외들이 있지만, 모든 IEA 모노그래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적어도 두 명의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에 의해 익명의 동료 심사를 받는다.

감사의 말씀

본 저자에게 자기의 책, 『자유 사회의 원리(Principles for a Free Society)』에서 많은 견해들을 다량으로 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나이절 애시퍼드(Nigel Ashford)에게 응당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겠다. 다른 유용한 원전들은 액턴(H. B. Acton)의 『시장의 도덕(The Morals of Markets)』, 밀(J. S. Mill)의 『자유론(On Liberty)』, 매드센 피리(Madsen Pirie)의 『자유 101(Freedom 101)』, 리처드 웰링스(Richard Wellings)의 『초보자를 위한 자유 길잡이(A Beginner's Guide to Liberty)』, 어니스트 벤(Earnest Benn)의 『자유가 작동하는 이유(Why Freedom Works)』 그리고 톰 파머(Tom Palmer)의 『자본주의의 도덕(The Morality of Capitalism)』을 포함했다.

요약

- 자유는 번영을 창출한다. 그것은 인간 재능, 발명과 혁신을 속박에서 풀고, 이전에 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부를 창출한다. 자유를 받아들인 사회들은 부유하게 되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회들은 가난하게 남았다.
- 자유 사회의 사람들은 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엘리트들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부자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낮게 만드는 것으로만 부자가 된다.
- 자유 사회들의 경제적 활력의 주된 수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 사회들은 비자유 사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평등하다. 가장 자유로운 사회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품들, 비자유 사회들의 지배 엘리트들에게만 이용 가능했던 사치품들을 즐긴다.
- 국제 무역은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들을 주고 지난 20년간 10억 이상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유는 인간 역사에서 진정으로 가장 자비롭고 생산적인 힘들 중 하나다.

- 정부들이 부나 소득을 평등하게 하려는 시도들은 반생산적이다. 그것들은 근면과 기업심을 위한 유인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전 사회의 생산성을 올리는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게 한다.
- 자유 사회는 자생적인 사회다. 그것은 평화로운 협동을 촉진하는 규칙들을 따르는 개인들의 행동들로부터 쌓아올려진다. 그것은 정치적 당국에 의해 위로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 정부는 자유 사회에서 매우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의를 유지하고 시행함으로써 자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물질적 평등을 부과하려 하지 않으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활동들을 마음에 들지 않게 여기거나 거슬리게 여긴다고 해서 그 활동들을 금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편익을 위해 국민들을 약탈할 수 없고, 자기들의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없으며,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적들에 반대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 자유 사회의 정부는 법의 지배로 제한된다. 그것의 법들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 없이 장기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함께, 모든 사건들에서 적법 절차가 있어야 한다. 범죄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대우받아야 하고, 개인들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여러 번 기소됨으로써 시달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활양식을 참는 것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진실은 항상 명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상들의 경쟁에서 생긴다. 우리는 검열관들이 오직 잘못된 견해들만 억압할 것이

라고 믿을 수 없다. 그들은 잘못해서 훗날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될 견해들과 행동 방식들을 억압할지 모른다.

- 통신 기술은 권위주의적 정부들이 자기들의 행동들을 세계의 나머지로부터 숨기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관광에 개방되어 있고, 새로운 견해들이 보급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자유의 편익들을 보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 사회의 기초

1 서론

이 책의 목적

이 책은 자유 사회를 규정하는 핵심 원리들을 개설한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진정한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유가—심지어 자신들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에서조차도—아주 희소하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과 가장 덜 자유로운 국가들 사이에 확실히 큰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더 크거나 더 작은 정도로, 사람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생활들이 관리들과 정치가들에 의해 제한되거나 통제된다. 그러한 제한들과 통제들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주 많이 제한해서, 바로 그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생활의 일부로 여길 뿐이다.

그 결과로, 설사 자기들이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세계 인구가—자유 사회가 어떻게 생겼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진정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허가들을 얻을 필요가 없이 거래할 수 있기를 원한

다. 그들은 정치가들이 자기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을 파멸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자기들의 집, 농장 그리고 작업장에 대한 보유가 안전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관리들이 명령하는 것을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가족들에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기들을 내버려두도록 경찰과 관료를 매수할 필요 없이 자기들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그 때문에 사회적 및 경제적 자유의 핵심 원리들을 상세히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명백한 비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초이다.

이 책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제2장은 자유 사회를 가지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자유에 대한 *도덕적* 옹호도 설명한다. 자유 경제와 자유 사회는 깊은 가치들—다른 도덕 체계들에 도전하는 가치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제고하는 가치들—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제3장은 강력한 지배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할지 명령할 필요가 없이 자유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품들을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참으로, 그 장은 정부가 왜 범위와 권력에서 *제한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자유 사회가 어떤 모습을 띠지 그리고 자유 사회가 어떻게 작동할지 보여준다.

제4장은 자유와 평등 사이의 외관상 긴장을 논한다. 그 장은 더 큰 자유가 실은 중요한 모든 것에서 더 큰 평등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에 결과의 평등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자유의 원리들의 토대를 침식하고 장기적 손해를 야기한다.

제5장은 자유 사회의 경제적 틀을 개설하고, 국가 통제로부터 해방될 때 시장들이 어떻게 번영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지 설명한다. 그 장은 그 과정이 순조롭게 기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들과 인간 협동을 촉진하는 데서의 자유 무역의 결정적 중요성을 설명한다.

제6장은 재산과 정의의 원리들을 검토한다. 그 장은 만약 강제와 착취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자유 사회의 법들이 일반적이어야 하고 보통 시민들에 적용되는 그만큼 당국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그 장은 자유 사회가 어떻게 기본적인 인권들을 존중하는지 설명한다.

제7장은 자유 사회가 어떻게 당국자에 의해 명령될 필요 없이 작동하는지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그 장은 잘 기능하지만 자유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기본적인 도덕 및 행동 규칙들을 개설한다. 그 장은 관용의 필요를 강조하고 사회를 이타주의에 근거하는 경우의 문제들을 설명한다.

제8장은 자유 사회가 전무한 곳에 자유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그 장은 일상생활에서 유인을 개선하는 것의 중요성과 위로부터 결정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그 장은 심지어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들도 어떻게 정부 없이 제공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장은 *자유 무역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자유의 도덕적 편익과 경제적 편익

자유 사회

자유 의미

자유(freedom 혹은 liberty—이 단어들은 영어에서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그저 투옥되지 않거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국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당신에게 부과되는 억압적 제한 없이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의 정치적 견해에와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당신의 경제적 거래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적용된다.

자유 사회(free society)는 이런 이상들을 지지하려는 사회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자유는 부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데 놀랄 정도로 성공적임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힘들 중의 하나임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

자유는 당신의 길에 어떤 방해물도 놓이지 않고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당신이 행동하는 것을 어떤 억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제되거나, 명령되거나, 위협받거나, 박해받거나, 압력을 받거나, 부과되거나, 간섭받거나, 조종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공격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강탈당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당신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그러한 이유는 자유의 원리가 자유 사회의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 간섭하거나 방해하거나 해를 끼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그들도 역시 가지고 있는 자유를 무효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는 오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당신이 당신의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나의 코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강제하거나, 강탈하거나, 공격하거나, 살해한다면, 당신은 자유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당신은 괴로움을 받지 않을 그들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이것은 ‘무해(no-harm)’ 원칙이라 불린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어떤 사람의 침해에 저항함으로써 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와 무해 원칙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당신이 막는 것을 허용한다. 당신은 또한 낯선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해가 끼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비록 다른 시민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기능이 종종 경찰과 법률

당국에 맡겨져 있지만.

그러나 무해 원칙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진 피해에만* 적용된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신체와 당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당신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 예를 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재산을 공짜로 주거나, 위험한 어떤 일을 함으로써 상해를 감수하거나, 당신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데, 이것의 어느 것도 그 밖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렇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자해를 당연히 억제하려고 할 것이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의 고의적인 선택이라면, 그들은 물리적으로 당신을 막을 수 없다.

자유와 정부의 역할

설사 간섭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간섭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귀에 거슬리는 것 같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느 누구도 무엇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다. 개인들은 자기들 자신의 복지의 최상의 판관이다. 그들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 자신의 가치, 상황, 필요, 욕망, 공포, 희망, 목적 그리고 열망을 훨씬 더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목표와 자기들 자신의 행동의 최상의 판관이다.

그리고 외부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방법에서

편향될지 모른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보다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지 모른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는 것에 관한 결정들이—적어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그 문제에 더욱 객관적일 수 있는 경찰과 사법부에 맡겨지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건 우리의 개인 목적들은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에 있음으로써 가장 잘 만족된다. 그런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것을 주며 그것이 불완전한 곳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합쳐 자신들에 대해 정부나 어떤 다른 당국을 형성할 때, 이것은, 즉 자기들의 자유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은,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정부들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데 기꺼이 권력을 사용하는 집단들에 의해 전 주민에게 강요된다. 그러한 약탈은 종종 다수파의 완전한 동의로 발생하는데, 그들은 그 다음에는 소수파를 착취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자유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여간 어떤 의미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전 주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심지어 일반 이익을 깊이 마음에 정말 두고 있는 정부들조차도

종종 자유를 줄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무해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든지 자기들의 개입이 야기하는 피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 검열관들은, 일정 생각들과 말들이나 그림들이 공중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른다고 믿고서, 그것들을 말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재능 있는 작가, 예술가, 영화 제작자, 언론인 등에게 그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그들의 경력을 방해하며 그들에게 자기의 노동, 창의성 그리고 지능의 과실을 거부함으로써 피해를 끼친다. 그리고 일단 국가 검열의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말하자면, 자기들의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도 금지하거나 자기들이 위협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사상도 억압하여—그것을 확대하기는 너무 쉬워진다.

다시, 좋은 의도를 가진 당국은 소득을 평등화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것이 자기들 자신의 재산을 향유할 납세자들의 자유를 보통의 도둑이 제거하는 만큼 확실히 제거하는지를 간과한다. 그리고 보통의 도둑과 같이 그러한 몰수의 위협은 사람들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을 막는 확실한 길이다—이것은 그 다음에는 전 주민의 안전과 번영에 해로운 효과를 끼칠 것이다.

그리고 정부들은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공익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는가? 상이한 사람들은 상이한, 그리고 종종 경합하는, 이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합하는 이익들의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런 일을 하는 데 공식적인 권력을 사

용하는 먼 당국보다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그 이익에 근거하여 훨씬 더 잘 행동한다.

강제는 악이다. 그리고 비록—공격자의 억제와 같이—어떤 강제는 필요악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해야 한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들에 대한 정부 권력의 한계를 정하는—생명에의 권리와 사적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같은—‘자연권들(natural rights)’을 가지고 있다고 다수의 자유 옹호자들은 주장한다. 우리는 다른 시민들이 우리를 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부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할까?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 역사 동안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들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수립되지 않았고 강압을 기꺼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과되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이 어떤 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휘되는 어떤 개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오직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선택할 때에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선택한다면 그들은 도덕적 가치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때는 그들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암호(cipher)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도덕적 옹호

자유는 사람들에게—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들과 자기들에 가까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자기들이 적합하

다고 보는 대로 자기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게 한다. 자유 사회는 고립되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이고 사회적인 인간들의 망이다. 모든 인류를 돕는 그것의 능력은 자유 사회의 도덕적 차원을 강조한다.

자유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뿌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지적했듯이, 자유는 보편적인 사상이다.¹ 그것은 이슬람교에서 불교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서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들과 문화들에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인도 황제 아쇼카(Ashoka)는 2세기 이상 전에 자유와 정치적 관용을 요구했다. 16세기 무굴 제국 황제 아크바르(Akbar)는 심지어 유럽에서 종교 재판소(the Inquisition)가 종교적 이단자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관용에 관해 고전적 소견을 말하고 있었다. 이슬람 문화는, 아주 초창기부터, 경제적 자유와 기업심에 개방적이었는데, 이것들이 서양에서 존중되기 한참 전이었다. 터키 제국 황제들은 종종 유럽 군주들보다 더 관용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자유는 세계의 모든 위대한 문화들 및 종교들과 완전히 양립할 수 있다. 그것은 특별히 서양적인 사상이 아니고, 물질

1 Amartya Sen, 'Universal truths: human rights and the Westernizing illusi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20(3), 1998, pp. 40-43.

적인 사상도 아니며, 강력한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와 어긋나는 사상도 아니다. 참으로, 자유 사회는 사람들이 상해, 사기, 착취 그리고 권력 남용을 금하는 공유된 규범들과 규칙들—사람들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의존한다. 그 넓은 틀 안에서, 자유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고, 자기들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며, 자기들 자신의 종교적 의식(儀式)을 따를 수 있게 허용한다. 그들은 어떤 국가 당국의 가치, 문화 그리고 의식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신뢰와 협동의 문화

자유 사회는 권력과 권한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동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자유 사회에서 부는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용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대중으로부터 세금을 짜내거나 독점과 특권을 자신들,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연고자들에게 부여하는 약탈적 엘리트들의 약탈 및 횡령 책략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 그 권력은 인간 역사 내내—강제적 폭력에 기반을 둔 착취를 통해서—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부가 축적되어 온 방식일지 모른다. 자유 사회는 대신 자발적인 협동과 교환이라는 훨씬 더 건전한 동기에 의존한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협동과 교환은 신뢰(trust)를 필요

로 한다. 아무도—(예를 들어, 정부들이나 그들의 연고자들이 생산을 통제하는 곳에서처럼) 자기들이 강제되거나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자기들이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들의 일을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생산자들은 고객들에게—현재의 고객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의 고객들에게도—자기들이 정직하다고 확신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평판을 잃어서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판과 생계의 잠재적 상실은 심각한 걱정거리이다.

자유 사회는 강압을 사용하는 엘리트에 의해 위로부터 지휘되지 않는다. 그것은—신뢰성과 정직의 문화에 의해 지탱되어—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상호 작용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작동한다. 이 자발적인 협동을 움직이는 규칙들과 규범들은 자유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적이게 되어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들에 관해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은 어떤 당국이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효율적으로 되라거나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매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

자유 사회에서 신뢰와 협동의 필요는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관계들을 그것들이 권력에 의해 지휘되는 사회들에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든다. 정신적 가치의 유대, 가족, 우정, 공동체, 유

산, 이웃 그리고 공유하는 이익을 지닌 사람들의 결사는 더욱 중요해진다. 자유가 없는 사회들의 많은 정부들은 그러한 결사들을 자기들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약화시키거나, 전복시키거나, 폐지하려고 했다. 보통 그들은 단지 집단들을 지지하로 모는 데만 성공했다. 자발적인 결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해서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자기 이익과 규칙들

자유 사회는 위로부터의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범한 개인들이 자기들 자신의 계획들과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의 계획들과 행동들에 적응시키는 것을 통해 작동한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이한 개인적 이익들을 가지고 있는 상이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는—정직과 비폭력 같은—간단한 집합의 공유된 규칙들과 가치들이다.

그러한 기본적인 규칙들과 공유된 가치들은 개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그것들은 또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호 이익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협동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자유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거래해서 양측이 이롭다고 여기는 거래를 맺게 한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로울지 결정하는 것도, 그들의 상이한 이익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그들이 이익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

도 어떤 당국에 맡겨져 있지 않다. 자유 사회에서는, 무엇이 자기들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를 사람들 자신이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함으로써 그런 이익들을 어떻게 최상으로 증진할지를 사람들 자신이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무슨 거래든 자유롭게 맺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는 한 그렇다.

사회가 공통의 목표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모든 시민들에게 그것들을 지향하여 노력하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번영할 수 있을지를 약간의 비판자들은 볼 수 없다. 그들은 자유 사회가—공익이 지배할 수 있게 하려면 억압되어야만 하는—사적 야망들의 끊임없고 비생산적이며 빼격거리는 충돌이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실수다. 자유 사회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기 이익이 아주 강력한 동기여서 그것이 쉽게 억압될 수 없다는 점도 받아들인다. 사람들은—관리들과 정치가들에 의해 규정되는—‘공익(public interest)’을 자기들 자신의 이익들보다 훨씬 덜 긴급하고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이익이 실제로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개인들이 (식품, 음료, 주거 그리고 의복과 같은) 자기들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한다면, 자기들이 사는 사회가 얼마나 자선적이건 상관없이, 그들은 매우 오래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 사회는 자기 이익을 유익한 방향으로 돌린다. 자유 사회는

어떤 이상향을 창조하려는 헛된 희망으로 자기 이익을 억압하지 않는다. 일단의 규칙들은 단지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야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요구할 뿐이다.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든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특정 목적을 받아들이고 만족시키도록 강제할 수 없다.

자유 사회가 경합하는 이익들의 영구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는 비판자들의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들이 정말 번영한다는—그리고 더욱 통제된 사회들보다 거의 항상 더 번영한다는—사실에 의해 토대가 침식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들을 존중하는 일단의 간단한 규칙들을 사용하여,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유용한 협동과 협력으로 돌린다.

자유 사회의 개인들이 오직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잘못됐다.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들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타당한 친근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이익들을 고려한다. 그들은 친구들의 존경과 호의, 그리고 훌륭한 이웃이라는 평판을 갈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완화한다. 그들의 헤아림은 보상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 때 다른 사람들도 답례로 그들을 더욱 도울 것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간 자선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완전히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기부하는 것은 덜 자유로운 사회들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들에 훨씬 더 많—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자유 사회들이, 부과된 사회적 의무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회적 의무들을 더 크게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된 규칙들을 통한 협동

다른 사람들과 성공적으로 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바꾸거나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협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유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렇다. 그러나 자유 사회는 또한 사회적 협동에 필수적인 종류의 행동의 일관성을 장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유 사회는 재산의 소유, 통제 그리고 양도에 관한 *법적 규칙들(legal rules)*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관리들에 의해 빼앗기거나 착취될 위협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그들의 미래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생산을 더 값싸고 더 쉽게 할 주택, 공장 그리고 장비와 같은—자본재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규칙들(‘재산권들’)은 정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그저 수세기에 걸쳐 생겼을 뿐이다. 그것들의 한계는 셀 수 없이 많은

법정들의 셀 수 없이 많은 분쟁들에서 시험되었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때 사람들을 더욱 안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협동을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일단의 법률과 관례를 축적했다.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은 또한 많은 다른 규칙들과 규범들도 조화로운 사회적 협동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도덕 규칙들(moral rules)*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모든 사람에게 더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한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장기간의 인간 상호 작용들에 걸쳐 차츰차츰 생기는—예절, 공손 그리고 좋은 상관습 규범과 같은—일반적인 사회 행동 기준들(*standards of social behaviour*)이 있다. 그러한 유익한 규범들은, 비록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에서는 흔하지만, 덜 자유로운 국가들의 정부들이 재생하기에는 어렵거나 불가능할지 모른다.

자유 사회의 시민들은 또한 일정한 기본적인 *민권들(civil rights)*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의 정확한 형태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일반에게 인정된 이러한 규범들은 강제 노동이나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한 고문이나 불균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것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종교나 정치에 관해 당신 자신의 견해를 간직할 자유, 위협이나 박해를 받지 않고 당신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고 정치에 참여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것들은 언론의 자유—생각하는 바를 말할 자유 그리고 통신 매체(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인터넷 제공 회사)가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보도하고 논평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회하고 결사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프라이버시(privacy)—다른 사람들, 특히 당국에 의해 염탐되거나 감시되지 않는 것—를 포함한다. 요컨대, 자유 사회는 자기 시민들이 사람들의 견해, 신념, 생활방식 그리고 행동을 관용하고, 무해 규칙을 조건으로, 그것들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정의와 법의 지배

자유 사회는 또한 *정의의 규칙들(rules of justice)*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 해뿐만 아니라 사기와 기타 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아주 중요하게 자유 사회는 법의 지배를 유지한다. 정치 조직의 주요 문제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느냐가 아니라—그것은 쉽다—그들을 어떻게 *억제하느냐*이다. 자유 사회에서, 정부 당국의 역할과 권력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것은 시민들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를 처벌하도록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이 자의적으로나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확보한다.

자유 사회들은 공식적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선거법, 헌법 그리고 권력 분립과 같은—온갖 종류의 상이한 기제들을 개발했다. 그러나 시민들을 자기들의 통치자들에 의한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알려져 있다. 이 원칙 아래서는, 정부는, 예를 들어, 특정 종족에게 호의나 특권을 부여하

기로 가결할 수도 없을 것이고, 특정 사회적 집단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법들은 공중에게와 마찬가지로 정부 자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똑같은 것이 그런 법들의 집행에도 적용된다. 사법 권력이 공평 무사하게 그리고 자의적이지 않게 사용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정의의 규칙들이 자유 사회에서는 평등하게 적용된다. 시민들은 평등한 대우와 정당한 사법 절차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것은 자의적 체포를 당하지 않는 것, 재판 없이 투옥되지 않는 것, 증거의 규칙들에 따라 집행되는 공정한 재판, 임명된 관리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배심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 그리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 2중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정치가, 관리 그리고 판사에 대한 이 모든 제한들의 효과는 당국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특권을 서서히 해치며, 강제의 해악을 줄이는 것이다. 결국, 자유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들의 자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자유에 대한 경제적 옹호

생활수준의 엄청난 상승

1750년대까지, 인간 생활은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 거의 모든 사람은 옥외 토지에서 고되고, 불확실하고, 햇볕에 타는 식량 재배 활동에 종사했다. 그 농업의 방식들은 거슬러 올라가 파라오 시대에 서와 거의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벌의 의복 같은 사치품들

을 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기를 살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눈에 띄게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부는 당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소작농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력에서—혹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하인이나 친구가 됨으로써—생겼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비참한 존재 양식이었다. 1800년에, 보통의 세계 시민의 소득은—오늘날 대부분의 세계의 수도들에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될—하루 1달러와 5달러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고 경제학자 데어드레이 맥클로스키는 추산한다.² 지금, 세계 평균 소득은 하루 50달러에 더 가깝다. 그것은 번영의 엄청난 상승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저 평균일 뿐인데, 그것은 어떤 나라들이—비록 다른 나라들은 아닐지라도—달성할 수 있었던 번영을 가린다. 세계에서 가장 덜 자유로운 국가들 중 하나인 타지키스탄의 평균 소득은 하루에 7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 중 하나인 미국의 평균 소득은 지금 하루에 100달러를 넘는다. 자유의 편익 덕분에, 오늘날 미국인들은 타지키스탄 국민들보다 14배 더 부유하고, 1800년의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20 내지 100배 더 부유하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리고 영국—모두 『세계 경제 자유 보고서』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로 등

2 Deirdre N. McCloskey, 'Liberty and dignity explain the modern world,' in Tom G. Palmer (ed.), *The Morality of Capitalism*, Students for Liberty and Atlas Foundation, Arlington, VA, 2011.

급지어진다—에서는 평균 소득이 하루에 90달러 이상이다. 자유와 번영은 같이 간다.³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난하고 덜 자유로운 국가를 떠나 부유하고 더 자유로운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매년, 20개의 가장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이사해 가는 사람들이 이사해 오는 사람들보다 1,000명 인구 당 대략 1.12명 더 많다. 대조적으로 20개의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에서는 이사해 오는 사람들이 이사해 가는 사람들보다 1,000명 당 3.81명 더 많다.⁴ 그 20개 가운데서 가장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에서 순 이민이 가장 높다. 평균적으로, 자유 척도의 아래의 반에 있는 국가들은 이민자들을 잃고 있는 반면, 위의 반에 있는 국가들은 그들을 얻고 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발로 투표하고(voting with their feet) 있다. 그리고 그들은 비자유 국가들이 사람들의 이출을 막고 더욱 자유로운 국가들이 이입을 제한하려고 최대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자유와 자선

자유로운 국가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들 자신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다. 러시아 도덕 철학자 레오니드 니코노프

3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2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Vancouver, BC, 2012.

4 Gabriel Openshaw, 'Free markets and social welfare,' *Mises Daily*, 4 October 2005, http://www.mises.org/daily/1915#_edn2.

가 관찰했듯이, 전 국민의 가장 가난한 1/10에 가는 국민 소득의 평균 몫은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과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에서 (각각 2.58퍼센트와 2.47퍼센트로) 거의 같았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1/10이 하루에 평균 23달러를 버는)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것이 (가장 가난한 1/10이 하루에 그저 2.50달러만 버는) 가난한 국가에서 가난한 것보다 여전히 훨씬 더 낮다.⁵

자유롭고 부유한 국가들에서 부는 또한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기 쉽기도 하다. 그들의 가장 가난한 국민들은—덜 자유로운 국가들에서 우연히 옳은 가족, 카스트, 인종이나 종교, 혹은 정치적 집단의 출신이 아닌 사람들과 달리—부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더욱 자유로운 국가들에서는 훨씬 더 큰 사회적 이동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차고에서 자기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지금 게이츠는 자기의 모든 부를 대의를 위해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전형적이다. 인간 자선 행위 역시 더 부유한 국가들에서 훨씬 더 많다. 바클레이스 웰스에 의한 한 조사는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의 2/5가 *자선적 기부(charitable giving)*를 자기들의 상위 3가지 지출 우선순위들 중 하나로서 보고하는 것을 발견했다.⁶

5 Leonid Nikonov, 'The moral logic of equality and inequality in market society,' in Tom G. Palmer (ed.), *The Morality of Capitalism*, Students for Liberty and Atlas Foundation, Arlington, VA, 2011.

영국의 자선 원조 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에 따르면, 국민들이 돈과 시간을 자선 운동에 가장 많이 기증할 것 같은 다섯 국가들은—모두 자유라는 면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이다.⁷ 그리고 그런 국가들 모두 다는 가난하고 덜 자유로운 국가들의 국민들보다 기부할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자유는 차별을 좌절시킨다

비자유 국가들에서는, 차별이 매우 많다. 만약 당신이 옳은 계급, 카스트, 종교, 성 혹은 가족 출신이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좋은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 시장 경제들은 차별을 내쫓는다. 자유 사회의 생산자들은 누구와 거래할지 혹은 누구를 고용할지 선택할 때 차별할 여유가 없다.⁸

예를 들어, 고용주들은 이민자들을 싫어할지 모르고, 특히 만약 그들이 다른 문화, 인종 혹은 종교로부터 왔다면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이민자 집단들은 똑같은 일에 대해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임으로써 대응할 수 있고 종종 대응한다. 그러면 오직 자국의 근

6 Barclays Wealth, *Global Giving: The Culture of Philanthropy*, London, 2010.

7 Charities Aid Foundation, *World Giving Index 2012*, Charities Aid Foundation, West Malling, 2012.

8 이 점의 훌륭한 개설에 대해서는, Milton Friedman and Rose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1962를 보라.

로자들만 고용함으로써 차별하는 고용주들은 비교 열위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금 총액은 이민자들을 기꺼이 고용하는 경쟁자들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들의 이윤은 더 낮을 것이며, 아니면 그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거래를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것이다. 차별하는 것은 고용주들의 상업적 이익이 되지 않을 뿐이다.

심지어 국내 총 노동력 안에서조차도, 자유 시장 경제는 차별을 내쫓는다. 예를 들면, 여자들이 일하러 나가는 것에 대한 문화적 반대가 있어서 그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여자들을 정말 차별하는 고용주들은 차별하지 않는 그들의 경쟁자들보다 의존할 인재 풀이 훨씬 더 작을 것이다. 다른 흥미로운 예는 인도에서의 카스트 구분이다. 하이데라바드(Hyderabad) 같은 센터들에서 하이테크 산업의 상승은 낮은 카스트의 인도 근로자들의 고용 전망을 크게 높였다. 이 경쟁적 산업에서 고용주들은 자기들의 두뇌집단을 위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카스트나 어떤 다른 문화적 요소에 따라 차별할 여유가 없다. 차별 금지법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자유로운 실업가들의 단순한 자기 이익은 몇 년 지나 달성하고 있다.

질문: 자유 사회들은 그저 지독하게 물질적이지 않은가?

아니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들에게 선택들과 기회들을 준다. 그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들—음식, 주거 그리고 의복—을 훨

씬 더 낮게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 무역과 시장의 융성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들을 그들에게 준다. 사람들을 한 평생 고되고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에 운명지우는 대신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여행, 음악, 미술, 문화 그리고 사교 활동과 같이 자기들이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한다. 그것은 그들이 적당한 의료와 더 나은 교육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부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우리의 물질적 안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도—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로운 국가들이 경기장, 콘서트홀, 극장, 대학,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자유로운 사람들의 창의성

더 자유로운 경제들이 더 부유한 하나의 이유는 그것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재능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자기들을 방해하는 차별이 더 적어서 자유 사회의 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기들의 마음과 능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낮게 만드는 제품을 고안하고 개선하고 공급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제품을 사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 사회는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그러므로 더 빨리 발전한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들의 자기 이익을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돌린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당신에게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물건을 생산함으로써 돈을 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더 많이 사러 돌아오기를, 그리고 자기들의 친구들에게 당신이 아주 신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생산자들을 자신들보다 자기들의 고객들에게 아주 많이 집중시킨다.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에서 대부분의 저명한 실업가들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고객들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욕망과 필요에 정성을 들임으로써 자기들의 사업을 성공시키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현실은 자유 경제들에 관한 ‘냉혹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dog eat dog)’ 풍자만화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경제는, 강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와 교환에 토대를 둔, 엄청나게 협동적인 체제이다.

자본의 창조

혁신과 고객 서비스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자유 경제들은 생산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부유해진다. 손으로보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쉽지만,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그물을 만드느라 열심히 일하는 동안 당분간 더 적은 물고기들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를 희생함으로써, 당신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미래의 생산을 훨씬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더 쉽고 자

기의 노동을 더 생산적이게 할 (종종 아주 더 생산적이게 할: 손 쟁기가 아니라 트랙터를 가지고 농토를 경작하는 데 수반되는 노력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주택, 공장 그리고 기계류와 같은 자본을 축적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적적이다. 생산적 기술에 대한 각각의 추가 및 개선은 더욱더 생산을 증대시키고 노력을 감소시킨다.

자유 사회는 이 생산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자신의 생산성과 자신의 번영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데, 자유 사회는 주택, 공장, 기계류 그리고 기타 자본재들이 몰수되거나 도둑맞을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소유할 능력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다. 자유 사회는 몰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유 사회는 도둑이 털 일어나게 할 것 같은 재산 소유권에 관한 도덕적 및 법적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법과 문화를 통한 이러한 재산 소유권 보호는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의 엄청나게 중요한 특징이다. 결국, 만약 자기들의 수확이 산적들에 의해 도둑맞을 것 같다고 그들이 믿는다면, 농작물을 씨 뿌리고, 간격을 두고 심고, 경작하고 그리고 영양물을 주는 노력을 기울일 농부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만약 자기들의 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빼앗긴다면,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만약 몰래 떼는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자기들을 속여 돈을 사취한다면, 농부들은 저축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기들의 자산이 보상 없이 국유화될지 모른다면,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 같다. 특혜를 받는 엘리트들에 이롭도록 시장을 왜곡하는 특권들은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업들을 키울 가능성을 더 적게 한다.

그리고 도둑이나 정부에 의한 이러한 착취가 더 크면 클수록, 일, 저축 그리고 진보에 대한 반(反)유인이 더 크다. 14세기 이슬람 학자이자 법률가인 이븐할둔은 그 점을 매우 잘 이해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백성들의 재산에 대한 공격은 재산을 얻고 증식하려는 유인을 제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재산을 얻는 것의 목적과 궁극적인 운명이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재산을 얻고 증식할 유인이 사라질 때,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재산도 얻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재산권이 침해되는 범위와 정도는 신민들이 재산을 얻으려는 노력이 약해지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한다.⁹

재산과 진보

그러나 당신의 재산 소유권이 확고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미래와 당신 가족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면—이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다—당신은 어딘가에 금고를 가져 그것으로부터 당신의 생활을 영위한다. 당신은 또한, 영원히 부유한 엘리트에 좌우되는 대신, 사업을 시작하고 당신 자신의 생산적 자원을 축적하기 위해 담보로 삼아 빌릴 수 있는 자산도 가진다. 그것은 당신에

⁹ Ibn Khaldun, *Muqaddimah: An Introduction to History*, 1377.

게 새로운 것들을 실험할—말하자면, 당신의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모험적 사업을 재정 조달할—수 있게 할 재정적 예비비를 준다.

확고한 재산 소유권은 전문화와 거래를 촉진하는데, 이것들은 인간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인간의 부를 늘린다. 만약 우리가—우리 자신의 식량을 재배하거나, 우리 자신의 물을 길어 오거나, 우리 자신의 연료를 찾아다니거나, 우리 자신의 의복을 만들거나, 우리 자신의 집을 짓거나 혹은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같이—우리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매우 궁핍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서 별로 없고, 우리는 그것들 모두를 조금이라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올바른 도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의 재산 소유권이 존중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한 과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도구들을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 자기들의 제품들을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 농부는 쟁기와 트랙터에, 주택 건축가는 사다리와 삽에, 여성복 재봉사는 베틀과 재봉틀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전반적인 자급자족의 아마추어가 일찍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 자기들 자신의 직업에서 훨씬 더 숙련될 수 있고 자기들의 생산의 더 나은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업(division of labour)을 통해 우리는 모두 더 나은 품질의 제품, 더 낮은 비용 그리고 훨씬 더 풍부한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다시 이것은 자기들에게서 빼앗거나 속이지 않는다고 확신하여 사람들이 생산적 자본을 축적하고 거래에 종사할 만큼 충분히 안심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 대안은 냉혹하다. 이븐할둔이 계속 했듯이, ‘사람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이익 활동을 중단할 때, 문명의 상업은 급격히 쇠퇴하고, 모든 것은 부패한다. 사람들은 생계를 찾아 곳곳으로, 자기들의 현재의 정부의 관할 바깥의 곳들로, 흩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가 없는 국가로부터 더욱 자유로운 국가로의 이민을 보듯이 오늘날 너무나 명백한 어떤 것이다.

아무도 희생시키지 않고 부를 창조하기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재산이 오로지 어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서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 자유 경제는 실제로 재산을 창조하고(create) 기존 재산에 가치를 부여한다(add value).

가치는 사물의 물리적 특질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물에 관해 *생각하는*(think) 것이다. 판매자들은 재화를 자기들의 고객들의 현금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화를 내어놓는다. 고객들은 자기들이 사는 재화를 자기들이 재화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화폐보다 더욱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현금을 내어놓는다. 심지어 학동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자기들이 싫증난 어떤 것을 줌으로써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장난감들을 교환

하곤 한다. 그들의 교환은 가치를 창조했다. 그러한 거래로 아무도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 참으로, 자기가 그것으로 손해 볼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면 어느 쪽도 그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비슷하게, 만약 누군가가 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던 곳에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키우며 다른 사람들이 그 농산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들은 이전에 비생산적이었던 어떤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부가 창조되었지만, 아무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만약 기업가가 구두나 의복이나 자동차나 혹은 사람들이 기꺼이 구매할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공장을 짓는다면—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번다면—빼앗긴 사람이 누군가? 그들이 재산을 축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가치를 창조했고 보급했다.

자유 사회는 연고 자본주의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는 부유한 법인 이해 관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기업 친구들에게 독점, 특권, 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을 줌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부를 훔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경쟁으로 착취와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불가능하게 된다. 기업들은 자기들의

바로 그 존재를 고객들에 의존한다. 만약 그들이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고객들은 그들을 버리고 다른 공급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항상 다른 잠재적 공급자들이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자유 사회에서는 정부들은 독점을 창출하거나 특정 회사를 보호하거나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을 키우는 것을 막을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경제는 경쟁을 생기게 하고, 이것은 생산자들보다 소비자들에게 힘을 준다. 만약 회사들이 돈에 상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회사들은 도산할 것이다. 어떤 회사들은—예를 들면, 큰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생산과 같은 부문들에서는—매우 커지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자기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큰 투자자들로부터 실제적 혹은 잠재적 경쟁에 직면한다. 오직 당국이 경쟁을 억누르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거나 막을 때에만 문제들이 시작된다.

확실히, 진정으로 공개적인 경쟁은 유지하기 힘들다. 심지어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들에서도, 정치가들은—종종 비고의적으로—경쟁을 줄이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에 대해 가지는 권력을 약화시키는 규칙들과 규정들을 부과한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너무나 자주 이것을 야기하는 데 공모한다. 예를 들면, 기성 회사들은 정치가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제품 질과 제조 기준에 대한 규정들을 상정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할지 모른다. 그들은 대중을 질 나쁜 재화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규정들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할지 모르는 새롭거나 더 작은 공급자들로부터 그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혹은 다시, 정치가들은, 국내 일자리들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산에 직면하고 있거나 해외 경쟁의 위협을 받는 산업들을 강화하는 데 공금을 사용하기 위해 개입할지 모른다. 그들은 심지어 국내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수입품들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런 산업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구제를 가져올지 모른다—그러나 그 때는 더 적은 선택을 가지며 더 낮은 질의 재화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것에 직면하는 납세자들과 대중의 희생으로.

사회가 자유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대신 당국에 경제적 권력을 더 많이 부여할수록, 생산자들과 정치가들이 자기들 자신에 이익이 되게 공모하여 사람들을 착취할 여지가 더 많다. 그러한 연고 자본주의의 흔적들은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그 문제는 가장 덜 자유로운 경제들에서 훨씬 더 나쁘다. 종종,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들과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심지어 약함의 징후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당국은 연고자들에게 특수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는 데 입법권이나 납세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와 공공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관해 엄격한 규칙들이 있다. 생산자들은 보

조금과 보호를 얻기 위해 성공적으로 당국에 로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특혜를 부여할 권력이 그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들과 정치가들에게 보통 사람들을 착취할 권력을 주는 것은 자유의 결핍이지 경쟁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유*의 승리

비록 경제적 자유와 거래가 좀처럼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지난 30년에 걸쳐서 아마도 20억 명의 사람들을 가장 비참한 가난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렸을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정부들이 반세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장벽들과 무역 장벽들이 무너짐에 따라,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세계 무역 체제에 가담했고 부가 퍼졌다. 그것은 특히 국제적으로 무역할 새로운 자유를 받아들인 아주 최빈 국가들의 아주 최빈 국민들에게로 퍼졌다. 지구상에서 자유보다 더 자비롭고 생산적인 원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3 자유 사회의 제도들

국가 없는 사회

자유와 문화

자유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정부 없이 영위된다. 이것은 ‘—정부가 잠자고 있는—밤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오래된 인도 농담의 사례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대부분의 행동들에서 정부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유 사회의 사람들은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과 융화하려고 하며,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한다. 그들은 종교 집단의 능동적인 회원일지도 모른다. 클럽과 협회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즐기는 것과 같은 것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그것이 노래하기든, 독서든, 요리든, 낚시든, 스포츠를 하고 관람하는 것이든 혹은 수집이든 그렇게 한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집단을 형성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젊었든, 늙었든, 학우들이든, 새 부모들이든, 혹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빈곤한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 급식소나 호스텔(학생·근로 청년용의 간이 숙박소—옴긴이 주)을 운영할지 모른다. 이것은 소위 *시민 사회*(civil society)이다.

그리고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행동과 이주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민들은 대개 공통의 가치, 문화 그리고 전통을 공유하고 존중한다. 자유로운 개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때때로 오래된 방식들에 도전할지 모른다—그리고 참으로 그것은 일을 하는 더 나은 방법들이 발견되고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유는 문화의 적이 아니다. 심지어 특정 문화를 공유하지 않는 이주자들조차도 만약 그들이 사회에 받아들여지려면 그 지배적인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그들은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을 받아들인 국가의 전통들과 도덕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들이 남을 성나게 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그들은 빨리 그것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차별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다. 자유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그러나 본국민의 어느 누구도—혹은 어떤 다른 사람도—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자기들의 방식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자기들과 적절하게 의사 전달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찾아낼 필요가 없다.

인간은 교제를 원하는데, 기회를 얻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외자가 되면 당신은 크게 불리해진다. 자유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서로의 가

치들을 공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간단한 인간적인 용어로, 그것들을 관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자유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언론과 행동의 자유는 지배적인 문화, 도덕성 그리고 전통들을 불가피하게 존중한다.

누가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상호 이익, 협력, 의무, 신뢰 그리고 의존의 이러한 비공식적 망은 우리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기능하는 데는 정부가 필요 없다. 어떤 당국도 연루되지 않고도, 우리는 서로 협동하고, 다양한 집단들에의 우리의 회원 지위를 통해 번영한다.

논쟁의 여지없이 정부 기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를 심지어 법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끼리 결정한다. 자유 사회에서 계약은 국가에 의해 설계되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조건들의 윤곽을 명시하고 그것들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계약을 정말 맺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 사이의 어떤 분쟁도 국가가 운영하는 법원보다 독립적인 중재 재판에 의해 판결되도록 동의하는데, 전자는 사적 대안보다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며, 훨씬 덜 공정할 수 있다.

만약 주민 자체가 꽤 동질적이라면 그것은 그러한 비공식적이고 협동적인 사회적 관계의 창설을 돕는다.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인종이나 종교 출신이라면, 그들은 가치를 공유할 것이고

협정을 안심하고 맺는 것을 더 쉽게 여길 것이다. 전통적인 경계들을 다시 그어서 상이한 민족 집단들을 한 덩어리로 만든 식민지 체제와 전후 국제회의는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리아, 리비아, 레바논 혹은 이라크와 같이 최근에 분쟁으로 분열된 많은 국가들은 1세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민족들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작품이다. 영국인들도 아프리카와 인도 아대륙에서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상이한 부족 혹은 민족 집단들을 동일한 행정적 식민지로 묶었다.

정부들이 심지어 자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허약한 국가들이 아주 많다는 것은 놀랄 것이 못된다. 그러한 것은,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를 키워야 할, 돌이 많은 땅이다. 일단 협동적 문화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우리의 협동의 기초가 될 상호 존중과 신뢰의 유대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협동적 문화를 재창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설사 그들이 적절하게 같이 협동하지 않을지라도, 상이한 집단들이 자기들을 공존할 수 있게 하는 해결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유 사회의 조건들이 수립되고 그 결과 상호 편익의 가망이 생기면 상이한 민족들 사이의 공존과 협동은 항상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정부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날 정부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우리는 모두 정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집합적으로 결정되거나 행해져야 하는 것들을 결정하거나 행하기 위해 우리가 정부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에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 깊은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 대한 억제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쟁점은 정부의 크기라기보다 그것이 거기서 결정하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가이다. 자유 사회와 그것의 경제가 신뢰에 근거하므로, 자유 사회들의 시민들은 자연적으로 자기들의 정부가 자기들을 사기와 절도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국이 사람들에게 버스 요금을 회피했다고 종신형을 부과하거나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할 것에 대비해 모든 사람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행동은 문제에 비례적이어야 한다.

정부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이유는—말하자면, 특정 재화를 거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개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순전히 자발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리는 결정들—말하자면, 사람들이 특정 재화를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은 효과적이기 위해 강압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강압의 사용은, 설사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할지라도, 해악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는 그것이 달성하는 편익을 그것이 의존하는 강압의

해악에 대비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성급히 그 편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생활 둘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것들은 소규모 시행착오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 셀 수 없이 많은 혁신자들이 많은 상이한 아이디어들—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교수 방식—을 시험한다. 작동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은 이내 포기되지만,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모방되고 보급된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 제도들의 정부 통제는 혁신자들에게 어떤 여지도 거부한다. 시행착오의 끊임없지만 점진적인 과정은 느려진다.

더군다나, 정부들이 개입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무슨 제품들이 제조되어야 하는지 혹은 무슨 교수 방식들이 채택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쟁점들에 관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결정들을 내린다. 불가피하게, 이것은 혁신을 늦추고 또한 진보도 늦춘다. 그리고 정부들이 실수들을 저지를 때—불가피하게 그들이 저지를 것이지만—그것들은 거대한, 파멸적인 실수들이 된다.

도대체 정부를 왜 가지는가?

여전히 정부들에게 일정한 일들을 하게 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관한 약간의 필수적인 규칙들을 결정하고 시행할—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의 어느 쪽으로 운전해야

할지 결정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계약들을 존중하도록 확보하는—
당국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덧붙여서, 수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나 어떤 개인
에 의해서도 수행되지 (혹은 잘 수행되지) 않을 것 같은 약간의 사
업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것들은 소위 공공재(public goods)이다.
국방과 치안이 예가 될지 모른다. 안전의 증진으로부터 모든 사람
이 편익을 얻는데, 누구든 왜 봉사하기로 자청할까? 다른 예는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 도시들의 공기를 막는 대기 오염이다. 가열
하는 데 무연 연료를 사용하는 것, 자동차에 촉매 컨버터(자동차의
배기가스 정화 장치—오킨이 주)를 장착하는 것, 그리고 공장 굴뚝
에 폐기물 여과기를 설치하는 것이 그 문제를 치유하고 전반에 걸
쳐 생활을 더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이 그저 그들의 희생에 ‘무임승차해서(free-ride)’ 그들의 비용
으로 더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을 뿐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비용을 자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그러한 쟁점들을 정치적으로 결정할지 모르고, 모든 사람에
게 자기들의 오염을 억제하도록 강제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치안과
안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과세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광범위
한 편익을 낳지만 시장이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을 달성한다.

약간의 자유 옹호자들—우리는 그들을 *리버테리언(libertarians)*
이라고 부르지 모른다—은 우리가 정부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들은 자유 사회들이, 예를 들면 자선적 기부에
의해서든지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국한하여 무임승차를 억

제하는 창의력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협동하는 방식과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전달하는 방식을 찾는 데 극히 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계약을 시행하거나 우리의 목숨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재산을 절도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고,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힘으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classical liberals)이라는—자유 사회의 다른 옹호자들은 적어도 약간의 정치적 의사 결정이, 그리고 약간의 정부 권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협정을 시행하며 공공재를 전달하는 데 필요하다고—비록 그것이 이런 기능들에 국한되어야 할지라도—주장한다. 그러나 리버테리언들은 만약 당신이 정부들에게 1인치를 주면 그들이 1마일을 압수할 것임을 여전히 두려워한다. 거의 모든 세계의 정부들은 오늘날 이 핵심 기능들을 훨씬 넘는 역할들을—공중의 비용으로—자신들을 위해 찾았다.

질문: 확실히 정부가 국방과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하는가?

아니다. 전쟁을 시작할지 여부와 같이, 집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확실히 약간 있지만, 사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것은 거의 별로 없다. 많은 국가들은 자기들의 방위 기능들의 적어도 약간을 민간 회사들과 계약했는데, 이 회사들은 차량,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장비를 만들고, 병사(兵舍)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음식과 병참을 제공한다.

우리가 오직 정부들만이 우편물을 배달하고, 전화망을 운영하고, 철도를 운영하고, 상수도, 가스 그리고 전기를 제공하고, 도로, 병원 그리고 형무소를 건설하고, 혹은 심지어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던 것이 오래 전이 아니었다. 지금은 민간 회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경쟁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들이 산출해야 하는 질은 더 높다.

개인적 및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견해들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멀리 확장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좌’ 대 ‘우’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결정들이 *개인들* (individuals)에 의해 내려져야 할지 *집합적으로*(collectively) 내려져야 할지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personal) 결정과 *경제적*(economic) 결정 양쪽 다에 적용되어야 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우리는 네 가지 상이한 관점들을 식별할지 모른다.

- 첫 번째 집단을 우리는 *개인주의자들*(individualists)이라고 부르지 모른다. 그들은 개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 생활과 *경제적* 생활 양쪽 다에 관해 자유롭게 자기들 자신의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반대가 *권위주의자들*(authoritarians)인데, 그들은 *개인적* 행

동과 경제적 행동 양쪽 다에 대해 집합적 통제를 옹호한다.

- 세 번째 집단은 경제적 결정들에서는 개인적 자유를 옹호하지만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들에 대해서는 집합적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보수주의자들(conservatives)이라고 불릴지 모르나(비록 그 용어가 상이한 문화들에서는 상이한 것들을 의미할지라도). 경제적 자유가 있지만 사회적 통제가 있는 이러한 혼합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 마지막 집단은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는 집합적 통제를 원하지만 개인들에게 자기들의 개인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내맡겨 두려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 마지막 집단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름을 찾기가 어렵다. 미국에서, 그들은 리버럴(liberals)이라고 불리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오도하는 용어 사용이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리버럴(liberal)은 고전적 자유주의자(classical liberal)—정부 규칙들의 어떤 틀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적 및 개인적 결정들이 개인들에게 내맡겨져야 한다는 사상—를 의미한다. 사실상, 그 용어는 개인적 자유를 신봉하지만 정부가 경제생활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하기를 원하는 미국 정치가들과 지식인들에게 도둑맞았다.

이 모든 한 단어 묘사들은 실제로는 경제적 및 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들의 스펙트럼인 것을 묘사하는 상당히 부정확한 방식들이다. 심지어 각 집단 안에서도 광범위한 견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자들은 총체적인 자유를 옹호할 리버테리언들에서부

터 정부에 대해 제한된 역할을 인정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다. 동시에, *권위주의자들*은 총체적 통제를 옹호하는 *전체주의자들(totalitarianism)*에서부터 사적 의사 결정에 대해 제한된 역할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자들(statsists)*에 이르기까지 걸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견해들은 아주 다른 사회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 단순한 ‘좌-우’ 스펙트럼 상에 적절하게 묘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유용하다. 사람들이 *경제적* 부분과 *개인적* 부분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생활 부분들에 걸쳐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면에서 그것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왜 개인적 선택인가?

경제적 및 개인적 생활 양쪽 다에서 자유를 선호할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우선,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필요를 먼 정부들이 언제나 알 수 있을 것보다 훨씬 더 잘 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희망, 공포, 꿈, 욕망, 필요, 욕심 그리고 야망을 느낀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상황과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고 도우려고 하는 친구,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상황을 훨씬 더 많이 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들과 상이한 행동들이 일으킬지 모르는 문제들을 훨씬 더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생활과 미래에 관해 단연 가장 잘 결정을 내릴 입장에 있다.

남이 결정을 대신 해주는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단지 노예일 뿐이라는 도덕적 논점도 또한 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과 실수로 부터 결코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당국이 만드는 나쁜 정책의 해악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시도할 이유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들의 성공의 편익을 누리고 자기들의 실수의 비용을 겪는 개인들은 작동하는 것을 되풀이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다양성은 진보를 촉진한다

다양성에는 또한 이점도 있다. 자기 자신의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상이한 방식들로 행동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상이한 생활양식들을 시험—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신의 1859년 에세이 ‘자유론’에서 불렀듯이, ‘생활에서의 실험(experiments in living)’¹—해 볼 수 있다. 이것들 중 약간은 성공적이고 다른 것들은 성공적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고, 작동하는 것 같은 것을 더 많이 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더 적게 하여 우리 자신의 진보를 촉

1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in John Stuart Mill, *On Liberty and Other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8.

진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결정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하는 오직 한 가지 방식만이 지배한다. 어떤 실수도 모든 사람에게 파멸적이다. 그리고 설사 공식적인 접근법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잘 작동할지 모르는 다른 것들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 결정은 더 느리고 더 관료적일 것이다.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의 진보는 느리고 종종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유 경제에서는,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고객들로부터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는다. 매일의 매 순간, 사람들은 다른 것들보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선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입하는 어느 제품이나 모두에 대해 가격, 신뢰성, 크기, 형태, 색깔 그리고 많은 다른 특질들을 끊임없이 비교 검토하고 있다. 그런 다양한 선호들은 생산자들에게 즉각 전달되고, 생산자들은 어떤 것이 팔리고 어떤 것이 팔리지 않는지 본다. 자기 경쟁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공급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적게 생산하기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재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새롭고 다른 제품들을 더욱더 많이 도입하는 실험을 하도록 자극받을 것이다.

다시, 그것을 무엇이 생산될지를 당국이 결정하는 경제와 대비해 보라. 당국이 전체 경제를 통제하건, 보통의 경우가 그렇듯, 경제의 그저 일정 부분만 통제하건 상관없다.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고 어

떻게 생산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사 결정은 여전히 느리고 서투른 일일 것이다. 기껏해야, 고객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몇 년마다, 선거에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개별 제품이나 질에 관해 투표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실제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국방, 학교 교육 그리고 보건 의료로부터 관개, 농업 그리고 농촌 수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할지 모르는 정책들의 전체 꾸러미에 관해 투표하고 있을 것이다. 당국은 고객들이 시장 경제에서 공급자들에게 주는 끊임없는, 장려하는 피드백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국에 혁신하라는 압력도 별로 없고, 소비자들도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개입의 억압적 효과

오늘날 정부가 국가의 전 생산을 운영—하거나 심지어 운영하려고 시도하기라도—하는 국가들은 별로 없다. 더욱더 흔한 것은 정부들이 특정 부문들—특히 보건 의료, 교육, 농업 혹은 치안과 같이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부문들—을 통제하거나 정부들이 생산을 보조금, 가격 상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더욱 일반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들이 그저 소수의 부문들만 운영하려고 할 때조차도, 느리고 서투른 의사 결정의 문제들은, 특히 이런 부문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문들인 곳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단지 식량의 생산만 운영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국민들

이 필요로 하는 식품의 충분한 양을 정부가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광범위한 기아일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생산을 더욱 일반적으로 조종하려는 정부 노력도 공급과 수요의 바로 그 불일치를 낳는다. 예를 들면, 정치가들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말하자면, 식품이나 보건 의료나 이자율—의 가격을 그것들에 가격 상한을 부과하여 억제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생산자들은 이러한 것들의 공급으로부터 덜 번다. 그들이 받는 가격은 그들이 생산에 쏟는 노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덜 생산하거나 그 부문을 완전히 떠난다.

그 결과는 부족이다. 법에 의해 부과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서는, 생산자들은 덜 공급할 것이지만, 소비자들은 더 많이 사기를 원할 것이다. 식품은 공식적으로는 쌀지 모르지만, 선반에는 하나도 없다. 이자율은 낮을지 모르지만, 용자는 찾기가 불가능하다. 보건 의료는 무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해 대기하여야 한다.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보조함으로써 생산을 조정하려고 할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은 자신의 농업 부문을 오랫동안 보조하고 보호해 왔는데, 추측건대 식량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인 유럽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보조금은—원하지 않는 버터의 ‘산(mountains)’과 팔리지 않는 포도주의 ‘호수(lakes)’를 가진—막대한 과잉 생산을 장려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덜 가시적인 다른 결과들도 있다. 유럽의 농업 보조금으로부터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농부들이 아니라 가장 큰 토지 소유자들이었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하였는데, 농부들은 자기들이 결코 생산하지 않은 식량에 대한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세계 도처로부터, 그리고 참으로 역사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유사한 일화들이 있다. 자신의 1776년 책 『국부론』에서,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청어 어선들이 자기들의 어획량보다는 자기들의 보조금을 극대화하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불평하였다.²

어떤 형태의 생산이든 보조하는 것은 그 부문으로 자원들을 끌어들이고 시간, 노력 그리고 자본이 더 낮게 고용될지 모르는 다른 부문들로부터 자원들을 빼앗아간다. 예를 들면, 많은 정부들이 현재 값비싼 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투자할 훨씬 더 비용-효과적인 방식들을 찾을 수 있는 개인들과 기업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있다. 그것은 대중의 장기적 번영을 억압할, 경제 성장에 대한 장애물이다.

소수에 의한 결정

의사 결정이 당국에 의해서보다는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할 다른 이유는 선택들이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보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불가피하게, 모든 사람

²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Book IV, ch. V.

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당국은 자기의 결정을 실행할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또한 인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권력을 자기들 자신의 이익과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일족이나 정당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유혹을 삼가도록 부탁하는 것은 무리다. 계약과 독점은 그들의 동료들에게 주어진다. 너무 큰 양의 공공 지출이 선임 정치가의 본고장 지역구로 간다. 정부의 일자리, 경찰 그리고 사법부는 진가에 따라 주어지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간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더 적고 개인들 자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더 많을수록, 이런 종류의 부패가 존재할 여지는 더 적다. 정부는—강제로부터 이익을 얻기보다—강제를 최소화하는 자신의 주된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때때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너무 미묘해서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앗아 가는 것보다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게서 더 빨리 배우는 기술은 없다,’³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썼다. 예를 들면, 빚을 냄으로써, 정부들은 자기들에게 선거 승리를 안겨주고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부유하게 하면서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사업들에 지출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비용을 다음 세대에 넘길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의 빚이 너무 심하면, 그들은 화폐를 인쇄해서 자기들의 채권자들에게 가치가 떨어진 통화로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공개적이건 숨겨져 있건 그

3 *Ibid.*, Book V, ch. II, Part II, Appendix to Articles I & II.

러한 도둑질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생산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덜할 것 같은데, 전체 사회는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가 아니고는 빛을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도 제한될 것이다. 그 정부는 통화에 대한 독점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돈을 필요로 한다고 더 인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세금은 낮을 것이고—정치적 반대자들이나 ‘부자’와 같은 소수파에게 듬뿍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넓은 기초에서 부과될 것이다. 조세는 단순하고, 투명하며, 납부하기 쉽고, 예측 가능할 것이다. 그것들은 납세자들로부터 끌어들이는 양을 늘리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혹은 민간 기관들에 의해 ‘경작되지(farmed)’ 않을 것이다.

은정주의 논거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 아주 혼란 시각은 대중이 아이들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든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모순적인데, 자기들의 권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국민들(the people)’을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올바른 정부를 선출할 만큼 충분한 집합적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들 자신의 생활을 관리할 만큼 충분한 개인적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사람들이 조금 더 낮게 행동하면 전체 사회가 편익을 얻을 사례들이 확실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대부분은 법이 시행할 바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일을 하도록 도덕적으로 권유할지 모르지만, 자유 사회의 정부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킬 수가 없다. 정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도록 강제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할 권능만 가지고 있다. 국방과 같은 일정 공동 사업들에 사람들이 기여하게 하는 데 ‘공공재’ 논거가 있지만, 그런 사례들은 드물다.

국가 운영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과 같은 쟁점들에 사람들이 놀랄 만한 무관심을 종종 보인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평하는 것이 쓸데없이 지껄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간여하는 결과로 무언가 실제로 개선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간여할 것이다.

질문: 확실히 우리 모두는 정부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아니다. 자유 사회에서는, 정부가 우리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많은 지역들에서는, 오직 강압을 통해서만, 정부들이 수립되었고, 권력을 쥐고 있다. 이것은 정당한 형태의 정부가 아니다. 자유 사회의 정부는 (국방과 같이) 집합적으로나 (사법과 같이) 공평하게 결정되거나 행해져야 하는 소수의 것들을 결정하거나

행할 기관으로서 국민들에 의해 형성되는 정부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민들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 반대 방향이 아니다.

정부를 제한하는 방식들

민주주의

집합적 결정들이 불가피한 드문 사례들에서는, 자유 사회는 전 주민에게 의견을 구하는데, 왜냐하면 전 주민이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democracy)가 있다.

전 주민이 모든 결정을 하지 못할지 모른다—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성가시고 시간을 소비한다. 보통은, 전 주민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결정할 대표자들을 선출한다. 그러한 대표자들은 자기들의 선거인들의 견해들을 노예 같이 반영하도록 기대되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판단을 그 과정에 도입한다.

민주주의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와 같지 않다. 대중의 과반수는 종교적 혹은 인종적 소수파를 대량 학살해야 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자유 사회의 정부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자유 사회의 정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피해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농담은 민주주의를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로 누구를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자유 사회에서는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파의 권력에 대한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억제하느냐이다. 그들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그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 만약 자유가 보호되려면, 우리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자유 사회에서 선거들은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어떤 권위주의자들은 어쩌면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책들을 가진 상이한 정부들이 투표로 선출되고 투표로 해임됨에 따라 선거들이 그저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 사회에서는 정부들의 권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정의 정도든 줄어든다. 만약 정부들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파괴적인 불안정의 가능성은 더 작아지지, 더 커지지 않는다. 무력을 통해, 정당성 없는 정부가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진정한 대안들은 주기적, 평화적 선거냐 아니면 가끔 일어나는 유형 혁명이냐이다. 자유 사회들에서는 선거들이 선호되는데, 이것들은 강제와 폭력을 제한하고 변화와 진보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만약 선거들이 정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일정 조건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당들에 관한 진정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찬성 투표해야 하는 오직 한 명의 후보만 있다면, 그것은 자유 선거가 아니다. 자유 사회에서는 항상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다음에는 상이한 후보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후보들과 정당들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보복

의 두려움 없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에 찬성 투표할 수 있어야—하고, 그래서 투표는 비밀이어야—한다. 약간의 국가들은 부유한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유리해지지 않도록 선거 운동 자금에 제한을 둔다. 많은 국가들은 집권 정부가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보다 선거들 사이에 고정된 기간을 부과한다.

공공 의사 결정

대부분의 비자유 국가들의 정부들은 강압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 비록 많은 정부들이—예를 들면, 종교적 혹은 문화적 유산의 유일한 관리인으로 시작함으로써—정당성의 외관을 얻는 방법들을 찾았지만, 약간의 정부들은 강압을 통해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 사회에서는 정부는 오직 매우 한정된 목적들을 위해서만 그리고 대중의 동의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들은 종종 피해를 막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집합적으로 한다는 자기들을 목적들을 한참 벗어난다. 예를 들면, 그들은 종종 공공재의 전달을 독점화한다. 무슨 공공재들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들이 집합적이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여전히 민간 기관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선 단체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공해의 결과와 같은 것—를 막는다는 면에서, 끼쳐진 피해의 정도는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정부 개입은 사실상 완전히 정당화되지 않을

지 모른다.

만약 어떤 결정들이 집합적으로 내려져야 한다면, 그런 결정들은 어떤 규칙들에 따라 내려져야 할까? 이상은 만장일치일 것이다. 누구나 다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취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합적 행동에 찬성 투표하지 않을 것 같으므로, 어떤 개인들이나 집단들도 집합적 결정들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우선, 모든 사람이 모든 제안을 연구하고 투표하기 위해 짬을 내는 것은 매우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일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신 대표자들을 선출한다. 그리고 적어도 전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한 고생일 것인데,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전체 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합적 결정들은—보통 선거, 국민 투표 혹은 의회에서의 선거의 어느 쪽을 통해서 내려지건—일반적으로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단순(50퍼센트 + 1) 과반수결이거나 가중(말하자면 2/3) 다수결일지 모른다. 그것은 결정을 내리는 곤란을 줄이면서, 여전히 결정들이 소규모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 더 큰 부분의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⁴

4 이것과 아래의 논점들의 더욱 자세한 요약에 대해서는, Eamonn Butler, *Public Choice—A Primer*,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2012를 보라.

투표자들의 자기 이익

가요 대회에서 결승전 진출 가수들을 심사해 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두 번째 가수가 더 못할 리 없다는 근거에서, 상을 두 번째 가수에게 준 로마 황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가 생산하는 것에 우리가 불만족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 행동이 사정을 개선함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시장이, 예를 들어, 국방이나 복지 같은 공공재들을 전달하지 못하면, 대신 정부가 그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만약 어느 공장이 대기를 오염시키면, 그것을 멈추는 데 정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시장들은 가끔씩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들에서조차도, 정부들은 객관적이고, 측정이 되며, 공정하고, 공공심이 투철한 힘들이 아니다. 자기 이익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정부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사람들은 선거를 ‘공익(public interest)’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상상한다. 그러나 자유 사회에서는 많은 상이한 이익들이 있고 그런 이익들이 갈등한다. 더 낮은 세금을 원하는 투표자들은 더 많은 공공 지출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하지 못한다. 새로운 하이웨이로부터 편익을 얻을 사람들은 자기 집

들이 파괴될 사람들과 대립한다. 선거들은 ‘유일한(the)’ 공익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많은 경쟁하는 이익들의 균형을 잡을 뿐이다. 집합적 결정들은 이렇게 갈등에 기초해서 내려진다.

정치가들의 자기 이익

증진할 자기 자신의 이익을 투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치가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관직을 부자가 되거나 자기의 적들을 정말 쓰러뜨릴 방법으로 간주한다. 만약 그들이 관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지어 약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에서조차도 부패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설사 정치가들이 정말로 공중에 봉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선은 집권해야 한다. 그들은 선출되기 위해서 충분한 표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따라서 그들이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소규모의 대표적이지 않은 소수파들에 호소함으로써 더 많은 표들을 얻을지 모른다.

강력한 이익을 가진 소규모 집단들이 정치 과정을 지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자기들 자신의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유리한 정책을 제 자리에 뒹으로써 얻을 특정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고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조직하기가 쉽고, 선거 운동과 로비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 같다. 그러

나 덜 특정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나 납세자들 같은, 훨씬 더 광범위한 집단들은 조직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덜 동기화되는데, 왜냐하면 산업 보조금과 같은 정책들의 비용이 이들 모두 사이에 얇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연합과 로그롤링

소수와 시각들의 지배는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의 투표 영향력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이익 집단들과 협정을 맺을 때 더욱더 커진다. 모두 어느 후보를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여러 집단들의 연합은 어떤 집단이든 홀로보다 그 후보에 대해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

특수 이익들에 대한 동일한 연합이 입법부에서도 일어난다. 공공 지출 사업을 자기 자신의 지역구에 필사적으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정치가는 다른 사업들을 자기들의 지역구들에 필사적으로 가져오기 원하는 다른 정치가들과 표를 거래할지 모른다. 이러한 ‘당신이나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면 나도 당신의 법안에 찬성 투표해 주겠다,’는 협정들—로그롤링(logrolling)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의 결과는 그러한 제안들이 더 많이 성공한다는 것과 정부가 어느 누구든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률들이 정말 실시될 때, 자기 이익이 더 많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것들을 집행하도록 위임받은 관리들은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지위와 보수는 부분적으로는 큰 직원을 가지는 것에 달려 있는데, 그들은 그 더 큰 직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관료적 과정을—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모르며, 이것은 제국 건설(empire building) 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일반 대중보다도 소규모 이익 집단들로부터 더 많은 로비 활동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특수 이익들에 더 많이 응할지도 모르며, 아마도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뇌물도 받을 것이다.

규칙의 설정

요약하자면, 정부를 선택하고, 법률을 만들며, 법률을 집행할 때, 집중된 이익을 가진 소수파는 더욱 분산된 견해를 가진 다수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치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은 대중의 넓은 견해를 반영하는 데 매우 서투르다. 그리고 정부 부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참 넘어서, 이치에 맞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자유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한참 넘어서—참으로, 자유가 실제로 침식되는 지점까지—성장하는 고유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은 그런 문제들을 제한하려고 다양한 규칙들을 채택한다. 선거는 이것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선거는 정치가들과 관리들에 대한 약한 억제다. 선거는 드물게 오고, 종종 더 큰 정당들에 의해 지배되어, 변화를 느리게 한다. 더 강한 억제가 필요하다.

헌법적 합의

정치 과정을 억제하는 흔한 방식은 모든 사람이나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 합의되는, 그리고 선거들이 치러지고 정치적 결정들이 내려지는 규칙들을 나열하는, 헌법(constitution)을 채택하는 것이다. 만약 규칙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한다면, 정부가—예를 들면, 야당 후보들의 출마를 금지하거나 야당 유권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자기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설계한 규칙들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치적 과정은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에 의해 더욱 억제될 수 있다. 그 생각은, 한 사람이나 단일 기관이 모든 법률 제정 권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그 권한을 상이한 기관들 사이에 분할하고 그 각각은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봉쇄하거나 수정하거나 억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것은 때때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제도라고 불린다.

만약 정치국이나 입법 평의회와 같은 단일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정치적 다수파와 파벌적 집단 이익은 확실히 자기들 자신의 편익을 위해 권력을 쥐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헌법이 권력을 정부의 두 상이한 원(院)들 사이에 나눈다면, 그것은 권력을 이익 집단들이 쥐기 더 어렵게 한다. 만약 그 원들이 상이한 방식들로 선출된다면 동일한 집단 이익이 양원을 지배하기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둘 중 어느 하나의 원이 다른 원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봉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로그롤링과 소수파의 착취를

더욱더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제도에서 하나의 최후 수단으로서,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의 많은 헌법들은 또한 대통령을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임명하기도 하는데, 그는 (희망하건대) 정치적 싸움을 초월해서 소수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착취를 막는 또 다른 최후 수단은 독립적인 사법부(independent judiciary)이다. 이것은 자유 사회에 필수적이다.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제휴되어서는 안 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들과 소수파의 착취를 무효로 할 수 있어야—그리고 정치가들에 의한 보복의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한다.

헌법들은 때때로—정부의 예산들이 어떤 고정된 기간(말하자면, 3년에서 5년)에 걸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리고 연간 차입과 공공 채무 총액에 대해 *예산 한계(budget limits)*를 설정하면서—*균형 예산(balanced budgets)*과 같은 다른 억제들을 정부 활동들에 부과한다. 어떤 헌법들은, 정부의 고유한 성장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심지어 정부가 쓸 수 있는 국민 소득의 비율을 제한한다. 덧붙여서 정치가들이 수년간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기 제한(term limits)*과 정부 기관들이 그것들의 유용성보다 더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s)*이 있을지 모른다.

가중 다수결

소수파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식은 *가중 다수결 투표(qualified*

majority voting)를 통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만약 통치 당국이 입법부에서 단순 과반수 투표로 헌법적 규칙들을 바꿀 수 있다면, 자유는 매우 불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 사회는—양원에서 2/3 투표 더하기 국민 투표에서나 개별 지역들 혹은 주들에서 똑같이 높은 격차와 같은—훨씬 더 높은 장벽들을 설치한다.

매우 유해한 방식으로 소수파를 착취하는 것이 쉬운 쟁점들에 관해서는, 결정들은 매우 높은 다수결들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들에 매우 큰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설계하기 쉽다. 그러므로 자유 사회의 몇몇 옹호자들은, 설사 다수파가 압도적인 다수파더라도, 소수파가 보호되도록 조세 규칙들이—세율이 아니라 누가 무슨 조세를 납부하는가—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포로로 잡힌 공중

시장 경제에서는, 만약 상인이 당신을 속이고 있거나 당신에게 돈에 비해 모자라는 가치를 주고 있다고 당신이 느끼면, 당신은 당신의 거래를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정부가 당신을 속이고 있거나 착취하고 있다면, 갈 다른 곳이 없다. 당신은 아마도 국가를 떠날지 모른다—그러나 언어와 기타 장벽들이 전제될 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강제 의 비결이다—이것은 정부의, 그리고 그것의 모든 부분의, 역할과 행동들이 면밀하게 규정되고 주민의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한다.

4 평등과 불평등

자유 사회에서의 평등

많은 사람들은 자유 사회들이 아주 불평등함에 틀림없다고 상상한다. 결국, 자유 사회들은 사람들이 큰 부를 추구하고 축적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것은 큰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함에 틀림없다(그 주장은 이어진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자유 국가들과 비자유 국가들 사이의 소득 차이는 아주 거의 같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사회들은 약간 더 평등하다.

더군다나, 비자유 사회들은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비재정적인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자유 사회의 각 국민은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하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될 상업 활동들에 종사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소득을 증가시키기를 열망할 수 있다. 비자유 사회들에서는 이것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부 직업들은 다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나 통치자들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을지 모른다. 법이나 편견은 여자들, 인종적 소수파들 혹은 기타 집단들이 일정 직업들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지 모른다. 특정 인종이나 카스트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일로

제한될지 모른다. 이민자들은 기업을 설립하고 소유하는 것이나 심지어 은행 계좌를 가지는 것도 금지될지 모른다.

심지어는 일자리를 정말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평등은 지속된다. 예를 들면, 소련 모스크바에서는, 붉은 광장에 있는 상류 계급 전용의 굼 백화점(GUM department store)은 단지 경화 여행객들과 상급 당 관리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었다. 오직 후자만 질(Zil· 옛 소련제 요인용 고급차—오킴이 주) 리무진으로 운반되고—그들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통이 멈추었다—삼림 지대의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휴양 시설(health spa)에서 한 달 간 휴가를 즐기기를 열망할 수 있었다. 아파트와 러시아 시골 저택(dacha)은 당국에 의해 할당되었는데, 당국은 자기 친구들에게 더 좋은 집들로 호의를 보여주었다.

이것들은 모두 벗어날 길이 없는 불평등들이다. 그것들을 겪는 사람들은 심지어 법의 변경에 찬성 투표하거나 지지 선거 운동할 권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적어도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부와 소득을 얻기를 열망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성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평등의 종류

자유 사회에서 평등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나 소득이나 생활수준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 받는다.

룩(treated)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네 가지 중요한 방식들로 나타난다.¹ 자유 사회의 국민들은 *도덕적 평등(moral equality)*을 가지고 있다. 그들 각각은 자신을 위해 선택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받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법 앞의 평등(equality before the law)*이 있다. 법은 그들의 인종, 종교, 성, 부 혹은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우한다. 그들은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을 가지고 있다. 그들 모두는 투표하고 정치적 관직에 후보자로서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가지고 있다. 일이나 학교 교육이나 어떤 다른 개인적 향상에의 통로에도 자의적인 장벽들이 없다.

도덕적 평등

자유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배려와 존중을 받을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 모두는 자기들 자신의 생활에 관해 선택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렇다.

이런 견해는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바로 그 본질,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본질에 관한 깊은 믿음에 근거해 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종, 종교 혹은 성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

1 이러한 점들의 훌륭한 개설은 Nigel Ashford의 *Principles for a Free Society*, Jarl Hjalmarson Foundation, Stockholm, 200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우리의 권리를 다른 사람들이 존중 해주기를 원한다. 자유 사회에서의 규칙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들에서 똑같이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훔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사회적 혹은 성적 관습을 모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들의 범법이나 비도덕성은 그들을 그들의 위반에 비례하는 처벌이나 비난에 개방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잔인함과 굴욕에 개방하지는 않는다.

법 앞의 평등

자유 사회에서 법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처벌한다.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부, 연줄, 카스트, 성, 종교 혹은 인종과 같이, 범죄와 관계없는 어떤 개인적 특성 때문에 경찰, 법원 혹은 감옥에 의해 다른 대우를 받지 않는다. 국민들은 당국이 자기들을 싫어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자의적인 체포나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피해를 입거나 금품을 빼앗기면 사법부에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구건 그리고 자기가 고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분이 높건 상관없이 그렇다.

세계의 법원 건물들 위의 조상(彫像)에는, 정의의 상(像)이 보통 한 손에는 저울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 것으로 조각

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상이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 사회에서는, 정의는 각 경우의 관련 사실들을 제외한 모든 것에 눈이 어둡다는 점이다.

정치적 평등

사람들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본질로부터 생기는 다른 형태의 평등은 정치적 평등이다. 모든 사람의 이익과 견해는 고려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자유 사회의 모든 사람은 선거나 국민 투표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한 표를 넘는 표를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 후보에 의해 그리고 선출되는 정치가에 의해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매우 한정된 예외들이 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데, 자기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통치되어야 할지에 관해 숙고된 의견을 표현할 만큼 충분히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믿어서다. 비슷하게,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또한 투표로부터 배제될지 모른다. 그러나 지배 엘리트들이 이런 근거에서 자기들의 반대자들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무자격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들이 갈린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투표권을 잃는데,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에서다. 다른 나라들

에서는, 오직 가장 중대한 범죄들로 투옥된 사람들만 배제된다.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범죄자들도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본질 덕분에 투표할 자격을 완전히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정치적 평등의 원리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투표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기야 심지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들에서도 이 권리가 인정된 것은 1세기에 지나지 않지만. 뉴질랜드가 첫 번째였는데, 1893년에 성인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02년에 그렇게 하였는데, 하기야 원주민 여자들의 투표의 제한은 1962년까지 계속되긴 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였는데, 하기야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1944년만큼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1971년만큼 늦긴 했다.

투표권에 대한 어떠한 예외들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비자유 국가들의 당국이 자기들의 적들을 급히 감옥에 보냄으로써 혹은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함으로써 혹은 아주 다양한 다른 구실들로 자기들의 적들에게 투표권을 거부하기는 너무 쉽다. 그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실행할 수 있는 한, 각자의 표는 또한 평등한 가치를 가지기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표자들이 선출되는 각 선거구에는 대충 동일한 수의 유권자들이 있어야 한다. 더 큰 선거구는 각 투표자가 결과에 발언권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상이한 크기의 선거구들을 가지는 유일한 구실은 공공연한 지리의 현실이다. 선거구 경계들은 그것들이 지배 집단들에 이롭도록 왜곡될 수 없게 독

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투표권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관직에 후보자로서 출마하고 관직을 보유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성, 인종 혹은 종교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의석은 입법부에 없다. 선거 제도는 이러한 평등을 보호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누구든—특히 지배하는 정치 당국에 의해—위협받거나 협박받을 두려움 없이 관직에 후보자로서 출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고 자기들의 견해들을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정말 법률들과 헌법에 대한 자기들의 비판들을 말하고 출판하고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들은 사상들의 경쟁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사상들과 자유 언론이 억압된다면 자유선거가 있을 리 없다. 어떤 비자유 국가들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범죄다.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에서는 그러한 비판은 매일의 정치적 논쟁의 완전히 정상적인 부분이다.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개인들이 교육, 일, 혹은 어떤 다른 생활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데 인위적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들의 인종은 그들을 학교나 스포츠 팀에 적(籍)을 두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치나 그들의 성은 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들의 빈곤이나 사회 계급도 그들이 상이한 생활 상태의 어떤 사람과 결혼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나 고용주나 그 밖의 누구든지 그들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누구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교는 학교 입학 시험 합격자들로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고 고용주는 추천서와 경험을 요구할지 모른다. 어떤 남자가 자기를 원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자유로운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해야 할 필요는 없다. 기회의 평등은 다만 누구도 방해하도록 놓인 장애물이 없다는 것과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도록 그들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예를 들면, 중매결혼은 약간의 문화들에서 보편적이고 자유 사회에서는 양 파트너가 동의한다면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결혼하도록 강제될 수 없는데, 설사 그들의 부모들이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자유 사회에서는, 결혼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든 누군가는 스스로 선택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여겨진다. 어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만약 어느 한 쪽 파트너든 결혼이 강제된다면 결혼은 무효이다.

비록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선택에서 사회적 장벽에 직면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자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작곡가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될 것 같지 않다(비록 생애 후기에 베토벤은 그것을 어떻게든 해냈지만). 다리가 없는 사람은 산을 오를 것을 열망할 수 없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들의 가족 환경에 따라 인생 출발이 다르다. 한 쪽의 부모들은 그들에게 책을 사주고 그들에게 학교 숙제를 도와줄지 모르지만, 다른

쪽의 부모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지 모른다.

비록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을 다르게 하더라도, 학교들은 그들이 성인기에 도달하고 노동 인구에 들어갈 때까지는 동일한 위치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서양에서 약간의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에 따라, 학교들은 막대한 자원들을 보습 교육에 집중하고, 가장 똑똑한 아이들의 능력을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까지 발휘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끌어내려 다른 학생들과 수준을 맞춘다(level down).’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타고난 차이를 보충할 수 없—고, 사회적 차이를 보충하는 유일한 길은 국가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떼어내어 그들을 똑같이 키우는 악몽과 같은 전망일 것이다.

질문: 가난한 사람들은 리무진을 사는 데 자유롭지 않지?

아니다. 자유롭다. 자유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사치재를 사는 데 *자유로운데(free)*, 하기야 오직 소수만 사치재를 살 *경제적 여유가 있긴(afford)* 하다. 그것은 힘의 문제지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큰 자동차를 살 *구매력(purchasing power)*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당국도 그들이 그것을 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누구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저축함으로써 혹은 심지어 돈을 빌림으로써 사치품을 소유하기를 열망할 수 있다.

세계의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로운 사회들에서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도 그저 몇 십 년 전만 해도 사치품이었던 가정 난방, 전등, 전력 그리고 수도물과 같은 것들을 지금은 즐긴다는 점도 또한 기억하라. 이와 대조적으로, 비자유 사회들에서는, 사람들은 당국이 자기들에게 더 큰 집이나 더욱 기름진 농장 소구획지 같은 것들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을 열망조차 할 수 없다.

긍정적 차별

어떤 나라들은,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타고난 차이를 보충하고 편견을 깨뜨리려고 하였다. 이것은 일정 기회들이 자기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는 소수파들—예를 들면, 일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는 똑똑하나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이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것만을 포함할지 모른다. 그러한 봉사 활동과 격려는 이의의 여지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저 이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 대안들을 증가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적 차별은 또한 소수파 집단들에 편애를 부여하는 것—말하자면, 학교와 고용주가 소수파 지원자들의 더 큰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와 고용주에게 할당을 부과하는 것—의 형태를 취할지도 모른다. 어느 지점까지는, 이것이 작동할지 모른다. 아마도,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긍정적 차별은

흑인들이 학교와 일터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백인 편견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차별은 자유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이 편견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므로 자유를 촉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특정 집단들을 똑같이 대우하기보다 그들을 편애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수파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을 보상한다는 근거에서 편애와 할당을 찬성한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과거에 피해를 받았던 동일한 소수파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진 불의를 바로잡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동일한 학교 혹은 직업 기회를 갖기 위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다수파에게는 당연히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수파는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 여겨지게 될지 모르고, 정책과 그것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소수파에 대해 분개의 반격이나 심지어 폭력이 일어날지 모른다.

부정적 차별

물론, 차별은 반드시 소수파를 도우려는 생각은 아니다. 훨씬 더 자주, 차별은 다수파가 소수파 집단들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권리, 특권 그리고 편애를 자신들에게 주도록 의결하는 문제다.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가 두 개의 명백한 예지만, 세계는 범이 오로

지 소수파 주민들의 인종, 종교, 언어, 성적 지향 혹은 정치적 견해에 근거하여 소수파 주민들을 차별하는 실례들로 가득하다.

다시, 그러한 차별은 자유 사회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자유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집단도 자신에게 특권을 주도록 의결할 수 없다. 너무나 자주, 이러한 종류의 차별은 상황에 떠밀려 소수파 주민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게 되었다. 다수파가 누리는 권리들을 빼앗기므로, 소수파는 자신들을 향상시킬 방법이 없다. 그들은 하층 계급으로서, 심지어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서도,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성이 빼앗길 때, 그들이 겪을지 모르는 모욕과 학대에는 한계가 없다.

결과의 평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도덕적 평등, 법 앞의 평등, 정치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의 원리들 아래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 소득 그리고 생활수준과 같은 *물질적 보상들(material rewards)*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보상들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 어떤 형태의 *재분배(redistribution)*를 할 것을 옹호한다.

소득 불평등 통계

결과의 평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코라도 지니(Corrado Gini)의 이름을 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라 불리는 통계를 인용한다. 그것은 소득과 같은 측정치들에서의 불평등의 지수이다. 0의 지니 계수는 완전한 평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의 지니 계수는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세계은행과 미국 중앙정보국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은 상이한 국가들의 지니 계수들을 측정해서 그것들의 불평등의 면에서 그것들을 서열화하려고 한다. 그러한 서열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대략 0.25부터 0.5에 걸치는 계수들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평등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장 큰 불평등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보이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략 0.7의 계수로 수위를 차지한다.

우리는 그러한 계산들에 여전히 비관적이어야 하고, 높은 계수 국가들에서의 소득이 강제로 같아져야 한다는 제안에 관해 더욱더 고려해야 한다. 우선, 소득에 관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어서, 지니 계수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측정치로 만든다(이것은 그것을 계산하는 상이한 기관들이 상이한 수치들을 산출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둘째, 큰 소득 차이들은 실제로 긍정적인 사회적 추세를 반영할지 모른다. 그것들은, 아직 시골에 도달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성장이나 도시의 변영의 증대를 암시할지 모른다. 도시 IT 근로자들의 소득을 겨우 연명하는 농부들의 그것으로 줄임으로써 이러한 변영의 증대를 질식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현재 더 가난한 사람

들이 이러한 번영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과 같은)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번영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통제에 대한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조세와 그들이 받는 정부 편익(복지, 연금, 무료 보건 의료 등등)을 무시하고, ‘원(原·raw)’소득들을 비교한다는 점이다. 영국으로부터 조금 다른 종류의 측정치를 인용하면, 소득자들의 상위 10퍼센트의 원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의 약 30배이고, 이것은 막대한 불평등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금들을 납부하고 자기들의 다양한 정부 편익들을 받은 후에는 그 배수는 훨씬 더 근소한 6이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전히 첫 번째 수치를 인용하지만, 이것은 사기(詐欺)의 통계 사용이다.

소득의 불평등인가 부의 불평등인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 참여로부터 평등한 보상을 누려야 한다는 사상은 *평등주의(egalitarianism)*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꼬집어 말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것 자신의 모순 때문에, 어려울지 모른다.

평등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소득의 평등을 원하는지—아니면 부의 평등을 원하는지—에 관해 애매모호할지 모른다. 만약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큰 부 차이가 거의 확실히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은

자기의 소득을 현명하게 저축하고 투자하여 자본과 부를 축적할지 모르지만, 동일한 소득을 가진 다른 사람은 그것을 도박으로 날리거나 그것을 즉흥적 만족에 써버릴지 모른다. 오래지 않아, 그들의 부는 아주 다르게 될 것이다.

또한, 만약 모든 직업들의 보수가 똑같다면, 쉽고 즐거운 일들에 대한 막대한 초과 수요와 어렵고 불쾌한 일들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의 막대한 부족이 있을 것이다. 만약 자기가 자기의 게으른 동료들과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면 누구든 왜 열심히 일하려고 애쓸까?

또한 일에는 물질적 소득 이상이 있다. 경제학자들이 *심리적 소득*(psychological income)이라고 부르는 것—예를 들면, 마음에 맞는 직장 동료들을 가진다든지, 국가의 멋진 지역에서나 편리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잘 제공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특질들은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큰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갈아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반면에, 만약 부가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평등주의자들이 의미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술이나 재능에 따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수요에 따라, 여전히 소득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들은 저축하고 자기들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비하고 그것을 줄인다면, 그들의 부는 곧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기 있는 1950년대 영국 라디오 퀴즈 쇼, *해브 어 고*(Have a Go)의 사회자, 윌프리드 피클스(Wilfred Pickles)는 출전자들에게 자신들과 자기들의 야망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하곤 했다. 한 출전자는 ‘나의 야망은 세계

의 모든 돈을 받아 그것을 모든 사람 사이에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자선적인 생각에 큰 박수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출전자들은 ‘그리고 내가 내 몫을 다 써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효과를 망쳐놓았다.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부를 같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소득이든 부든 평등한 결과는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기도 하다. 소득과 부의 어느 쪽이든 같게 만들고 그것들을 같게 유지하는 데는 자유와 재산에 대한 막대한 공격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부를 빼앗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그리고 사물들을 거의 같게 유지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어떤 부는 분해해서 재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잡하고 기능하며 부를 생산하는 공장은 자신의 구성 부분 벽돌들과 기계 부품들로 분해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돈을 재분배하기 위해 그것을 팔아치울 수도 없을 것이다—평등한 부의 세계에서는, 어떤 개인도 그것을 살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재분배 정책들은 강제적이고 대단히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노동의 과실을 주는 것을 거절할 것이며, 일하고 저축할 모든 유인들을 침식할 것이다. 그것들은 부를 그저 재분배하기만 하기보다 부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행하는 데 거대한 정치적 권력—자유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권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재분배의 역학

다른 문제는 정확하게 누가 재분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부유한 국가들의 평등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제안을 자기들 자신의 국가의 주민들이나 기껏해야 비슷한 국가들의 집단의 주민들에게로 국한한다. 그 이유는 소득이나 부를 세계의 나머지 지역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은 (설사 그것이 실행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유한 국가들의 사람들에 대해 생활수준의 막대한 하락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화롭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 정책이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의 평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평등 비전을 가지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부를 나누는 것은 자기들 빈곤에 빠진 주민들에게 막대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꿈인데, 더 부유한 국가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배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속적인 부를 확보해 주지도 못할 것이다. 부는 ‘영합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이 더 가난해져야만 한 사람이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고정된 부의 풀(pool)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는 혁신, 기업심, 거래 그리고 자본 형성을 통해 **창조된다(created)**.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산적인 자본을 파괴하는 것은 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 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더 나은 정책은 더 가난한 국가들의 국민들이 자기들 자신의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게 하는 전

쟁과 도둑질 같은 반(反)유인들과 씨름하는 것이다.

무엇이 재분배될 것이고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재분배될 것인가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은 재분배 정책이 무슨 모습일지에 관해 결코 어떠한 의견 일치도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한다. 그렇지만 재분배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의견 일치가 없으면, 그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요에 의해서다.

물질적 평등에 대한 굴복의 강요는 어떤 사람이든 더 나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의미를 완전히 죽일 것이다. 당신이 혁신, 기업심 혹은 고된 일을 통해 달성한 어떤 물질적 편익이든 빼앗길 것이므로, 누가 왜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할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큰 인간성에 대한 손실이 있다. 기업심은 창조적이다.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제품, 과정 그리고 기술을 생각해 낸다. 그런 기업심과 창조성을 질식시킴으로써, 평등주의는 전 세계의 물질적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전망을 차단해버린다.

평등과 정의

정의의 두 가지 의미

부나 소득의 재분배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이—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실로 가

장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할지 모른다는 것이—‘부당하다(unjust)’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는 사람들의 부가 반드시 그들의 ‘사회에 대한 가치(value to society)’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좋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우리 각각을 위한 어떤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정의(justice)’라는 단어를 납치해서 그것에 완전히 다른 의미, 평등이나 공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정의의 본래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행위를 기대하는가와 관련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훔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부당하게 행동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무해 원칙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의 법적 및 도덕적 규칙들 아래에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라고 불리는 이러한 의미의 정의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이 고의로 행동하는 곳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행성 독감에 걸리거나 신체적 장애를 겪는다면, 그것은 불운이지만, 아무도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지 않다.

때때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고 불리는 ‘정의(justice)’라는 단어의 두 번째 사용은 개인들 사이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물건들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 사회에서는, 발생하는 부나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이 법적 및 도덕적 규칙들을 따르는 그저 자발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

(outcome)일 뿐이다. 그것은 ‘부당할(unjust)’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부당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특별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생활의 사실일 뿐이다.²

‘사회에 대한 가치’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라는 용어의 사용은 사회가 부와 소득의 유형을 결정하는 일종의 사람이라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사회(society)’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개인들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들은 사회 및 경제 정책의 문제들에 관해 강하게 의견이 다르다. ‘사회적 정의’의 개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하나의 이유는 그 정확한 결과가 무엇이어서 할지에 관해 그것이 극히 애매모호하다는 점과 이러한 의견 불일치들을 용케 숨긴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정당한’ 보상 분배가 무슨 모습일지 우리가 살을 붙이려고 할 때, 그것에 관해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명백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한* 소득 평등이 올바른 표적이 아님에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게으르기로 혹은 험방 농기로 선택하건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시각은 완전한 평등 대신

2 이것과 아래의 의견들은 F. A. Hayek,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1978에 잘 개진되고 있다.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가치’에 따라 보상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 누가 사람의 ‘사회에 대한 가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가? 사회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에 ‘가치(value)’를 돌릴 수 없다. 오직 *개인들*만이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들은 몹시 상이하며 참으로 종종 갈등을 일으킨다. 한 집단의 사람들은 권투 선수의 흥행을 중요시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의 진가를 인정할지 모른다. 어느 것이 더 큰 ‘사회에 대한 가치’를 전달할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상이한 사람들의 즐거움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간호사, 푸줏간 주인, 탄광 광부, 판사, 심해 잠수부, 세금 사정관, 생명을 구하는 약의 발명가 혹은 수학 교수의 ‘사회에 대한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을까?

진가에 따른 분배

평등주의자들로부터의 또 하나의 제안은 보상이 ‘진가(merit)’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상이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진가’와 그것이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공정한 방법이 없다. 상이한 사람들은 상이한 자질들이 우연히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지에 관해 매우 상이한 시각들을 취할지 모른다.

심지어 그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진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하

는 실제적인 쟁점들이 있다. 수년의 노고를 투자하지만 실패하는 어떤 사람의 ‘진가’는 보상받아야 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가져다주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운 좋은 사건의 결과였기 때문에 별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과실 없는 노고를 장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 진보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의 가치를 올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희생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개인적 희생에 대해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은 그저 희생을 장려할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제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시장 보상들은 생산자들의 도덕적 및 개인적 진가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의 재화와 서비스들을 시장에 가져오는 데 쓰는 시간과 노력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들의 제품들이 수년의 노고와 투자를 필요로 했는지 혹은 운 좋은 사건의 결과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시장 보상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즐거움과 가치를 정말 반영한다. 고객들은 생산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왜냐하면 고객들이 그런 제품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매우 진정한 의미에서, 시장 보상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회 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가치에 정말 달려 있다. 그것들은 또한 생산자들의 부족과 재능, 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 그리고 구매자들이 그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착하는 긴급성이나 중요성도 반영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

다른 평등주의 제안은 자원들이 ‘필요(need)’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필요’가 무엇인지 누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가? 생활이 딱한 사람들과 생활이 딱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명백한 경계선은 없다. 사람들의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들은 상이한 부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크게 변동할지 모른다. 그들은 또한 더 좋거나 더 불결한 지역에 살고, 상이한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며, 상이한 근무처들에서 상이한 사람들과 일하기도 한다. 친절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비재정적인 편익들은 수치를 부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활이 딱한지(needy)’ 아닌지는 판단의 문제이고, 상이한 사람들은 그것을 상이하게 평가할 것이다. 필요에 근거한 재분배는 오직 어떤 정치 당국에게 ‘필요’를 결정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할 권력을 줄 때에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 사회의 국민들은 어떠한 당국에도 그러한 권력을 주기로 결코 동의할 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활에 대한 완전한 권력일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국민들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그 당국의 노예들일 것이다.

또한 필요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obligation)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신부전(腎不畵)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신장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

의 신장 하나를 기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친척들은 기증할 도덕적 및 가족적 의무감을 느낄지 모르고, 심지어 낮은 사람들도 동정심에 의해 마음이 움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선택이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장려하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자유 사회는 개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희생하라고 강제할(compel) 수 없다.

자유 경제는, 어떤 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가 생산하는 상이한 재화와 서비스들에 대해 구매자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을 통해서 물건들을 분배한다. 예를 들면, 만약 사람들이 양식 물고기보다 자연산 물고기를, 혹은 샌드보다 구두를, 더 좋아한다면, 생산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 자유 경제는 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기들의 자선적 선물에서 표현하는 가치들을 통해서도 자원들을 분배한다. 그러한 결정들은 개인들에게 맡겨져 있다. 무슨 대의들이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오직 국가만이 알 수 있다는 생각은 자유 사회에서는 거부된다.

평등주의의 추가적 피해

평등주의가 ‘사회적 정의’에 집중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유해한 결과는 진정한 교환적 정의의 개념과 현실을 무색하게 한다는 점이다. 자유 사회를 만드는—법 앞의 평등과 같은—기본 원칙들이 새로운 용어에 의해 모호하게 되고 평가 절하된다. 재분배를 가지고는, 대우의 평등이 있을 리 없다.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대

신에, 우리는 각 기부자로부터 상이한 금액을 받아서 각 수혜자에게 상이한 금액을 주어야 할 것이다.

물리적 욕망이 지속되다

진정한 정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적 정의’는 실제로 갈등을 초래한다. 일단 정부가 진가나 필요나 사회에 대한 가치에 근거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하면, 정부는, 모두 자기들의 보상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상이한 집단들의 로비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들 사이에 결정할 실질적인 방식이 없으므로, 이런 정치적 갈등은 자의적인 결정을 유발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난폭한 권력이 사물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자유 사회와 양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들은 자신들과 자기 가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제도를 우회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소련에서의 경험이었는데, 거기서는 아마도 주민의 과반수가 자기들의 생활수준을 낮게 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활동에 종사했을 것이다. 강요된 물질적 평등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법을 준수할 국민들을 그저 한 국가의 범죄자들로 전환시킬 뿐이다.

부자들의 역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또한 긍정적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어찌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강력한 유인이다.

그것은 그들이 더 나은 직업을 찾아내도록 자극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더 나은 제품을 발명하고, 생산하며, 분배하도록 자극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재화의 시운전자(試運轉者)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새로운 제품들은 사치품들로서 시장에 나뉜다—대중 시장을 확립하지 않았으므로, 그것들은 소량으로 높은 비용에 생산된다. 그래서 그것들은 더 부유한 사람들이 사서 시험해 본다. 그런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생산자들은 제품 수요의 수준과 제품이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과 방법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것으로 그들은 대규모 생산 조업에 맡기기 전에 결함이 있는 제품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대중 시장에 정말 나돌게 될 제품들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부유하고 선구적인 고객들의 경험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부와 고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중요한 사회적 역할들도 한다. 그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기를 실험할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을 확대하고 개선 과정을 함양한다. 그들은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믿는 예술, 교육 그리고 연구 사업들을 후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 관리들이 대단히 위협적이라고 간주할지 모르는 새로운 정치사상들을 전파함으로써 압제적 당국에 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만약 우리가 자유 사회를 보존하려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자본의 파괴

생산 자원들을 관리하는 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유능하지는 않다.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데 유능함에 틀림없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모험사업에서 이윤을 벌려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더 좋고 더 값싼 재화를 생산하도록 생산 자원들을 모으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분배는 자원들을 이 숙련된 전문가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흩뿌린다. 그것은 자본의 상실과 자본 창출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를 생산적이게 하는 것은 자본이다. 자본이 덜 창출되고 더 많은 자원들이 그저 소비되기만 한다면, 장기적인 사회 번영은 불가피하게 감소함에 틀림없다.

불평등은 또한 경제적 진보를 추진하기도 한다. 성공적인 생산자들이 버는 높은 이득은 자석으로서 작용하여, 사람들과 자원들을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고, 덜 생산적이고 덜 가치 있는 용도들에서 멀리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원들은 그것들이 미래 소득을 가장 많이 증가시킬 곳으로 끌린다. 그것은 계속적이고 동태적이며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불평등은, 사실상, 사람들과 자원들을 그것들이 가장 생산적인 용도들로 돌려서 어디에서나 번영을 증대시키는 바로 그 인력이다. 만약 우리가 평등을 추구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면, 우리는 그 인력을 봉쇄하고, 미래 가치, 산출물 그리고 그 산출물이 발생시킬 수 있는 성장을 잃는다. 그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승하는 경제에

의존하므로,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그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회적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과세와 복지

부나 소득의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한 목표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은,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들을 가지고, 그것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세금들은 대단히 유해할 수 있다. 기업심과 노력으로부터의 보상을 줄임으로써, 그것들은 이런 유용한 활동들—과 그것들이 창출하는 고용과 향상—을 억제한다.

더욱 나쁘게, 그러한 세금들이 종종 저축과 자본에 부과된다는 점이다. 저축에 대한 세금은 사람들에게 전 사회의 번영을 증대시킬 모험사업에 투자할 돈을 덜 남겨 놓는다. 자본에 대한 세금은 생산적인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자원이 덜 들어가서 전 공동체의 미래 번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 사회에서는, 상업과 교환은 순전히 자발적이다. 생산자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냄으로써만 돈을 번다.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도 빼앗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불의도 범하지 않는다. 우리는 강도가 자기들로부터 훔치는 것을 이것이 물질적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는 근거에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부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할까?

5 자유 기업과 무역

자유 시장 경제

자유 사회에서의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경제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재화와 서비스들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때때로 직접적으로지만 보통은 화폐를 수단으로—작동한다. 개인들은 자기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저축하고 거래할 여부, 방법, 때, 장소 그리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아무도 그러한 거래를 강제당하지 않는다.

협조를 촉진하는 규칙들

자유 시장 경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무법의 무제한 자유 경쟁이 아니다. 무해 원칙이 여전히 지배한다. 그리고 재산의 획득, 소유 및 교환, 자기들 자신의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 그리고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다루는 법의 틀이 있다. 이런 규칙들은 개인들의 행동뿐 아니라 조합, 회사 그리고 자선 단체와 같은 집단들도 다룬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규칙들을 유지하고 그들의 계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그 규칙들은 상업을 지도하기 위해 있지 않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있다. 그것들은 불을 담고 있는 쇠 바구니와 같다.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가 과도한 규칙과 규정으로 질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산, 교환 그리고 계약의 기본적인 규칙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건, 사람들이 신뢰, 자신 그리고 안전에 기초하여 상호 편익을 위해 협조할 수 있게 한다. 그 협조는 더 큰 경제적 협조를 장려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편익들을 늘린다.

자발적 교환의 편익

오직 판매자들만 상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상상하기 쉽다. 결국, 그들은 거래로부터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반면, 구매자는 더 적게 가지게 된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판매자들이 탐욕스럽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이윤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결국 돈의 의미는 무엇인가? 돈이 금과 은으로 이루어졌던 시절에는, 그것은 적어도 장신구와 장식품으로 변형할 수 있는 금속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종이와 비금속으로 만든 돈은 다른 용도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유용한 일은 그것을 다른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돈은 *교환 수단*(medium of exchange)이다. 구매자

는 그것을 주고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다. 그 다음 판매자는 그것을 주고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다. 양쪽 다 자신들이 그 거래로부터 더 나아졌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어느 것을 가치가 덜한 다른 것과 교환하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양쪽 다가 어떻게 결국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름다움처럼 가치도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게나 크기 같이 대상의 어떤 과학적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각 개인이 그 대상에 관해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한 잔의 물에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지 모른다. 새로운 의복 유행품은 10대들에게는 필수품일지 모르나, 그들의 부모들은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것은 인간들이 그들 각자가 교환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점에서 다르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시장 상인으로부터 닭 한 마리를 사는 고객은 그 닭을 얻기 위해 준 돈보다 그 닭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나 상인은 그 닭보다 돈을 더 중요시한다. 상인이 그 다음 다른 물건—이를테면, 빵—을 사는데 그 돈을 쓸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상인은 빵 굽는 사람이 빵의 대가로 요구하는 돈보다 빵을 더 중요시한다. 세 사람 모두 이

득을 얻었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가 이 거래들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다.

사실상, 그들이 닭, 돈 그리고 빵에 부여하는 가치에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들 각각은 그것들을 교환함으로써 더 많이 이득을 얻는다. 그들이 의견의 일치를 볼 필요가 있는 전부는 그들이 물건들을 거래하는 규칙들—자유 시장 경제의 틀을 형성하는 재산, 정칙 그리고 계약의 규칙들—이다. 그 점을 제외하고는, 각 거래에서 파트너들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환을 한다.

그렇지만 이런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각자는—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리는 것처럼—무심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비록 오직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서로 협조한다.

화폐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 각자는 이제 동일한 시장의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 문화와 정치를 우리가 심지어 비난할지도 모르는 국가들의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과도 거래—하고 협조—할 수 있다. 이러한 셀 수 없이 많은 일상 거래들에서, 각 측이 이득을 얻는다. 사람들이 협조한다. 가치가 창조된다. 인간들의 상태가 더 나아진다. 인류가 번영한다.

1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Book IV, ch. II, para. IX.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이득을 얻는다

이러한 자유 교환 체제는 아주 자연적이고 이로워서 그것은 모든 곳에 퍼졌다. 그것은 심지어 자유 시장들을 이데올로기 문제로서 거부하는 국가들에서도 불법적으로 존재하거나, 용인된다. 자기 국민들에게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들에서 자유를 별로 부여하지 않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자유를 허용한다.

참으로, 상업과 무역은 이슬람 세계의 초기 시대와 그것의 후속 확장에서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세계 통상로의 개방은 르네상스 유럽에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이것은 그 다음에는 예술, 문화 그리고 학문의 전성기를 낳았다. 남북 아메리카들은 자기들과 유럽의, 그리고 그 다음 중국과의, 무역 연결을 통해 번영했다.

그러나 인류 번영의 이 상승 조류로 가장 기운이 북돋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가 보급된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가장 많이 올랐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가정용 수도물(running water)은 로마 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대신 그것을 가져올 달리는 하인들(running servants)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² 로마 제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불결하게 살았다. 그러나 현대 로마의 가난

2 Milton Friedman and Rose Friedman, *Free to Choose*, Harcourt Brace Jovanovich, New York, 1980, p. 147.

한 사람들은 지금 뜨겁고 차가운 수돗물의 사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효과는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에서 최근의 국제 무역 개방과 시장 원리들의 보급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그저 30년만 지났는데, 아마도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 결과로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수백만 이상이 이제 중산 계층이 되고 이동 전화, 텔레비전 그리고 자동차 수송 기관과 같은 사치품들을 누릴 것—과 참으로 농촌에서 어떤 날씨에도 밖에서 일하기보다 시원하고, 건조하며, 안락한 사무실과 공장에서 일할 것—을 열망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법

생산자들은 고객들에 봉사해야 한다

자유 사회에서는, 고객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정부들이나 그들의 연고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독점 기업들과 같은 특정 생산자들로부터 사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제공자들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담합이 유효하도록 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든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들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른 제공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경쟁적인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생산자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을 착취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그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고객들이 원하는 품질을 가지고 매력적인 가격에 생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사업을 잃을 것이다. 개인들은 법인들의 권력에 포로로 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자들은 오직 대중의 수요 변화에 반응함으로써만이 생존한다.

회사가 클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경쟁에 직면한다. 대기업은 아마도 많은 상이한 제품들을 만들고 많은 상이한 사업들에 종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다른 큰 회사들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에만 직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 사업의 특정 부분들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많은 더 작은 회사들로부터의 경쟁에도 직면한다. 더 적은 간접비를 가진 더 작은 회사들은 큰 회사의 제품들의 약간을 더 낮거나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새롭고 혁신적인 회사들은 큰 회사의 제품들의 한 개 이상을 구식으로 만들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함에 따라 자본주의가 점점 더 큰 회사들에, 그리고 결국에는 독점 기업들에, 이르는 것은 미신이다. 규모는 또한 자신의 비용도 가지고 있다. 대규모 조직들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느리다. 이를테면, 50년 전의 어떤 서양 잡지든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 당시 광고하고 있던 회사들 중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별로 없다. 모두 작은 기업들로 시작했지만 더욱 혁신적이거나 비용-효과적이었던 경쟁자들은 그것들을 모두 따라잡았다.

질문: 경쟁, 이윤 그리고 광고는 낭비적이지 않은가?

아니다. 이윤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일을 해 내게 하고, 기회를 찾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아주 기꺼이 사기로 선택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한다. 이윤은 또한 공동체가 원(原)자원들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자원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광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품들에 관해서 그리고 기존 제품들의 개선점들에 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경쟁은 사람들에게 상이한 제품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급자들이 혁신하도록 그리고 더 낮은 비용에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경쟁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무력할 것이다. 그들은 독점 제공자가 황송하게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하거나 없이 견뎌야—할 것이다.

경제적 권력에 대한 지배력의 부존재

그래서 회사들에 의해서도,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경제적 권력에 대한 세대 간 지배력은 없다. 개인들은 자유 경제에서 부유해질 수 있지만, 오직 그들이 계속해서 대중에 봉사하고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한에서만 그렇다. 참으로, ‘삼대 넘는 부자 없다 (from shirt sleeves to shirt sleeves in three generations)’는 더욱 자유로운 사회들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은 회사들을 설립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지만, 그들의 손자들이 그 사업에

들어갈 때쯤이면, 다른 회사들이 그들을 이미 경쟁에서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엘리트들이 정치와 경제 양쪽 다의 권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이 그것을 계속 보유하도록 확보하는 곳보다 훨씬 더 공정한 체제다. 자유 경제에서는, 재능과 결단력을 가진 누구든—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봉사한다면—부를 축적할 것을 열망할 수 있다. 부유해질 기회는 집권자들의 친구들, 가족 혹은 정당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민족 집단이나 종교 집단의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참으로, 자유 사회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약간은 이민자들인데, 그들은 상이한 경험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사기를 열망하는 새로운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자기 친구들에게 호의를 나눠 줄 수 있는 힘센 정부가 있는 곳에서는, 실업기들은 자기들 자신을 위해 그것을 사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규제나, 심지어 완전한 독점도, 추구할지 모른다. 비록 그들은 그것이 수준 이하의 재화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진정한 동기는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자유 사회와 양립 불가능한 강제적 권력을 줄 것이다. 정부들은 시장들을 비뚤어지게 하고 독점 기업들을 창설하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은 자유와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

자유 경제에서 성공은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것—비록 그것이 종종 도움이 되지만—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기꺼이 사는 재화와 서비스들을 공급해야 한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제품들을 수요할지 추측하는 것—과 많은 다른 공급자들, 근로자들 그리고 유통업자들을 포함할지 모르는 생산 체인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과 책임들을 기꺼이 맡는 사람들은 비교적 별로 없다. 그러나 수요의 성공적인 예상과 생산 체제들, 망들 그리고 노력의 조직은 이런 기업가들(entrepreneurs)의 진정한 공헌이다. 그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는데, 만약 대중이 그들의 제품들을 정말 산다면, 그들은 잘 보상받는다.

그것은 다음에는 생산성과 혁신을 자극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자기들도 역시 과거 기업가들이 얻었던 부를 얻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새롭고 더 나은 제품들과 과정들을 창조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개선과 발명은 고객들을 이롭게 하고 그러므로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한다. 사람들의 노동력을 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발명들은 번영을 증대시키고 어떤 정부 복지 계획보다 훨씬 더 낮게 부를 보급한다.

고객들은 자기들이 단독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거나 생산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들로부터 편익을 얻는다. 예를 들면,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는 많은 연구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

다. 개인들은 필요한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제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전문 의약품 회사는 가지고 있다. 심지어 지방 약국들조차도 자기들이 재고로 가지고 있는 아마 500개 이상의 의약품들의 용도, 효능 그리고 부작용들에 관한 전문가 지식을 시간을 두고 늘릴 수 있다. 고객들은 그러한 전문가 지식을 도저히 얻을 수 없을 것—인데 만약 그들이 또한 음식, 음료, 의복, 구두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다른 것들에 관해 전문가가 되기라도 해야 한다면 확실히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기업가들은 부를 축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버는 돈은 오직 자기 고객들의 자발적인 지불로부터만 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과세하거나 그들을 착취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만 부유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대중에 계속해서 봉사하는 동안만 자기들의 부를 유지한다. 돈을 버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예상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충족되지 않은 제품 틈새시장을 찾고 있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고객들을 만족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이윤과 투기

그렇다면 이윤의 전망은—크고 작은—생산자들을 자극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하고, 조직하고, 일하게 한다.

자유 경제들의 많은 비판자들은 ‘이윤(profit)’의 개념을 헐뜯는다—그러나 사실상 우리 모두는 이윤 추구자이다. 우리는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들을 희생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깨끗하고 잘 정돈된 집을 가지기 위해 청소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쓴다. 우리는 청소하는 노력보다 청결한 집을 더 평가한다. 그 차이는 우리의 이윤이다. 그것은 재정적 이윤이 아니지만, 다른 면들에서 그것은 기업가가 보급품들을 사들여서 투입물들의 비용보다 더 많이 받고 팔리는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과 꼭 같다. 심지어 우리가 공동체 사업이나 자선 사업에 종사할—말하자면, 교육 위원회에서 봉사할—때조차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들을 위해 그것을 하는데, 설사 모든 지방 아이들이 잘 교육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이런 목적들일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것 역시 우리에게 (비재정적) 이윤이다. 그러나 비판자들이 알아차리고서 싫어하는 것 같은 것은 오직 재정적(financial) 이윤뿐이다.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투기(speculation)가 비판받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투기는 금융 시장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모두 투기자이다. 농부들은 판매할 수 있는 작물을 기를 것을 희망하고서 씨앗을 심는다. 우리를 더욱 고용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 다닌다. 이러한 것들은 투기적 모험사업이다.

금융 세계에서는, 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만약 보험 회사들과 보험 대리업자들이 배들의 안전한 항행에 투기하고 위험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들은 결코 항행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현대 생산은—공급 협정이나 공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계약과 같은—대규모 장기 계약에 달려 있다. 개별 생산자들은 전 위험을 합리적으로 맡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기업의 주식을 사도록 권한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투기다. 주식 시장들에서는, 투기자들은 이윤을 벌 것을 희망하여 팔고 사지만, 이윤을 벌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것들의 미래 전망에 관해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전문 지식은 유용한 정보를 시장에 가져오고, 그것이 없으면 가격들이 도달할 것보다 더욱 빠르게 가격들이 그것들의 올바른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서, 전체 시장을 더욱 반응적이고 효율적이게 한다.

이윤을 버는 것은 탐욕스러운 것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탐욕(greed)과 같지 않다. 만약 우리가 각각 생존하고 상처를 피하며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려면 어떤 자기 이익 조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탐욕은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킨다고 암시하는 도덕적인 관념이다. 자유 사회에서는, 생산자들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만이 자기들의 자기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

사업과 관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업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자유 사회에서 심지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도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나 취미 같은, 혹은 공유된 열광을 가진 집단 및 연합 같은, 다른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족과 시장 경제가 쉽게 동석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가족 관계가 매우 강한 이탈리아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기만 하면 된다.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확실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그것은 무해 원칙에 의해 배제된다. 그리고 많은 가장 보람 있는 관계들은 사실상 일터에서 동업자들과 가지는 관계들이다. 자유 시장 경제는 다른 면들에서도 사회적 관계들을 촉진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조직이나 공동체 조직과 자선적 운동들과 같은, 다른 관심들에 바칠 부와 시간을 준다.

시장들이 작동하는 방법

가격들의 원거리 통신망

대부분의 시장들은 화폐의 매개로 작동한다. 화폐 없이 직접적인 교환—물물 교환(bartering)이나 스왑 거래(swapping)—이 있을 수 있지만, 화폐로 편리해진다. 판매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주고 화폐를 얻고, 그 다음 최상의 가치를 찾아 가게를 돌아다닌 후 화폐를 주고 다른 재화와 서비스들을 얻는다. 그것은 배고픈 이발사가 거래

하기 위해 이발을 필요로 하는 빵 굽는 사람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은 보통 화폐로 표시된다. 가격은 가치의 표준이 아닌데, 왜냐하면 가치는 관련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상이한 사람들은 똑같은 것도 상이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은 사람들의 제품 수요에 관해 그리고 제품의 희소성에 관해 무언가 드러낸다. 가격은 사람들이 어느 것을 다른 것과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율을 반영한다.

희소성의 지표로서, 가격은 이기기가 어렵다.³ 그리고 가격은 수요가 강한 곳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높은 가격은 또한 공급자들이 그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만들기도 한다. 높은 가격을 보고서, 생산자들은 잠재적 이윤을 손에 넣기 위해 시장에 발을 들여 놓아, 노동과 자본 같은 자원들을 수요의 만족에 집중시킨다. 비슷하게, 낮은 가격은 수요가 약하다는 것과 자원들이 다른 곳에서 쓰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자유 경제에서, 자원들을 그것들의 필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그것들을 잉여가 있는 곳에서 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격은 또한 낭비를 내쫓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가장 높은 이윤을 벌기 위해서는, 공급자들은 가장 비

3 이러한 점들은 F. A.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1949에 잘 언급되고 있다. 간단한 요약에 대해서는 Eamonn Butler, *Friedrich Hayek: The Ideas and Influence of the Libertarian Economist*, Harriman House, Petersfield, 2012를 보라.

용-효과적인 투입물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원들을 보존하는 데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생산적으로 사용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효과는 전 경제에 걸쳐서, 그리고 참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시장에서 시장으로 퍼져 나간다. 예를 들면, 주석에 대해 어떤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제조업자들은 더 많은 주석을 수요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전보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높은 가격은 광산 회사들이 더 많은 주석을 생산하고 도매업자들이 더 많은 주석을 공급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꼭 마찬가지로, 다른 주석 사용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보다는 대체품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그런 대체품을 더 많이 수요할 것이고, 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대체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사용자들이 그 대체품에 대한 대체품을 찾도록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은 전 경제 체제의 구석구석까지 희소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F. A. 하이에크는 그것을, 어디에 잉여와 부족이 존재하는지 끊임없이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디에 자기들의 노력과 자원들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야기해주는, 시장의 ‘거대한 원거리 통신망(vast telecommunications system)’이라고 불렀다.

시장들은 완전할 수 없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학 교과서를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시장들이 동일한 고객들에게 동일한 제품들을 파는 많은 동일한 공급자들 사이의 ‘완전 경쟁(perfect competition)’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받을지 모른다. 시장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그저 이론적 추상일 뿐이다. 실제로는, 사람들과 제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들은 작동한다—그리고 작동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누구나 다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결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양쪽은 재화들을 동일하게 평가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교환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교환은 우리가 가치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만약 각 공급자가 동일한 가격들에 동일한 제품들을 제공한다면, 고객들이 그것들 사이에서 선택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어떤 공급자도 경쟁에 이겨서 높은 이윤을 벌 수 없다.

그러나 더 높은 이윤은 기업가들에게 경쟁에 이기게 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품을 더 값싸게 함으로써—말하자면, 생산을 합리화함으로써—그렇게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특정 제품을 더 낮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품을 혁신하고 차별화한다. 그들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이 익숙한 오래된 재화보다 더 낮고 새로운 어떤 것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구매자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제품들보다 자기들

의 제품들을 더 좋아할 것을 기대하여 그러한 변화들을 두드러지게 한다.

이것은 자유 시장들을—교과서 공급 및 수요 곡선들처럼 정태적이고 고정적이며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놀랄 만큼 동태적이게 한다. 공급자들은 더욱 매력적인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고, 고객들은 개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중앙 계획의 불가능성

경제를 조종하려고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재화를 생산하려고 하는 정부 시도들은 이러한 시장 체제의 활력에 필적할 수 없다.

정부 독점에 대해서는 혁신하라는 압력들이 별로 없다. 정부 관료들도 대중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도 없다. 그들은 이따금 여론 조사들에 착수할지 모르지만, 그 점은 시장의 빈번한 경쟁과는 아주 거리가 먼데, 후자에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들은 자기들의 수요에 관해 시시각각의 정보를 생산자들에게 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고객들을 이해해야 한다. 기업가들은 정부들이 선거들에서 그렇게 하듯이 제품들의 전체 꾸러미에 관한 고객들의 의견을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릴 수 없다. 그들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그리고 보급품들과 투입물들의 비용과 이용 가능성에 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

동산 중개인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예를 들면, 일정 유형의 집들에 대해 어느 잠재적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달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와 심지어 시간마다도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중앙 당국도 이 빠르게 바뀌는 정보 모두가 다시 바뀌기 전에, 그 정보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수집할 수조차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 경제가 중앙으로부터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멋대로고 비합리적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시장들은 매우 질서정연하다. 재산과 교환에 관한 합의된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은 거래하고 협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아주 확실히 예상할 수 있다. 시장들은 또한 더 합리적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모두 자기들 자신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하는 계획들에 적응하고 있는, 수백만의 개인들의 국지적 전문 지식과 [일반] 지식을 사용한다. 중앙 통제 경제보다 자유 경제에서 훨씬 더 많은 계획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침 국가 수준에서보다 개인들의 수준에서 행해질 뿐이다.

질문: 자유 시장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아니다. 시장들은 실패하지 않았다. 많은 환경재들(environmental goods)에 그저 시장이 없을 뿐이다. 물건이 희소하고 비지불자가 배제될 수 있을 때 시장들은 잘 작동하지만, 물건이 풍부하거나 비지불자가 배제될 수 없을 때는 시장들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해산 어류 자원을 멸종 때까지 포획하도록 허용하기보다는, 많은 국가들은 지금 지속 가능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 총량의 일부를 포획할 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은 거래할 수 있어서, 시장이 곧바로 생겨, 자원을 높이 유지하면서 효율을 촉진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 경제 덕분에 사람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그들은 자기들의 환경에 더욱 유의할 여유가 있게 된다. 중국은 자신의 산업들로부터 심각한 오염을 겪고 있지만, 거기 사람들은 맑은 공기의 사치보다 기본적인 경제 성장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그들 앞의 모든 부유한 국가처럼, 기준들은 달라질 것이고, 그들은 훨씬 덜 오염시키는 더 깨끗한 산업 공정들을 택할 여유가 있을 것이다.

국가 후원 기업들

오늘날 자기가 자기 국민의 전 생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의 세계 경제들은 정부가 오직 몇몇 산업들만 소유하고 다른 산업들의 산물을 계획, 규제, 보조금, 세금 그리고 국가 주식 소유를 통해 지휘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혼합(mixed)’ 경제이다.

20세기는 특별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산업 부문들을 많은 국가들이 국유화하는 것을 목도했고, 많은 국가들은—장거리 통신, 운송, 은행업, 공익사업, 광업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이런 산업들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통제한다.

불행하게도, 그런 산업들의 국가 소유는 거의 항상 정부 독점 기업을 창설한다. 그러한 독점 기업들은 종종 누구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그러나 독점 기업이 공공인지 민간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변함없이 비대해지고 나태해질 것이며, 높은 비용에 빈약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산업들의 전략적 중요성도 국가가 소유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은행들 대부분은 민간 은행이다. 참으로, 그것들을 국가 독점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내 그 은행들과 그것들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가족들을 망칠 것이다. 정부에 대한 공급자로서 운영되거나 직접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영리 회사들은 지금 세계의 장거리 통신, 운송 그리고 공익사업을 많이 제공한다. 많은 국가들은 민간 경영 전문 지식과 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경쟁적 기업들에 의해 이런 중요한 서비스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자기들의 국가 소유 회사들을 민영화했다.

그러나 정부들은 자기들이 산업들을 소유하지 않고도 산업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저 중요한 (그리고 명목상 사적 소유의) 회사에의 지분(持分)을 사서, 회사가 하는 일과 이사회에 임명되는 사람을 통제하는 데 주주로서의 자기들의 권리들을 사용하는 일만 할지 모른다. 때때로 그들은 주요 쟁점들에 관해 자기들이 최종 발언권을 가지는 ‘황금 주(golden shares)’를 자신들이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은밀한 간섭도 자유 사회에서는 거부될 것이다. 그것은 국유와 수용이나 마찬가지로, 정부들이 산업에 대한 결정들을 그 산업을 살 필요 없이 내릴 수 있게 한다. 소유자들은—자기들의 저금과 연금을 우량주 회사들에 투자할지 모르는 보통 사람들을 포함한다—자기들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빼앗긴다. 그리고 부패의 기회들은 풍부하다—연고자들은 이익이 있는 이사직들로 보상받을 수 있고, 공장들은 유리한 지역들에 입지할 수 있으며, 산출물은 지지자들에게 편익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부들은 또한 규제를 통해 민간 회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규제들은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가격을 매길 수 있는지, 그것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자기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급해야 하는지—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를 제한하고 명령할 수 있다. 민간 자원들에 대한 이런 종류의 국가 통제, 심지어 자신들을 자유 국가라고 부르는 국가들에서조차도, 매우 흔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필수적인 기초인 사유 재산의 원리에 완전히 반대된다.

국제 무역

무역 대 보호주의

같은 국가에서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들은 또한 사람들이 국제적 경계들에 걸쳐 무역할 때도 발생된

다. 무역은 국가들에게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전문화하고 자기들의 잉여를 다른 일들을 하는 데 더욱 좋은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 보내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면, 세계의 꽃이 꽃들(cut flowers)의 대부분은 토양과 기후가 그것들을 재배하기 좋은 케냐에서 시작된다. 반면,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프랑스는 그들의 토지 및 기후 조건들과 그들이 축적한 전문 지식 때문에 주요 포도주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적 값싸지만 잘 교육받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IT 서비스 및 생산을 위한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국제 무역으로 국민들은 전문화할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의 생산을 더욱 비용-효과적으로 만들 도구들과 장비 같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이한 국가들의 국민들의 가치들이 아마도 같은 국가의 국민들의 가치들보다 더욱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상호 이득의 잠재적 기회가 그만큼 더 크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 유럽인 여행자들은 인도와 중국에서는 쉽게 그리고 풍부하게 자라는 차와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라든지 중동에서는 값싸고 흔한 향신료들에 대해서 막대한 가격을 지불하곤 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반 바퀴 돌아 베니스의 건축물이나 타일랜드의 문화를 방문하여, 그것들이 자기들의 본국과 얼마나 다른지 보고서 놀란다.

자유 사회는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제품들에 개방되어 있다. 그것은 무역으로부터의 동태적 편익을 인식하고 무역이 어떻게 번영을 확산하는 것을 돕는지를 인식한다. 그 대안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

들로부터의 수입을 배제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의 공급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주의(Protectionism)이다. 이것은 국내 공급자들에게 안락한 시간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해외로부터 오는 더 좋거나 더 값싼 재화와 서비스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거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보호되는 국내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선택을 덜 가지며, 더 빈약한 제품들을 참아야 한다.

보호주의는 낭비다

해외에서 더 낮게 혹은 더 값싸게 생산될 수 있을 어떤 것을 어떤 국가가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그 국가는 (환경 자원을 포함해서) 자원들을 낭비한다. 애덤 스미스는 온실을 이용해서 춥고 비가 많이 오는 스코틀랜드에서도 포도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지만, 프랑스의 천연 햇빛에서 포도를 기르는 비용의 대략 30배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더 잘 혹은 더 값싸게 할 때 왜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하려고 하느라 자원들—여러분의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을 낭비하는가?⁴

예상과 같이, 효율적인 생산자들은 다른 국가들이 금지, 할당 그리고 관세를 통해 자기들의 제품을 배제하려고 한다고 분개한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 자신의 장벽을 올림으로써 보복한다. 그런 무역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무역하게 허용한다면

4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Book IV, ch. II.

—특히, 더 값싼 수입품들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양 국가의 가장 가난한 주민들에게—훨씬 더 좋다.

똑같은 것이 이민에도 해당된다. 자유 사회에서는 정부가 사람들이 국가들 사이에 이동하는 것에 장벽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민자들은 자기들이 이주해 가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간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의, 그리고 북아메리카로의, 이민의 물결들은 막대한 번영을 창출했다. 수십 년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르고, 막대한 일시적인 문제들을 야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 사회의 신봉자들에게는 이민은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여야 할 것이다.

실제의 자유 무역

개방 무역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번영하게 된다. 홍콩과 싱가포르—그 어느 쪽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많은 천연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같은 작은 무역 도시들을 고찰해 보자. 1960년대에는, 그들은 막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아프리카 및 카리브 해 국가들만큼 가난했다. 오늘날에는, 무역과 경제적 자유 덕분에, 그들은 몇 배나 더 부유하다.

무역의 보급은 거대한 규모로 세계 빈곤을 줄였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품들과 특히 외국 투자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신발이나 옷을 생산하는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게 하는 공장 따

위의—옮긴이 주) 노동자 착취 공장(sweatshop)’과 같이—국내 주민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진실은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든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들판에서 불확실하고 더 낮은 보수를 대가로 매우 힘든 노동을 하기보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는 점이다. 외국 투자가 들어온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그런 공장 근로자들은 이제 모터스쿠터, 텔레비전 그리고 그들이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타 사치품들을 소유하기를 열망할 수 있다.

—이동 전화라든지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컴퓨터(handheld computer)와 같은—오늘날의 거의 어떠한 정교한 제품도 전 세계에 걸쳐 모은 자원, 기술 그리고 전문 지식을 포함한다. 설계자들은 캘리포니아에 살지 모르지만, 제조는 홍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관리되고 중국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질지 모른다. 제품에 사용되는 금속들과 기타 재료들은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혹은 남아메리카로부터 채광될지 모른다. 제품들은 그리스에 기지를 둔 해운 회사나 네덜란드에 기지를 둔 항공 회사에 의해 운송될지 모른다. 그리고 물론 사용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과 거래함에 따라,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거나, 적어도 그들을 존중하게 된다. 거래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국가들이나 인종들의 거래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을 여유가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공급자나 동업자나 고객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거래해

야 한다. 국제 무역은 이해와 평화를 발생시키고, 후자는 자기 자신의 더 넓은 편익을 가지고 있다.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들이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하는 사회들이라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6 재산과 정의

제4장에서 우리는 ‘정의(justice)’가—사람들의 행동들의 보상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보다는 사람들이 서로에 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매우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개인들이 서로를 향해 행동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규칙들은 복잡하다. 이러한 행동 규칙들을 보존하고 시행하는 데는 일정 가치들과 사회적 제도들—재산, 법의 지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의 존중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사적 재산

재산의 의미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능력은 자유 사회의 작동에 근본적이다. 재산 소유권은 당신이 어떤 것을 보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과—결정적으로—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부터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신은 그것을 향유하거나, 그것을 임대하거나, 그것을 팔거나, 그것을 공짜로 주거나, 심지어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허가 없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의 재산이 당신으로

부터 제거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다.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결혼한 부부, 동업 회사와 법인, 그리고 정부와 공공 단체 같은 집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재산은 한 패기의 땅이나 한 개의 건물처럼 항상 물리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육장 동물 한 마리, 트럭 한 대 혹은 의류 한 점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물리적이지 않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그것은 상표나, 당신이 썼거나 기록한 어떤 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당신이 설계한 어떤 것에 대한 특허권과 같은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회사에의 주식,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진 빚, 혹은 당신의 저금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정해진 시간 동안 점유할 임대차 계약이나 라디오 방송국이 일정 주파수를 사용할 권리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재산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고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재산은 또한 *창조물(created)* 수도 있다. 트럭 한 대나 의류 한 점은 새로운 한 점의 재산을 만들도록 구성 부분들로부터 조립된 것이다. 사육장 동물은 사육되고 양육되어 성숙된다. 사람들은 새로운 책들을 쓰거나 새로운 저축 패키지들을 개발한다. 디지털 기술로 굉장히 많은 이동 전화 채널들—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재산—이 창설될 수 있었다.

중요하게도, 당신의 재산은 또한 당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당신의 권리들과 당신 자신의 노동의 과실들을 향유할 당신의 권리도 포함한다. 자유 사회에서는, 당신은 타당한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투옥될 수 없다. 당신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기술, 재능, 지식 혹은 노력을 통해 창조한 것을 훔쳐서도 안 된다.

재산과 진보

사적 재산의 제도는 인류만큼 오래되었는데, 하기야 그것이 항상 존중받지는 않았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개인 재산의 관념은 조롱받았다. 더욱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은 농장과 공장의 집단 소유권을 실험했다. 그러나 근대 무역이 발생한—그리고 무역하는 국가들에 막대한 부 증가를 가져온—것은 오직 사적 재산의 점진적인 수용과 그것의 보호를 가지고서였다.

왜 그런지 보기는 쉽다. 생태학자 개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에 관해 썼다.¹ 사람들이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그들은 그것을 보존하고 기르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사적으로 소유된 토지는 집단적으로 경작되는 토지보다 더 잘 경작된다. 비록 개별 아파트는 아름답게 보존될지 몰라도, 아파트 건물의 공유 통로와 층계참은 종종 더럽고 파손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어떤 것에 자기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이유를 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설사 다른 사람들이 조금도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편익을 얻을

¹ Garre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3859), 1968, pp. 1243-8.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의 보호와 재산 소유권의 존중은 사람들에게 생산적인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농부들은 만약 결과로 나타나는 수확물을 자기들이 소유한다면 씨앗을 심고, 작물을 재배하며, 트랙터를 구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업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업가들이 안다면, 기업가들은 공장, 장비 그리고 생산망에 투자할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재산권들이 보호되고 존중된다면, 사람들은 생산적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면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이것은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만약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훔치거나 파괴할 수 있다든지 그것이 생산한 것들을 어떤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술, 시간, 돈, 노력 그리고 전문 지식을 생산에 투자할 유인이 없고 전체 사회는 고통을 겪는다.

재산과 기타 권리들

사람들이 자유 사회에서 향유하는 권리들과 자유들은 재산의 제도에 정착되어 있다. 사적 재산이 없이는 권리도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결사를 이루며,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생각해 보자. 만약 사적 재산이 없다면—말하자면, 만약 어떤 정부가 모든 자원들을 통제한다면—후보자들이 어떻게 선거 운동을 개시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집회장을 빌리고, 전단을 인쇄하며, 자기들의 견해를 방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모든 집회 장소들을 소유하고, 인쇄 및 종이의 공급을 통제하며, 방송 매체를 운영한다면, 정부는 누구의 선거 운동도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² (참으로, 만약 후보자가 정부나 그것의 정책들에 비판적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 같다.) 더욱더 나쁜 것으로, 만약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부가 자신의 비판자들을 체포하거나 심지어 살해함으로써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이것의 예들은 너무나 흔하다.)

소유권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신체, 당신의 노동 그리고 당신의 소유물들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보상 없이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신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투옥되며, 살해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노동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노예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소유물들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 불의로부터의 보호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 F. A. Hayek, *The Road to Serfdom*, Routledge, London, 1944에서 잘 지적된 점.

재산의 도덕적 편익

재산은,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정부의 권력과 다른 사람들의 강제에 대비하는 결정적인 완충 장치를 개인들에게 제공한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주고, 정부들이든 개인들이든 다른 사람들의 자의적인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계획을 형성하거나, 자기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거나, 자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능력을 준다. 재산 덕분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거래와 교환의 규칙들 덕분에, 개인들은 또한 자기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게 평화적으로 협조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와 함께 살 수 있게 하고 천연 자원들과 자기들의 노동의 과실들 양쪽 다름, 분쟁, 폭력 그리고 강제 없이, 합의된 규칙들에 따라 나눌 수 있게 한다.

재산은 평화로운 협조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더 낫게 하고 싶은 누구에게든 협조를 *필수품(necessity)* 이 되게도 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저 강압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 재산은 오직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전할—팔거나, 렌트하거나, 공유하거나, 리스하거나, 공짜로 주거나 할—수 있다. 더 자유로운 사회들은, 빚을 갚고 계약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규칙들과 같이, 이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자원들이 강압으로 빼앗긴다든지 사기를 통해 도둑맞는 것보다 자원들을 이전하는 더욱 도덕적인 방식으로 간주한다.

사회에 대한 이해관계

이 모든 것에서 편익을 얻는 사람들은 단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투자, 자본 창출 그리고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전체 사회가 편익을 얻는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 거주자들은 농부들이 자기의 작물들을 기르고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고객들과 거래하려는 유인 덕분에 먹는다. 그것은 농부들이 자기들의 토지와 자기들의 작물들에 소유권을 가진 덕분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성 농부들의 토지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도록 부추겨지는 로버트 무가베의 짐바브웨에서와 같이—재산권들이 보호되지 않은 국가들과 현저하게 대조된다. (대개 백인) 농부들이 도망감에 따라, 그 결과는 더 큰 변영이 아니라 더 작은 변영이었다. 명백한 토지 소유 규칙들이 없어서, 생산은 추락했고 도시 거주자들은 극도로 식량이 부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유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들의 보호는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것은 개인들이 범죄자들에 의한 그리고 강력하거나 부유한 엘리트들에 의한 강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적 재산의 제도로 모든 사람은 사회에 대한 이해관계와 평화로운 협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소유되는 자원들이 잘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장려하여 생산적인 자본이 축적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재산권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 자유 사회에서 재산 소유권은 소수의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정의의 규칙들

정의의 발견

정의는 보상과 처벌이 할당되는 규칙들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의 결과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 감정에 근거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개인이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정의의 규칙들(rules of justice)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바로 그 본질의 일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법(natural law)’이 우리의 창조주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종교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다고 믿는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F. A. 하이에크 같은 다른 사람들은 진화적 견해를 취해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평화롭게 사는 데 정의의 규칙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와 더불어 성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건, 협동과 잘 기능하는 인간 사회를 촉진하는 것을 돕는 타고난 정의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의(injustice)를 느끼지 않는다면—말하자면, 사람들이 강도당하거나

살해될 때 만약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우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 사회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정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 그들이 문득 떠올릴 수 있을 어떠한 규칙들도 우리의 본성의 일부인 규칙들보다 더 잘 작동할 것 같지 않다. 그들이 하기로 기대할 수 있는 전부는 정의의 규칙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는(discover) 것이다.³

누구나 이것을 관습법(common law)이나 지방 법체계들(local legal systems)의 작동에서 볼 수 있다. 개인들 사이의 분쟁들—예를 들면, 이웃들 간의 경계 분쟁—이 법정에 제기된다. 법정은, 그 사건의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정당할지(just) 판결해야 한다. 두 번째 경계 분쟁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고 다른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법정은 정당한 결과를 발견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를 해야 한다. 판사들은 자의적으로 판결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원칙들을 새로운 상황들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험의 긴 과정을 통해서, 이웃들 간의 어떤 행동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어떤 것이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가 점차 생긴다.

3 이 점은 F. A. Hayek,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1978에 언급되어 있다.

정의는 법도 도덕도 평등도 아니다

자유 사회에서 정의의 규칙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상황에 있는 상이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법과 정의는 항상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법은 항상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것은 엘리트들에 의해 친구들을 돕고 적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바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질지 모른다. 이것은 부당한(unjust) 법이다.

정의와 도덕도 같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전 섹스를 대단히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점은 혼전 섹스를 부당한(unjust)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교감 작용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무해 규칙 아래서는, 그것에 착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시, 그렇게 하는 법은 부당한 법이다. 만약 법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등도 정의와 같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사실은 사회를 부당하게(unjust) 만들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만큼 아주 정당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정당하게 그리고 강제 없이 얻는다면, 그들은 전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사적 재산의 어떤 비판자들은 재산이 오직 도둑질로만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사용되지 않고 필요 없는 한 폐기의 황야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는지 모르는 최초의 사람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그 다음 그것을 경작하거나 그 아래서 귀중한 광물질들을 발견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운이었다. 다른 누구도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런 불의도 행해지지 않았다. 비슷하게, 만약 어느 기업가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발명하고 그것을 자발적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유해진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전체 세계가 그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정의의 시행

자유 사회의 주요 목적은 강압(force)의 사용을 극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하여간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자면 벌금이나 금고로, 처벌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것은 범죄자에 대해 강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의가 지배하려면, 어떤 강제가 불가피하다.

자유 사회는 강제에 대한 독점을 문관에게 주어 이 딜레마를 해결한다. 오직 그들만이 강압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때도 오직 정의의 시행과 내외의 적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강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개인들에 의한 강압의 사용은 금지된다.

설사 정부가 강압에 대한 독점을 가지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인간도 강제적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할 유혹은 너무 크다.

따라서 자유 사회의 사법 제도는 당국의 강제적 권력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칙들을 구체화한다. 예를 들면, 당국의 수사 및 체포 권력에 관해, 사건들이 재판되는 방법에 관해, 그리고 처벌들이 할당되는 방법에 관해 엄한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적(procedural) 규칙들은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이지, 무엇이 결정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법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규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정의에 대한 위협

만약 개인들이 당국의 강제적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박해받지 않으려면 이 틀은 강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심지어 자기들이 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조차도, 쉽게 풀어진단다. 예를 들어, 판사들은 자기들의 임무가 절차적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기보다는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때때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는 판사들의 개인적 의견을 정의 위에 둔다. 그것은 또한 소송 절차의 결과를 예측 불가능하게 하기도 하는데, 특정 판사에 따라 동일한 범죄에도 상이한 처벌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부여하는데, 만약 그들이 판사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처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다 준수되어야 하는 확고한 절차적 규칙들이 있다면 그러한 영향력은 억제된다. 이것은 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적인 보호다.

사법(司法)을 서서히 해치는 다른 접근법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의 개념이다. 부와 소득의 더욱 평등한 분배의 고의적 창출은 소유권과 정의의 원칙들과 조화하지 못한다. 평등한 분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어떤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재산을 보유하고 재산을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처분할 권리를 사람들에게 주는 소유권의 규칙들은 파괴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일단 우리가 당국에게 그러한 포괄적인 권력을 주면,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업심도 또한 좌절될 것이다. 만약 당국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면, 누가 왜 그것을 얻으려고 위협을 무릅쓰거나 노력을 쏟을까?

그러나 재산 소유권에 적용되어야 할 정확한 규칙들은 항상 명백한 것이 아니다. 한 폐기의 땅에 관한 나의 소유권은 그 밑에 있는 광물질을 개발할 권리를 나에게 주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항공기를 타고 그 위를 나는 것을 내가 금지할 수 있게 하는가? 나는 인근의 공장이 연기를 내뿜는 굴뚝을 가지고 나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세목들이 결정되어야 한다.⁴ 그리고 자

4 이 점은 Milton Friedman and Rose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1962가 제기한다.

유 사회에서는 그것들은, 법정들에서 끊임없이 시험되고 연마되어, 정의의 규칙들이 사실상 무엇인지를 그저 정확히 밝혀내려고만 하는 공정한 판사들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적 정의

자유 사회에서는, 모든 법 제정과 법 시행은 정의의 원칙들—우리의 인간성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들이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라고 불리는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

첫째, 법은 *알려져 있고 명백하고 확실해야*(known, clear and certain) 한다. 만약 법이 비밀로 되어 있거나 계속 변한다면, 개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법은 또한 *예측 가능하기도*(predictable) 해야 한다. 개인들은 법이 어디에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자유 사회라고 추정되는 사회들에서조차도, 법은 종종—테러리즘이나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하나의 목적을 위해 도입되지만 그 다음 완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경범죄인 것에 대해 중벌에 직면하는 것을 발견할지 모른다.

둘째, 법은 *소급적일*(retrospective) 수 없다. 법은 오직 미래 행동들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행할 때는 완전히 합법적이었던 행동들에 대해 자신들이 기소되는 처지

에 놓일 수 있다. 다시, 자유 사회라고 추정되는 사회들이 이것에 실패한다. 예를 들면, 일정 조세 회피 계획들을 불법화하는 2008년 영국 법은 그 당시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았던 3,000명의 사람들에게 조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전의 법률을 개정했다.

세 번째 정의 규칙은 법이 개인들에게 *실행 불가능한(infeasible)*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유 국가라고 추정되는 국가들조차도 역시 이 시험에 불합격하는데, 특히 법들이 서로 모순되는 곳에서 그렇다. 그리하여 화재 규정들은 소유자에게 건물에 화재 피난 장치(fire escape)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나 계획법들은 건물이 변경되는 것을 금할지 모른다—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소유자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욱 근심스러운 것으로, 부당한 정부들은 자기들의 적대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법들을 사용할지 모른다.

자연적 정의의 다른 주요 규칙은 *무죄 추정(presumption of innocence)*의 규칙이다. 어느 누구도 유죄인으로 입증되기까지는 유죄인처럼 취급될 수 없는데, 설사 그에게 불리한 주장이 한 치의 틈도 없는 것 같아도 그렇다. 결정적으로,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당국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들이 날조된 죄목을 가지고 자신의 적들을 괴롭히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모든 죄목들은 사람들이 처벌될 수 있기 전에 법정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마지막 주요 원칙은 판사들과 법원들이 정치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independent) 한다는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은 정치가들의 단순한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치적 견해들은 그들이 사건들을 다루는 방법과 무관해야 한다. 만약 판사들이 정치가들에 아주 가까워서 판사들이 정치가들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거나 협박을 받는다면, 법원 제도는 진정한 정의보다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더 자유로운 사회들은 종종 판사들을 임명할 독립적인 위원회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을 종신으로 임명하는데, 이것은 정치가들이 그들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인다.

법의 지배

법의 지배의 의미

자유 사회와 비자유 사회를 법의 지배(rule of law)보다 더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이 군주와 정치가들의 자의적인 변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고 일반적인 법 원칙들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법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 그들의 법들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의 지배의 목적은 개인들을 자의적인 권력의 행사에 대비해서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정부들에게 강압에 대한 독점을 부

여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로지 의도된 목적들을 위해서만, 예측 가능하게, 당연한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엘리트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일반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법의 지배는 또한 당국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모든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형벌을 받도록 확보하기도 한다. 불안스럽게 많은 국가들은 자기들의 현직 및 전직 정부 지도자들에게 기소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한다—그리고 불안스럽게 많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 결과 처벌을 면했다. 공인들을—그리고 그 밖의 어떤 사람도—근거 없고 (혹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을 가진 기소들로부터 보호할 논거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정의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할 논거는 없다.

그렇다면 법의 지배는 변화하고 자의적인 지배자들의 결정들보다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법 앞의 평등, 적법 절차, 독립적인 사법부, 눈을 가린 정의,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되지 않는) 인신 보호 영장(habeas corpus), (말하자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계속 반복해서 재판받음—소위 이중의 위험(double jeopardy)—으로써) 당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당신이 유죄로 취급되지 않는) 무죄 추정 그리고 법의 확실성, 안정성 및 실행 가능성과 같은 규칙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연적 정의를 보장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법에 의해 구속된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의 지배를 보호하기

국가들은 법의 지배가 당국에 의해 서서히 약화되는 것을 막는 상이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성문 헌법, 관습법과 선례에 근거한 사법 과정, 그리고 자연적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이다.

성문 헌법은 법의 지배에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엘리트들과 기득 이익들이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헌법이든 자신들에게 이롭도록 왜곡할 것 같은 성숙된 국가에서보다는 국민들이 처음으로 협력하고 있는 새 국가의 탄생 때에 그러한 헌법을 창안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법의 지배는 또한 상이한 사건들이 법정에 회부됨에 따라 수년간의 선례에 의해 지탱될 수도 있다. 개인들은 입법자들과 관리들의 재정(裁定)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기들의 정의와 합법성을 법정에서 시험할 수 있다. 점차, 일단의 선례는 공식적 권력의 경계선을 긋는다.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세 번째 방식은 정의의 규칙들에 관해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지탱하는 원칙들에 관해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다. 만약 자유 언론이 지배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이런 생각들을 토론할 수 있다면, 당국이 그것들의 이해(理解)를 자기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왜곡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법의 지배에 관한 토론들로부터 생기는 하나의 주요 생각은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을 통치하게 되어 있을 원칙들을 결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절도나 폭력에 대한 처벌들과 같이—그

들이 모두 자기들 자신의 장기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여길 방식들로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강제를 제한하고 특정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을 착취할 수 없도록 할 일반 규칙들에 모든 자유 사회들이 틀림없이 근거할 것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할지 모른다.

사법 행정

법의 지배를 보호할 무슨 일반적인 길들이 선택되건, 확실히 도움이 될 몇몇 특정한 정책들이 있다.

판사들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제도는 존중되지 않을 것이고 막대한 불의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판사들은 부당하게 급료가 적고, 무책임하며, 충분하게 감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들을 법보다는 뇌물에 기초하여 판결한다. 대신, 판사들은 적절하게 급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주의 깊게 조사를 받아 그러한 부패가 필요하지도 용인되지도 않게 하여야 한다.

사법 제도는 또한 훌륭한 법원 행정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거대한 관료제가 연루되어 있고 관리들이 사건들을 관리할 유인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작은 분쟁조차도 법정에 도달하는 데 수개월이나 심지어 수년도 걸릴 수 있다. 과거의 선례들의 기록들이 없다는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사건

들을 낭비적으로 법정에 가져오지 않도록 선례에 기초한 법체계는 과거의 사건들과 판결들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경찰도 역시 해결이기보다는 문제의 일부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체포와 구금에 관한 권력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큰 불의를 과하고 부패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적이거나 상상된 대수롭지 않은 교통 위반들에 대해 소액의 ‘벌금들(fines)’을 부과하는 경찰관들은 이것의 징후이다. 그것은 지배적인 문화의 일부가 된다—그러나 일단 뇌물 수수의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훨씬 더 나쁜 것들을 막을 규칙이 없다. 경찰은 적절하게 교육받을 필요가 있고, 이상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고소들을 조사하고 그것들에 기초해서 행동할 권능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을 가지고, 감시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관료제는 정치적인 호의를 통해서보다는 실적으로 (on merit) 임명되어야 한다. 그들은 적절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처벌되어야 한다.

정의와 법의 지배가 지배하려면 선거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당국에 비판적인 후보들이 출마하고 자기들의 관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유 언론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비밀 투표도 존재해야 하고, 선거구 경계가 공정하게 획정되고 선거가 정직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진정으로 독립적인 선거 관리 위원회도 존재해야 한다.

정의와 경제적 진보

법의 지배는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해마다, 세계은행은 국가들을 그 안에서 사업을 하기가 얼마나 용이한가의 면에서 순위를 매긴다. 해외로부터 사업과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민들이 국내에서 거래하기 더 쉽게 만드는 것은 물론 주민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 지수는 조세와 규제의 투명성, 관리들 사이의 부패의 수준,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재산을 등기하며 국경을 넘어서 거래하고 지불 불능을 처리하는지 등을 고찰한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훨씬 덜 자유롭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자유로운 싱가포르는 7년 동안 세계 랭킹의 수위를 차지했고, 홍콩,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다른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 순서는 한국인데,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또 하나의 국가이다. 랭킹의 밑바닥에는—콩고,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라크, 카메룬, 볼리비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같이—정의와 법의 지배가 악명 높게 빈약한 국가들이 나타난다.

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

많은 국가들, 특히 발전도상국들에서는, 다양한 사법 제도들이 지배한다. 국가 수준의 법들과 사법 제도들 외에도, 개인들 사이의 사법(私法) 혹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종종 지방적, 종족적 혹은 종교

적 법체계들도 있다.

국가 체계들에서 부패가 더 있을 것 같다. 지방적, 종교적 그리고 사적 법체계들은 보통 자연적 정의에 훨씬 더 깊이 뿌리박혀 있고, 그러므로 더욱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 체계들은 종종 식민 혹은 점령 강대국들에 의해 부과되었다. 그것들은 결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의 권력과 관직 분배는 어떠한 부패한 사람도 이용하도록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국가 사법부들은 종종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군대, 경찰 그리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는다. 정치가들은 자기들의 지방 공동체나 심지어 자신들도 이롭게 하기 위해 국가의 돈을 훔칠 것으로 거의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생활에서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도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여행과 통신들이 어렵고 지방적인 문제들이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들인 지역들에서는, 체계들의 혼합이 이치에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목적은 모든 사법 제도들이 지방법들의 권위와 동의, 국가법들의 명료성과 원칙, 그리고 법의 지배의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권

인권의 정의

정의에 관한 그러한 성찰들로부터 *인권*(human rights)이라는 개념

이 생긴다.⁵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성 덕분에 기본적 자유들—자연법처럼, 사회의 순조로운 작동을 촉진하는 권리들이지만, 특히 *보편적이고*(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양보할 수 없는*(그것들은 포기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정될 수도 없다) 것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견해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들(rights)’은 인간의 *자유들(freedoms)*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그것들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 당신 자신의 몸과 노동의 자기 결정과 자기 소유, 당신이 선택하는 곳에 이주하고 입지할 자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종교를 실천할 자유와 같은 자유들을 포함한다. 그것들의 효과는 국가가 국민들을 취급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국가를 제한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인권’은 종종 정치적 구조를 통해 실현되는 법적 권리나 사회 및 문화 규범과 혼동된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법들은 인권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편적이지(universal)*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오직 근로자들에게만 그리고 오직 그러한 사치를 할 여유가 있는 국가들에서만 적용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양도될(alienated)* 수 있다—근로자는 어떠한 자유도 상실하지 않고 돈을 받기 위해 휴가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동등한 보수에 관한 법들도 인권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5 이것에 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Nigel Ashford, *Principles for a Free Society*, Jarl Hjalmarson Foundation, Stockholm, 2003을 보라.

아니라 고용주들에 대한 강제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집단 권리도 인권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주어진 특별대우는 단지 법적 특권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만약 어떤 것이 사람들의 인간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 집단에 대한 그들의 구성원 자격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인간의(human)’ 권리가 될 수 없다.

자유, 권리 그리고 의무

그런 쟁점들에 관해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을 사회적 규범 및 법적 특권과 혼동하는 것은 후자에게 잘못된 권위를 주고 전자의 전 개념을 서서히 해친다. 어떤 것들—동등한 보수, 유급 휴가 혹은 심지어 어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특별한 인정조차도—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모든 것이 인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권리들’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한다—그것들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강제적인 요구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언론의 자유는, 그것을 존중하라는 의무나 책무 외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의무나 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당신에게 신문 칼럼을 제공하거나 당신의 견해가 방송될 수 있도록 라디오 쇼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당신이 자유롭게 정말로 말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심지어 당신이 말할지 모

르는 것을 듣도록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엔 인권 선언은 무료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목록에 기입한다. 그러나 무료 교육은 인권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의 비용을 댈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제공은 비용을 가지고 있다—시간, 노력, 재료 그리고 돈이 모두 그것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육을 무료로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자원들을 제공할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 비용을 완전히 기꺼이 분담할지 모르지만, 자유 사회에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축된 의무들, 권리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강요*, 그리고 이런 *강요*가 야기하는 더 넓은 손해를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 인식하지도 않고, 그 *권리*들에 관해 말한다.

다시 한 번, 자유 사회들에서는 복지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것은 유일한 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일 때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함축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자들이 복지 문화에서도 더 못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지의 조세 비용은 일과 기업심을 억제하여 전체 사회를 더 가난하게 만들지 모르고, 복지 편익은 의존을 장려할지 모른다. 그리고 부유한 자유 사회에서는 자선 기관들은 관료적 정부 기관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당연히 더

잘 부양한다.

7 자생적 사회

명령 없는 질서

자유 사회는 큰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운영될 수 있다. 그것은 예상 밖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 생활에는 예들이 풍부하다. 미국 경제학자 대니얼 B. 클라인이 관찰하듯이, 당신은—아장아장 걷는 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두에 바퀴를 가죽 끈으로 묶었으나 헬멧, 무릎 보호대, 혹은 스케이팅 자격증도 없이, 모두 상이한 속도로 단단한 마루 주위를 도는—롤러 스케이트장에는 일련의 사고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속도 제한, 방향 지시기 그리고 정지 신호의 필요가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을 피하면서 롤러 스케이트장 주위로 자기 길을 용케 조종한다.¹ 그것은 어떤 계획가나 경찰 기관이 그들에게 어디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스케이트하라고 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각각이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약간의 당연한 예의를 더하여, 그들은 충돌을 피하면서

1 Daniel B. Klein, 'Rinkonomics: A window on spontaneous order,' Online Library of Liberty (Articles), 2006.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기들의 상호 이익들을 달성한다.

더욱더 인상적으로, 인간의 언어는 비록 그것이 어떤 당국에 의해서도 의식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지만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고 우리에게 대단히 이롭다. 언어가 작동하게 하는 문법의 규칙들은 수 세기에 걸쳐 아주 자연스럽게 성장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규칙들이 미묘하고 복잡하며 우리가 그것을 알기 쉽게 적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따른다. 어떤 정부 위원회도 그렇게 복잡하고 미묘하며 효과적인 규칙들을 창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저 우리와 더불어 진화해 왔다.

인간 사회의 많은 부분들은 이와 같이 작동한다. 관리들에 의해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의 일부로서 더불어 성장해 온 몇 개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따르기만 함으로써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것들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거대한 그리고 대단히 이로운 사회적 질서들을 창설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규칙들은 전 세계가 협동하는 국제적인 시장 경제를 창설했다.

규칙에 의해 안내되는 사회

자유 사회의 개인 간 규칙들은 사람들이 정부 통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허용 범위를 사람들에게 준다. 자유로

운 사람들은, 당국이 특히 허용하는 소수의 것들에 국한되는 대신, 특히 금지되지 않는 많은 것들의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 사회들이 지시를 기다려야 하기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쉽게 반응하여 훨씬 더 신축적이고 적응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 경제에서 소유권과 재산의 규칙들과 같은—이러한 규칙들은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관해 여러 해에 걸쳐 발견된 일종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은, 여러 해에 걸친 그리고 수백만의 인간 상호 작용들에 걸친 시행착오의 교훈들을 반영하여, 상황이 바뀔에 따라 적응하고 변한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행동 규범들, 자연법을 문서로 표현하려고 하는 법적 규범들, 그리고 많은 시험 사례들에 걸쳐 축적된 관습법을 포함한다.

규칙이 안내하는 이러한 자생적인 사회는 더욱 독창적이고 적응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되는 사회보다 더욱더 복잡할 수 있다. 언어처럼, 그것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서 우리의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규칙들을 심지어 묘사조차도 할 수 없—으나 여전히 매우 잘 작동할 수 있다. 어떤 당국의 명령에 기초한 사회는, 규모뿐만 아니라 본질에서도, 소수의 당국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가피하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만의 인간 상호 작용들의 결과로 축적되어 온 규칙들에 기초한 사회는 훨씬 더 넓고 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중앙 집권적으로 지휘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의 한정된 지혜에 의존한다. 규칙에 의해 안내되는 사회는 다수의 사람들의 지혜를 캡슐

에 넣는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호 작용의 일상 규칙들보다 자기들이 사회나 경제를 더 낫게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수를 종종 저지른다. 이 복잡한 규칙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지혜를 버리고 왜곡함으로써 그들은 변함없이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

분산된 지식과 권력

자생적인, 규칙에 의해 안내되는 사회의 고유의 지혜는 어떤 중심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백만의 개인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그들에 의해 보유된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그런 개인들은 삶에서 자기들 자신의 소규모 실험들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위협과 기회를 무릅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위협이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채택하고 이익을 얻도록 이용될 수 있다. 그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실험과 적응을 촉진하고 변화의 세계에서 자생적 사회에 더 큰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 당국은 모든 사람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생활과 재산을 건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행동해야—하거나 거대한 실수를 저지를 것을 무릅쓰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 비자유 사회들은 덜 빠르고 덜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물론, 자생적인 사회와 경제는 결코 완전할 수 없다. 그것들은 (비록 인간 설계는 아니지만) 인간 행동의 산물이고, 인간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적응하려는 우리의 시도에서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불가피하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인간 상호 작용의 세계에서는, 이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보는 놀랄 정도로 지적이고 적응적인 사회와 경제를 움직인다.

자유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장 잘 적응할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다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모든 다른 사람의 행동들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많은 출구들 중 하나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있거나 많은 입구들 중 하나로 들어와서 자기의 특정 열차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을 러시아 위에서의 번잡한 철도역과 상당히 닮았다. 그들 각각은, 비록 거기에 도달하는 자기들의 길이 아마도 전혀 명백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기들이 가고 있는 곳을 마음에 두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진로 안으로 들어오면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누비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혼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누구나다가 갈등 없이 자기 목적지에 도달한다. 만약 어떤 당국이 역에 있는 그 수백 혹은 수천의 사람들의 각각에게 정확하게 어디로 그리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 명해야 한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어디든지 도달하는 데 수 시간이나 수일이 걸릴 것이다. 그 문제는 너무나

복잡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자생적 사회는 그것을 쉽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해결한다.

관용

관용의 의미

이런 식으로, 자유 사회의 사람들 각각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적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자기들이 행동과 생활양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충격적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다른 사람들에게 관용(toleration)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 사회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떤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거나 야기할 것 같은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것이 *물리적*(physical) 피해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피해(harm)’가 충격, 도덕적 의분 혹은 당혹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모든 행동이 금지될 수 있을 것이고 자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하여간, 그 행동을 금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도덕적 격노는 그것을 실행할 자기들의 자유가 구속되는 것을 분개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격노와 겨루게 될 것이다. 각 측이 얼마나 다수거나 감정적일지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결정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자유 사회는 분쟁이 힘에 의해 해결되도록 허용하지 않으므로, 각 측은 그저 다른 쪽의 견해, 행동 그리고 생활양식을 관용해야만 한다.

그것은 도덕적 무관심(moral indifference)과 같지 않다. 아이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지 않는 부모는 관용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 아이의 도덕 교육을 무시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성인들이 우리가 충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들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비록 그들을 강제해서는 안 되지만—그들이 다르게 행동하도록 설득하려고 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용은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사람들이 도덕에 관해 의견이 같지 않고 도덕들 사이에서 선택할 객관적인 방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도덕이 똑같이 타당하다는 사상—와 같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 혹은 종교 규범이 다른 사람들의 것들보다 더 낫다고 믿을 완전한 자격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강요할 자격이 없다.

관용, 이질성 그리고 선택

주민들이 점점 이질적으로 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더 쉬운 국제 여행, 낮아지는 이민 장벽 그리고 우리의 더욱 세계화된 경제는 많은 국가들의 주민들이 몇 십 년 전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해진 이유들 중 그저 몇몇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선택으로 상이한 인종, 문화, 국가, 언어 혹은 종교 집단들이 더욱더 분리되어 관용을 서서히 해칠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같은 인종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랄지 모르는데, 만약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저 정부 당국에 의해 정해진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분리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정부가 학교 장소를 할당할 때 학교들이 *덜* 통합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보통 가장 가까운 학교에 보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민족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의 곁에 사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혼합 결여를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른 이웃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지 모르고, 아니면 학력이나 음악적 재능이나 언어 능력과 같이 그들이 민족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어떤 다른 특성에 고르는 학교를 선택할지도 모른다.

민족적 분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같은 집단으로부터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공동체들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에는 온갖 차이가 있다. 가장 나쁜 민족적 긴장은 다른 집단들이 누리는 권리와 이득이 어떤 집단들에게는 부정되는 곳에서—바꿔 말하면, 자유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위반될 때—일어난다.

관용에 대한 근본주의 위협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은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혹은 종교적 근본주의(fundamentalism)다. 말하자면, 강한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나 혼전 성 관계를 역겹거나 부끄럽거나 충격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할지 모른다. 그들은 신성 모독, 신의 영상을 만드는 것, 종교적 경전들을 부정하는 것, 종교의 도덕률을 거부하는 것 혹은 어떤 다른 종교를 고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순전한 악으로 간주할지 모른다. 이것을 그들은 그러한 행동들이 불법화되고 처벌될 충분한 이유로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역겨움이나 충격을 야기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종교적 근거에서 얼마나 사악한 것으로 판단될지 몰라도, 그것들이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할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자유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금할 권한이 없다. 다시, 이것은 교인들이 이런 행동들을 비판하고 그것들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든지 그것들의 실행자들을 종교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는 것을—물론 이것 중 어느 것도 협박이나 실제 피해로 전환되지 않는다면—막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들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견해들과 행동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억압하거나, 검열하거나, 체포하거나, 투옥하거나, 고문하거나, 해치거나, 추방하거나, 처형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

많은 세계 종교들의 창시 경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받아들이는데, 하기가 약간의 경우들에는 당국이 자기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들을 다르게 해석했다. 한 영토를 점령한 외국 강대국들은 종종 그것의 종교도 점령했고, 그것의 도덕 및 사법(司法)

규범들을 자기들 자신의 행정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봉사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몇몇 전체주의 정부들은 심지어 종교를 자기들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대한 경쟁자로 보면서 종교를 전적으로 억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유 사회에서는 문제의 근본주의가 종교적인지 이데올로기적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행동, 도덕, 종교 혹은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들을 강제할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정치적 올바름

관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더욱 미묘한 위협이 있다. 이것은 어떤 지배 엘리트의 태도와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개인들에게 사회적 및 정치적 압력이 부과되는 곳이다. 흔히, 지배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거나 사악한 것으로 풍자 묘사되는데, 그 목적은 그들의 견해들도 역시 미쳤거나 사악한 것으로 오염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견해들이 토론되기보다 편리하게 잊힐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엘리트의 견해들이 실제보다 더 견고한 것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미묘한 형태의 강제에 의존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염되어서 그들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예를 들면,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의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학 교수들은 대학에서 일자리나 승진을 거부당할지 모른다. 자유 사회에서는, 물론 고용주들은 자기들이 마음

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매체도 논쟁적인 이론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교육 기관이나 매체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독점 혹은 준(準)독점 기업인 곳에서는 소수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는 것은 실질적 강제에 해당한다.

관용과 진리의 탐구

자유 사회에서의 관용은 종교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이점들의 관용을 훨씬 넘어선다. 예를 들면, 그것은—언론, 저술, 방송 혹은 어떤 다른 매체에서건—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것은 그 다음에는 검열의 부재를 함축한다.

약간의 사람들은 검열이 없는 세상을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으로 간주할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매우 자유로운 세상에서 개진될 수 있을 말, 영상, 논거 그리고 견해에 대해 대단히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 사회에서는, 설사 우리 거의 모두가 이야기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슬리게 여기거나 그것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 언론을 막고 사람들의 견해를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처럼—만약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야기한다면 자유 언론을 약간 억제할 논거가 있다. 이와 같이 무모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의 위험을 무릅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처벌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비슷

하게, 아이들을 타락시킬지 모른다고 우리가 믿는 말이나 영상으로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한다. 말하자면, 노골적인 마약 광고가 학교 근처 광고판에 게시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곤란하게 할 것들을 저도 모르게 우연히 만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영화 분류(movie classifications) 같은—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옹호할 강력한 논거가 있다.

그것은—특정 말, 영상, 논거 그리고 견해가 전혀 공표되지 않게 막는—노골적인 검열과는 매우 다르다. 자유 사회는 공개성과 선택에 기초해 있으므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그러한 검열이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자기들에게 이용 가능한 선택 대안들을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의 미래를 향상시킬지 모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검열은 그런 선택 대안들과 선택들을 차단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보를 거부한다.

우리는 또한 검열자들을 믿을 수도 없다. 진실과 권한은 서로 다른 두 개다. 집권자들은 일정 견해들이 방송되는 것을 금지할—자위(自衛)와 같은—자기들 자신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설사 검열자들이 마음속으로 대중의 최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혜를 독점하고 있지 않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에 관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토론, 논쟁 그리고 경험만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검열자들은 그저 실수만으로도 진실을 억압할지 모른다. 그들은 결국 옳은 것으로 판명될 견해들을 자기

들이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어떤 견해들은 틀릴지 모르지만, 논쟁으로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진실을 포함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견해들의 진실은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명백해질지 모른다.

우리가 진실이고 유용한 견해들을 억누르지 않도록 보장하는 길은, 그것들의 가치들이나 결함들이 토론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믿고서, 모든 견해들이 공개되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다수파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들에 관해서조차도, 자기들의 논거를 주장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은 오직 그러한 경쟁으로만 강화될 수 있다. 1587년부터 1983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인으로 지명되는 사람에 대해 반대 심문하기 위해 ‘시성(諡聖) 조사 심문 검사(devil’s advocate)’를 임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의 확신을 의문에 노출시키는 것은 유용하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을 틀렸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견해들을 침묵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대전(對戰)하여 기각시켜야 한다.

소크라테스 이래로, 역사는 자기들의 견해로 박해받은 사람들의 예들로 가득하다. 그러한 박해는 종종 사람들을 울려서 입 다물게 하는데, 비록 그들의 견해가 후에 증명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호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자기의 혁명적 이론을 1543년 자기의 사망 직전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그의 추종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소의 재판을 받았고 자기의 여생을 가택 연금으로 보냈

다. 그러한 박해는 진리, 토론 그리고 진보를 억압한다. 그것은 박해 받는 이단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고 그저 지배적인 견해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한 견해들은 매우 불안정한 기초에 의존한다. 그것들의 수용은 무비판적이다. 그것들은 의미 있는 진리가 되기보다 진부한 말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견해들이 결국 정말 돌파할 때는 그 돌파는 격렬하고 분열적일 것 같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말하거나,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믿는 견해들을 사람들이 표현하거나, 우리가 대단히 충격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도덕적 및 종교적 신념들을 사람들이 조롱하기조차 할 때, 그것은 불안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용은 자유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고, 상이한 견해들이 억압되기보다 토론되게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더 진보하고 새로운 진리를 더 빨리 발견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보여준다.

금지

만약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금지된다면 우리는 격노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다수의 그것들이 이미 금지되고 있다.²

2 금지에 관한 탁월한 논의에 대해서는, John Meadowcroft (ed.), *Prohibitions*,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2008을 보라.

무해 원칙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위험이 있지 않은 한 우리가 행동들을 막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활동들은 그것들이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근거에서 금지된다. 이것은 마약 복용, 흡연, 음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의 금지의 배후에 있는 논거다. 문제는 사람들을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서 구해 준다는 정당화 이유가 거의 어떤 활동이든 금지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설탕을 포함한 음료를 마시거나, 지방분을 함유하는 음식을 먹거나,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하거나, 매음이나 동성애에 종사하거나, 다른 종교를 채택하거나, 권위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하기는 너무 쉽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할 때, 일단 원칙이 상실되면, 자유 자체가 억압되는 것은 오래 걸릴 리가 없다.

금지는 종종 실제적으로 해로운 결과도 가지고 있다. 일정 물건들의 수요를 지하로 몰고 감으로써, 그것들은 감시하고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그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개입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미국은 술을 공급하는 것이 범죄였던 1세기 전의 금주 시대(Prohibition years · 1920-1933년—유킴이 주)에 권력이 자란 범죄 마피아의 존재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도박과 매춘을 계속해서 불법화하는 것은 그런 범죄 분자들을 더욱 촉진했고, 이들은 이런 서비스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기꺼이 공급한다.

금지는 또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의 효과들을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약을 수요하지만, 만약 마약이 불법이라면, 그것의 위험들에 관해 좋은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 또한 자기들이 사고 있는 것의 질을 사용자들이 검사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마약에 정말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의료적이거나 사회적인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 자신의 범죄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독되지 않은 주삿바늘을 통해 감염되는 AIDS의 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들에 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약의 불법성은 안전한 환경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마약이 끼치는 피해의, 대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마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³

이와 같은 금지는 다른 면에선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그들은 쾌락을 위해 마약을 사용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데서 아무런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 이 어느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사소한 범죄로 법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더 중대하면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범죄를 무릅쓸지 모른다.

금지는 거의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금주는 단지 음주를 그것이 통제될 수 없었던 지하로 몰고 갔을 뿐이다. 세계 곳곳에서 엄격한 마약 단속법들과 마약 거래에 대한 큰 처벌들은 수 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를 막지 못했다.

3 Milton Friedman and Rose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1962에서 강력하게 주장된 점.

흔한 행동을 근절하려고 하는 것은 낭비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에 대한 위협인데,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어떤 영향이든 미치려면 거대한 감시 및 집행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법 집행 자원을 진정으로 해로운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서 벗어나게 할 뿐이다. 그것은 또한 경찰과 법원에서 부패의 기회를 열기도 한다. 비록 도박이나 마약 복용으로 별로 혹은 전혀 손해가 끼쳐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들에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관리들이 큰 뇌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처벌은 클지 모른다.

질문: 우리는 사람들을 자신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는가?

없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 법에 관해 당신이 당신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데, 우리가 무릅쓰는 위험을 판단하는 데 멀리 있는 관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데, 정부는 모든 사람이 해롭다고 동의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원칙이 양보되면, 정부는 모든 것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지방분을 함유한 음식을 먹거나, 설탕을 포함한 음료를 꿀꺽꿀꺽 들이켜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운동을 하고, 위험한

스포츠를 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도록 법에 의해 강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위험한’ 책들을 읽는 것이나 우리의 통치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가? 자유 사회에서 대답은 *아니다*이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도덕을 거스르고 있거나 위험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공 행동과 사적 행동

자유 사회의 규칙들은 공공 행동을—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를—지배한다. 그렇지만—오직 해당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사적 행동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오직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에만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자유 사회에서는 실제 피해나 피해의 위험이 진정한 것이도록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독물을 판매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에게 해를 수반하지 않는 많은 용도들을 독물이 가지고 있음을 전제할 때, 그것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보다 그것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더 많은 해가 끼쳐질지 모른다. 자기들이 적발될 것 같다는 것을 독살자들이 알도록 독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할 것을 옹호할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뿐이다.⁴

공공장소 취태(public drunkenness)를 금하는 규칙이 존재해야 할까? 혹은 매춘굴이나 도박장의 운영을 금하는 규칙은? 만약 그것들이 폭력을 야기한다면, 그러해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국가들이 그것들에 면허제를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개 이런 활동들은 오직 해당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친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의 생각을 역겨워할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기하는 객관적인 피해 외의 어떤 것에 근거하여 활동들이 금지될 수 있게 허용한다면, 어떤 인간 활동도 도덕주의자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사람들은 종교상의 축제일에 장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혹은 일부다처에 종사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 자신과 관계있지, 우리와는 관계없다.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유 사회의 법들은 개인들의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도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사회에서는, 무해 규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지에서 자기 자신의 규칙들을 설정하도록 허용된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쇼핑 몰과 같은) 어떤 공공장소들은 정치 당국에 의해 통제되기보다 사적으로 소유된다. 그리하여 2005년 동남 잉글랜드의 블루워터(Bluwater) 쇼핑센터는

4 이 점과 아래 점들은 John Stuart Mill, *On Liberty*, 1859, in John Stuart Mill, *On Liberty and Other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8에 잘 언급되어 있다.

육설, 흡연, 전단 배부 그리고 (뺨개로 가린 상의와 같이) 얼굴을 가리는 의복 착용을 금했다. 중심 잉글랜드의 본빌(Bournville)—초콜릿 제조업자 조지 캐드버리(George Cadbury)에 의해 창설되고 그의 원칙들에 여전히 충실한 개인 신탁(private trust)에 의해 운영되는 공장 마을(factory town)—에서는 공개적인 술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블루위터와 본빌이 사적 소유지이므로, 그것들은 완전히 자기들 권리 안에 있다.

이타주의의 문제

많은 사람들은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가 관련자들의 자기 이익에 근거하여 작동된다는 생각으로 걱정한다. 그들은 대신 이타주의(altruism)—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복지에 대한 이기심 없는 관심—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문제들을 초래한다.⁵

다른 사람들을 돕는 안내가 없다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가치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5 이것의 더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Mao Yushi, 'The Paradox of Morality,' in Tom G. Palmer, (ed.), *The Morality of Capitalism*, Students for Liberty and Atlas Foundation, Arlington, VA, 2011을 보라.

확실히 큰 실수를 할 것이다. 완전히 부적합한 생일 선물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면 누구든 심지어 가족과 친구도 한 사람의 기호를 얼마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안다. 주는 문화는 전체 사회를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인 토대인 것 같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을 혹평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설사 우리가 선물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겉으로 고마운 척하면서 선물을 받는다. 이것은 이타적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사람들이 결코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 이익에 근거한 경제와 현저하게 대조적인데, 거기서는 만약 자기들이 공급자로부터 원하는 것을 고객들이 정확하게 얻지 못하면, 그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자기들의 거래를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위협한다. 자기 이익으로 공급자는 정확하게 맞는 제품을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값싸게 주는 것에 집중한다.

이타주의는 갈등을 낳는다

만약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영업 거래의 동기라면, 오늘날의 자기 이익 세계에 존재하는 만큼 많은 긴장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구매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더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요구할 것이다.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가격을 낮게 설정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의 그저 경상(鏡像)일 뿐이다.

시장 경제에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갈등을 교섭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유일한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을 것이다. 각 이타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만들기를 고집할 것이다. 어느 쪽도 거래로부터 이득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자기들 자신의 필요의 긴급성은 그들이 합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이익과 비용 편익

자기 이익으로 제공자들은—그리고 고객들도—거래의 편익이 그것의 비용을 넘도록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는 이타적 공급자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오도하는 신호—자기의 시간과 전문 지식이 0의 비용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고객들은, 이 신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내 자기들의 수요를 가지고 공급자들을 압도할 것이다. 공급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절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인데, 설사 그것의 편익이 한계적이거나 비용에 비해 작아진다 하더라도 그렇다.

예를 들어, 가죽 세공인들은 수선할 물건을 가진 사람들의 끊임 없는 행렬에 직면할 것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에서는, 그러한 상인들은 고객들에게 그들의 물품이 수선할 가치가 없는지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가격을 아주 높이 불러서 고객이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하게 할 것이다. 시

장은 수요를 관리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노력을 집중시킨다.

이타적 세계에서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일들—말하자면, 집 짓는 일—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려고 돌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과 비용-효과성 면에서는, 이웃이 친구들의 미숙련 노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에 가서 전문적인 주택 건축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만약 그런 이웃들이 다른 종류의 일에 자기 재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손실은 더욱 악화된다. 시장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자기 시간과 기술을 그것들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입하게 한다.

질문: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여유가 있도록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 되는가?

안 된다. 가격은 희소성의 신호다. 가격은 어디에 잉여가 있고 부족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가격은 생산자들에게 제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그들이 소비를 줄이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격 통제는 이런 신호를 억압하고,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부족이 생긴다. 이것은 흔히 부족한 제품의 배급을 초래하는데, 후자는 더욱 덜 효율적이다.

하나의 예가 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한 임대료 통제이다. 그것이 실제로 하는 일은, 자기들이 받는 임대료로는 자기들이 임대할 가치가 없다고 소유자들이 결정함에 따라, 주택을 더

나쁘게 혹은 이용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필수 품들을 살 돈이 없다면, 최상의 해결책은 시장 메커니즘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사적 자선을 통해서나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는 최저 소득 계획을 통해서—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과 같이 바로 그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다.

시장의 도덕

자유 시장 경제가 자기 이익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비도덕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들과 협조함으로써만이 부유해질 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은 처벌받는다. 기꺼이 거래하는 더욱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있을 때 왜 누가 사람을 싫어하는 무례한 사람과 거래해야 할까?

또한 시장들이 강제 없이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칙들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규칙들은 모든 특정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시장들은 불가피하게 신뢰에 의존하고, 그것들은 신뢰할 수 있고 의지가 된다는 평판을 가진 사람들을 보상한다. 비록 그 추진력은 자기 이익일지라도, 시장들은 서로에게 이로운 도덕을 촉진한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

많은 사람들은 기업들이 더욱 도덕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법인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주창한다. 많은 대규모 국제적 기업들은 지금 자기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들을 발간한다.

그러나 오직 *개인*들만이 책임감이 있거나 무책임할 수 있고,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다. *집단*들은 자기들 자신의 별개의 도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 읍, 인종, 부족, 클럽 혹은 회사는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수 없—고, 그것의 개인 구성원들만이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일 수 있—다. 확실히, 우리는 기업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조직에서 도덕적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도덕과 책임은 행동들에 반영된다—그리고 행동들은 집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 운동은 실제로는 시민 및 복지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려는 시도이다. 기업들은 지역 학교들, 공동체 집단들 등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적으로 사리에 맞을지 모른다. 결국, 그들은 지역 학교들로부터 신입 사원을 모집해야 하고, 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신규 모집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임원들과 주주들에 의해 기꺼이 이루어지는 기업 결정이어야지, 윤리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기업이 철저하게 경쟁적이면, 어떤 경우든 그 기업의 상업적 전망에 이바지하지 않는 지역 사업들을 지원할 여유 자금이 없을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에 떼어 둘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시장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예를 들면, 정부 규제가 그 회사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진정으로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겉치레 지역 사업들을 폐기했으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윤을 취한 다른 기업들에게 질 것이다.

또한 실업가들은 자기들이 공동체 사업들에 바치는 돈이 사실상 잘 쓰이도록 확보하는 데 특별히 능숙하지도 않다. 그들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버는 자기들의 핵심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는 자선을 할 여유가 있게 만드는 일반적인 부를 발생시킬 것이다.

8 민영화와 세계화

이민과 기술

세계의 개방

지구에서 한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모퉁이들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그리고 기타 통신들은 다른 문화, 생활양식, 인종, 국민, 국가 그리고 정부 체제를 우리에게 더 가깝게 가져온다. 항공 여행과 더 빨라진 육상 운송은 더 많은 곳들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정부들이 자기들의 잘못들을 감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가 자기 자신의 단점들을 자기 국민들이 모르도록 유지할 것을 기대하여 자기의 영토 주위에 장벽을 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나 위성 접시로 잡은 외국 TV 방송을 통한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과의 일상적인 접촉 덕분에, 그런 국민들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의 눈부신 기회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남아 있으려는 자기들의 시도를 포기했다. 그들은 지금 여행객들과 기타 방문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지난 몇 십 년간, 러시아, 중국, 베트남,

버마(미얀마)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들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제 공동체의 훨씬 더 개방적인 회원들이 되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1/5은 자기들의 생애의 약간의 기간 동안 해외에서 산 적이 있다.

사상의 교환

이 신세계에서 여행을 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다—*사상*들도 그들과 함께 히치하이크한다. 여행객들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매우 다른 세상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 고장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서 여행자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란다. 만약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위성 TV에 접근할 수 있다면, 자기들이 듣는 이야기들은 자기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에 의해 확인된다.

무역도 똑같은 영향을 끼친다. 일단 어느 국가가 국제 무역에 개방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알고 보니 다른 문화들의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친구가 되어 있으며, 다른 생활 방식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정부에 대해 더욱더 개방하라는 압력을 강화한다. 실제로 자유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진보를 촉진하고 번영을 확산하는 그것의 엄청난 힘을 이해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 진보와 번영의 약간을 원한다. 기술, 무역, 이민, 여행 그리고 세계 시장들은 모두 자유 사회의 사절들이다.

자유 사회를 기르기

하향식 자본주의는 안 된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자유 사회를 창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들과 국제 원조 기관들은 종종 전체 행정 관료제를 대체한다거나 대규모 정부 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과 같이 큰, 굉장한 변화들을 찾는다.

종종 이러한 접근법은 완전한 실패작이 된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문화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시장들과 경쟁에 관한 지방적 이해가 없어서, (1980년대 후기의 멕시코의 새 민영화 구상과 같이) 많은 새 민영화 구상들은 그저 국가 독점 기업들을 연고자들의 수중에 옮겼을 뿐이다. 대중에게는, 이 연고 자본주의는 앞서 갔던 국가 연고주의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연고주의는 심지어 법원들에 의해 도전받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들이 국가 통제 문제에 냉소적이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기업 해결책이라고 추정되는 것들에도 냉소적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급진주의자들과 혁명주의자들만이 엘리트들이 아니라 대중에 이익을 줄지 모를 신선한 접근법을 제공한다고 믿게 될지 모른다.

자유의 상향식 운전자들

‘하향식 자본주의(top-down capitalism)’는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제도들을 창설하고 지탱하는 근본적인 태도, 행동 그리고 유인을 바꾸지 않고 사회적 제도들의 외관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유 사회의 창조성과 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함께 살고 행동하는가를 결정하는 법적 및 도덕적 규칙들의 패턴에서 생긴다. 만약 우리가 행동 규칙들의 그러한 패턴을 도입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규칙들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면, 전체 대중의 타고난 에너지와 야망은 체제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 자신을 가지고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것, 안전한 재산 소유권을 가지는 것, 생산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규칙들과 유인들을 창출하는데, 이것들은 곧 경제 성장을 낳고 체계적인 사회 개혁을 자극할 것이다. 사람들은 작은 회사를 시작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며, 성공할—재정적 이익뿐만 아니라 더 큰 자신감도 달성할—것이다. 더욱 자신감 있는 사회는 관료제와 정부 산업들을 개혁하는 것과 같은 큰 제도적 문제들과 더 많이 씨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 국가 제도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거시 수준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체 제도적 짜임새 여기저기에 체계적 변화를 일으킬 유인들을 구속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미시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¹

작동 중인 재산권

페루에서의 재산권

흥미로운 예는 1990년대 초기 대개 경제학자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에 의해 추진된 페루에서의 *재산권 개혁*이다. 데 소토는 페루에서 관료제와 부패의 결과로 새로운 회사를 등기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도 비슷하게 어려웠다. 그 결과는 수백만의 소규모 기업가들이 자기들의 농장, 작은 회사 혹은 집을 합법적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 은행 용자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나 회사를 팔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 혹은 회사 분쟁들을 해결하는 데 법원을 사용할 수 없었다.

요컨대 페루에서는 두 경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법 안에 있으면서 정당성과 법적 보호의 모든 경제적 편익들을 누리고, 다른 것은 자기들의 집과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의 함정에 빠진 수백만의 기업가들을 포함하였다. 정부는 수입을 잃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초법적 소규모 회사들에 대해 세금을 사정하거나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법적 보호를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업가들은 범죄자들과 공산주의자 빛나는

1 나는 애덤 스미스 인터내셔널(Adam Smith International)의 피터 영(Peter Young)과 스티븐 J. 매스티(Stephen J. Masty)에게 이 점에 관한 그들의 전문가적 통찰들에 대해 감사한다.

길(Shining Path) 게릴라들에 의해 쉽게 착취되었다.

데 소토나 기타 학자들이 제 자리에 둔 해결책은 새로운 회사를 등기하는 데 수반되는 관료적 규제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획득해야 할 대부분의 면허들과 허가들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백만을 넘는 페루 가족들이 토지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토지 개혁도 있었다. 그 결과, 작은 회사들의 효율성은 증가했는데, 소유자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소유지를 사고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본과 저금을 획득함에 따라, 주택 수준은 향상되었고, 부모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더 많이 지출하기 시작했다.

개혁들은 비판이 없지 않았다. 누가 비공식적으로 무엇을 ‘소유했는지(owned)’ 확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부여가 불공정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했다. 토지 소유권 부여가 더 가난한 소규모 불법 점유자들에 비해 대규모 불법 점유자들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소유권 부여가 가장 가난한 농부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공유지를 잠식했다고, 혹은 소유권 부여가—비록 비공식적이었지만—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었던 토지 보유권 제도를 서서히 해쳤다고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토지 개혁이 ‘마법의 해결책(silver bullet)’이 아니었으며 경제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국민들의 문화가 그들의 열망에 부과한 한계였다고 주장했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잘 기능하는 시장을 수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수족관으로부터 생선 수프를 만들기는 쉽지만, 생선 수프로부터 수족관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른 국가들은 페루의 개혁들을 복제하려고 했고, 데 소토 자신은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자문했다.

조연역의 개혁들

그러나 잘 기능하는 재산권이 결정적이지만 다른 조연역의 개혁들도 역시 확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능하는 *용자 및 소액 용자 시장(credit and microcredit market)*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번거로운 규제와 관료제는 쉽게 억제할 수 있다. (소액 용자의 흥미로운 예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Grameen Bank)인데, 이것은—토지가 없는 여성 기업가들이 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공중전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용자를 포함하여—시골 회사들에게 소액 용자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분쟁을 빠르고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법체계가* 존재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입법자들이 국가 법체계에 대한 특정 개혁들을 안출하여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개별 사건들로부터 축적된 관습법이 훨씬 더 빠르고, 지방민들의 정의감과 합치하는 일단의 기성 선례들을 가진 지방 법체계가 이미 제 자리에 존재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권 구조, 개인적 책임, 주주권 그리고 파산 제도와 같이,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입안할 필요가 정말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시장들에 대한 진

입을 막는 규제를 줄일 필요도 또한 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이전에 외부 세계에 대해 대개 폐쇄적이었던 국가인 네팔의 통치자들은 민간 회사들이 전화망을 운영한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에서 자기들의 전화망의 노골적인 판매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는 새로운 면허들을 발급하기로 동의했다. 이러한 새로운 참가자들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네팔은 지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최첨단 전화망을 가지고 있다.

작은 회사들과 새로운 시장 참가자들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을 증대시키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예들이 더 많이 존재할수록, 자유가 소득과 부를 창출할 엄청난 잠재력을 사람들은 더 많이 이해할 것 같다. 그것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수록, 급진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강제적일 대안들을 사람들은 덜 동경할 것이다.

농업 개혁

작동 중인 재산권의 위력의 한 예는 소련,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농업 개혁이다. 그들의 공산주의 정부들은 토지와 농장 기업들(farm enterprises)의 공동 소유를 중심으로 농업을 건설했다. 공동 자치 단체들(communes)은 토지를 사용하고 경작할 권리를 통제했고, 평등주의적 분배 체제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작이었다. 공동 자치 단체들은 거대했고 다루기 힘들었으며 관료적이었

다. 그리고 개인들은 자기들의 노력의 과실을 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혹은 더 생산적으로 일할 유인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록 공동 소유의 원칙을 포기하기를 주저했지만, 중국은 1970년대 후기 이 참담한 소비에트 모델과 결별했다. ‘가구 책임제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가 도입되어, 가족들은 자기들 자신의 특정 패기의 토지를 경작했다. 이것은 노력과 보상 사이의 연결을 회복했다. 중국의 농업은 호황을 이루었다. 1980년대 초기 농업 산출량은 빠르게 증가하여, 곡물에 대해서 거의 5퍼센트, 면화에 대해서 8퍼센트 그리고 유지(油脂) 종자에 대해서 14퍼센트의 연간 증가가 있었다.²

그러나 이 초기의 진보는 지속되지 않았다. 그 제도는 여전히 결함이 있었다. 토지 질의 차이를 균등화하기를 기대해서, 당국은 하나의 큰 패기의 토지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패기들의 토지를 가족들에게 주었다. 각 가족의 노력이 대여섯 구획들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서, 더 나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심지어 구획들 사이의 길들도 경작 지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분배 제도는 가족들의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술적인 토지 소유권은 바꾸지 않은 채 남겨 두지만—토지를 경작하고 그것으로부터 작물들과 소득을 얻을 장기 권리들을 가족들에게 주며, 그 권리들을 다른 가족들에게 넘기는 장기 권리

2 세목에 대해서는, Wolfgang Kasper, ‘Sichuan experiment,’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7, February 1981, pp. 163-72를 보라.

들을 가족들에게 주는—토지 사용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이 제도는 자유 시장 혹은 재산권 관점으로부터는 완전하지 않았다. 국가 조달 및 가격 설정 제도는 농부들이 자기들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 자신의 노동의 모든 과실들을 향유할 능력을 서서히 해쳤다. 진정한 토지 시장이 없어서, 여전히 작은 구획들의 통합은 너무 적었다. 그러나 점차 토지 사용에서 시장과 같은 어떤 것이 열렸다.

예를 들면, 북부 구이저우(貴州·중국 서남부 윈구이(雲貴) 고원에 위치한 성(省)으로 면적 약 17.4만 km²에 성도는 구이양(貴陽)—옌진이 주) 메이탄 현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관리들은 토지 사용권을 20년으로 설정하여,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도왔다. 농부들에게는 자기들의 토지 사용권들을 양도하고 교환하며 토지 구획들을 합병할 권한이 주어졌다. 그리고 경작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하려는 유인이 있었다. 그 결과, 더 많은 토지가 경작되게 되었고, 가족들이 토지를 더 잘 돌보았기 때문에 토지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현대 장비가 도입되었다. 1995년, 국가 정부는 다른 마을들에게 메이탄 예를 따르도록 권유했고, 토지 재산권 제도와 비슷한 어떤 것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물 권리

물은 재산권이 정부보다 더 잘 배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희소한 자원이다. 미국의 건조한 서부 지역에서는, 가뭄의 위협은—물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물을 배분하는 고도로 규제되는 체제 때문에—한 때 흔했다. 예를 들면, 작은 강으로부터 처음 물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은—설사 물에 대한 그들의 필요가 조금이라 할지라도—계속해서 물을 추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90년대 초기, 몬태나와 애리조나 같은 주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물 권리들(water rights)을 거래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이 시장을 방해하는 많은 규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물이 그것의 가장 가치 있는 용도들로 가도록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자원들에 대한 권리들이 사고 팔릴 수 있으므로, (물을 덜 사용할 수 있거나 재생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적 사용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담수 추출권을 더욱 긴급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긴다. 이 제도의 편익은 아주 커서 물 권리 시장은 이제 전 서부 미국에 확장돼 있다.

민영화의 역학

국가 통제 산업들은 종종 독점들인데, 이것들은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들은 열악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고 정말 매긴)다. 비록 그것들이 통치자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어떤 기관에 의해 관리되므로, 그것들은 여전히 통치 엘리트들이나 그들의 친구들에 의해 보통 통

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란의 *본야드들(bonyads)*은 부동산 개발, 농업, 제조업 그리고 해상 운송업에서 이란 경제의 대략 5분의 1을 통제하는 자선 신탁들(charitable trusts)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원래 샤에 의해 창설되어, 그것들은 진정한 자선 단체들이 아니라 행정부 자신의 관직 분배와 이윤을 위한 수단이라고 널리 비판받았다. 그렇지만 1979년 혁명 후에 후임 정부는 그것들이 너무 이익이 많아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지속되었고, 특별한 세금 우대 조치들과 정부 보조금들을 누렸다. 참으로, 몰수된 사적 재산이 그것들에 보태졌다.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생각이었지만, 그것들의 주요 수혜자들은 당국자들인 것 같았다.

국가 운영 회사들을 민영화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과 경쟁의 동태적 효과들을 관료적 독점들에 도입 *해야 하고*, 부패를 상업적 개방으로 대체 *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이런 산업들의 자본을 대중에게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달성하는 데는 비전, 정력 그리고 면밀한 정책 공식화가 필요하다.

단일의 메커니즘은 없다. 국가 운영 회사들을 민영화하는 것은 경제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산업은 다르고,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산업들은 종류와 규모가 다르고, 개혁을 막는 상이한 이익 집단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주민이 의존하고 있는 수도나 전기 같은 공익사업에 대해 취하는 접근법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비교적 별로 많지 않은 제조 회사에 대한 접근법과 아주 달라야 할 것이다.

더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상업적 운영자에게, 특히 신선한 생각과 자본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 운영자에게, 파는 것이 실제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 회사들을 외국인들에게 파는 것은 논쟁적일 수 있다.

더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식을 팔아 소유권을 널리 대중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폭넓은 교육 실습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저 초기 단계의 주식 시장만 있을지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후, 러시아는 ‘바우처 민영화 (voucher privatisation)’에 착수했고, 이것은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국가 기업들의 주식들을 똑같이 주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식들을 싼 값으로 팔았고, 통제는 결국 사업 ‘과두자 (oligarch)’라는 새로운 엘리트 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시장 원칙들의 도입

민영화 과정의 일부로서 독점을 분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들은 회사의 독점을 손대지 않은 채 회사를 파는 것으로부터 자기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독점 권력은 일반 대중에게는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 만약 국가 독점이 경쟁하는 성분들로 분할된다면, 정부와 국민 양쪽 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기업들은 자기들의 독점 전임자보다 더 강건하고 동태적이며 혁신적일 것이다.

1996년의 과테말라 전화망 민영화는 그 과정에서 경쟁이 중요함을 설명하는 예가 된다. 거기서는, 장거리 통신 시장은 장거리 통신 독점이 민영화되기 전엔 경쟁에 개방되었다. 전파도 역시 민영화되어,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창출하였으며, 새로운 통신 회사들은 이것을 쉽게 사고 사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경쟁의 엄청난 확대여서, 더 많은 선택과 더 넓은 유효 시정 범위를 가져왔다. 가격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동 전화 사용자들의 숫자는 불과 10년 후 몇 백 배로 증가했다.³

그것을 바르게 하기

개혁자들이 민영화의 정치학과 역학을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적 경험—과 전문 지식—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충분히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대중이 그것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몇몇 정부들은 외국 투자자들을 불러들였지만 국내 주민에게는 어떠한 소유 기회들도 개방하지 않고 수도와 은행업 같은 공익 산업들을 민영화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순진할 뿐만 아니라 평등 대우라는 자유 사회 원칙에도 어긋난다.

더군다나, 만약 소유권이 널리 분산되기보다 좁게 유지된다면,

3 Wayne A. Leighton, 'Getting privatisation right: a case stud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blog, London, 2013을 보라.

민영화된 산업들이 정부 당국자들의 연고자들에 의한 통제로 되돌아 갈 위험이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추가적인 민영화의 의도를 해칠 것이고 시장 원리들을 다른 정부 운영 부문들에 도입하려는 운동을 방해할 것이다. 대중은 어떤 새로운 구조도 부패한 엘리트들이 아니라 고객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많은 경쟁을 가능한 한 일찍 도입하는 것은 그것을 보장하는 좋은 길이다.

정부 없는 인적 서비스

어떤 정부 서비스들—특히 보건, 교육 그리고 복지의 ‘인적(human)’ 서비스들—은 오직 정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추정¹이 있다.

그런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너무 중요해서 시장에 맡길 수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사실상, 그것들은 너무 중요해서 정부에 맡길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금을 과세로부터 조달할 때, 그들은 경쟁적인 민간 제공자들이 해야 하듯이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예산을 증대시키는 길은 정치가들에게 로비하거나 자기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혼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그들의 초점은 정부에 있지 대중에 있지 않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 기관들이 보통 직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한다. 종종 정부의 행정 기관들

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 그래서 정부 부문 제공자들은 혁신하거나 심지어 자기들의 서비스를 최신으로 유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객들이 갈 다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들이 공공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자신들이 운영하고 싶은, 국민들은 항상 그들의 독점을 피하는 길들을 발견한다. 비정부 및 비공식 제공자들이 이런 중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을 더 잘 제공하—는 많은 예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

정부 없는 교육

교육을 예로 들어 보자. 사비(私費) 교육은 단지 부자들만 위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상상한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 제임스 톨리 교수에 의해 2년에 걸쳐 인도, 가나, 나이지리아 그리고 케냐에 대해 한 연구는 그 반대를 발견했다. 이 국가들의 가장 가난한 지역들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관립(non-government) 학교들에 다니고 있었다. 하이데라바드(Hyderabad ·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주도—웁긴이 주), 아크라(Accra · 아프리카 서부, 가나의 수도—웁긴이 주) 그리고 라고스(Lagos · 아프리카의 서부, 나이지리아의 수도—웁긴이 주)의 가장 가난한 지역들에서는, 단지 1/3 이하 학교들만이 관립 학교들이었다. 학생들의 2/3 이상은 사립학교들에 다녔고, 그것들의 다수는 정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비공식 학교들이었다. 민간 소유자들이 이 비관립 학교들의 대부분을 운영했다. 자선적 후원을 받은 학교들은 거의 별로 없었고 국가 재정 지원

을 받은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종종 매우 낮지만, 부모의 수업료가 그들의 유일한 소득이었다.⁴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툴리는 학력이 사립학교들에서 상당히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하이데라바드에서는, —사립 부문에서 교사 봉급 비용이 관립 부문에서의 그것의 1/2과 1/4 사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평균 수학 점수는 관립 학교들에서보다 약 1/5이 더 높았다. 다른 수준들도 비슷하게 더 높았다. 툴리는 관립 학교들에서의 교사들이 자기들 책상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교사 장기 결근은 관립 학교들에서 더 나빴다. 사립학교들은 흑판, 운동장, 책상, 마시는 물 그리고 화장실을 더 잘 준비하고 있었다. (사립학교들의 96퍼센트 이상에 비해, 관립 학교들의 단지 반만이 화장실을 공급했다.) 학생-교사 비율은 관립 학교들의 그것의 거의 반이었다.

정부들은 가난한 지역들에서 사비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정부는 산악 성(省) 간쑤(甘肅·중국 북서부의 성—웁진이 주)에서 단지 44개 사립학교들만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만, 툴리의 연구자들은 696개의 사립학교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 중 593개는 가장 외진 마을들의 61,000명의 아이들에 봉사했다. 그 태반은 학부모들과 마을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간수의 평균 소득이 연간 대략 단지 150달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4 James Tooley, *The Beautiful Tree: A Personal Journey into How the World's Poorest People Are Educating Themselves*, Cato Institute, Washington, DC, 2009를 보라.

들은 번창했다. 심지어 케냐의 키베라(Kibera)—대략 750,000명의 인구를 가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가—에서조차도, 톨리는 12,000명의 등록 학생들을 가진 76개 사립학교들을 발견했다.

명백히,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몇몇 지역들에서조차도, 민간 주도는 국가보다 교육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전달할 수 있고 정말 전달한다. 그리고 그것의 비용은 그것이 가난한 가족들에 알맞도록 충분히 낮다. 정부는 교육에 전혀 필요 없는 것 같다.

종종 광범위한 정부 운영 학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러한 경쟁과 학부모 선택의 약간을 교육에 도입하려고 열망한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1991년, 스웨덴은 정부가 기본적인 학교 교육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하지만 민간 비영리 및 영리 단체들이 자기들 자신의 학교를 설립하여, 자기들이 끌어들이 수 있는 학생들에 기초하여, 그 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가장 어렵고 가장 가난한 지역들에서—갑자기 출현한 천 개를 넘는 새로운 학교들의 효율, 혁신 그리고 질에 끼친 영향이 아주 컸기 때문에, 원래 이 개혁에 반대했던 교사 노조와 같은 비판자들조차도 지금은 그것을 지지한다. 지금은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 없는 보건의료

보건의료는 많은 국가들에서—종종 법적 특권, 조세로 재원 조달

하는 보조금 그리고 규제에 의해 경쟁자들로부터 보호되는—정부 제공에 의해 지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다. 다시, 이것은 좋은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돈과 더 큰 특권을 얻는 것에 국가 제공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미국은 종종 자신의 ‘자유 시장(free-market)’ 보건의료 제도로 생각하고 되는 것의 높은 비용 때문에 비판받는다. 그것은 확실히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제도들 중 하나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그것의 1인당 정부 지출은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조세 및 규제 규칙들은 건강 보험의 공급을 작업장에 얽매고 있어서, 이것은 사람들이 전직 중일 때 그들을 무보험 상태가 되게 한다. 반면 고용인들은 (의사들에 의해 부추겨져서) 자기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검사와 치료를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그 비용을 자신들보다 자기들의 고용주들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규제도 또한 무엇이 의료 보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판매될 수 있을지(예를 들면, 보험업자들이 자기들의 본거지 주에서만 운영하도록 제한하여, 그들이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을 규정한다. 비슷하게, 의료 업무는 대개 의사들 자신들에 의해 설계되고, 그 직업이 의사들의 공급을 제한하고 그들의 수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면허 요건들에 의해 지배된다. 이 모든(그리고 더 많은) 규제는 미국 보건의료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실제로 미국보다 더 부유한 작은 국

가—는 미국의 1인당 지출의 약 1/6을 정부 후원 보건 프로그램들에 쓴다. 싱가포르는 단지 가족들이 자기들의 소득의 약 1/5을 미래의 보건 의료, 퇴직 그리고 주택 비용들을 위해 저축하도록 요구할 뿐이다(비록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의료 필요에 대비한 정부 재원 조달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자기들 자신의 돈을 자기들 자신의 보건 저축 예금(health savings account)에 저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충분한 가치를 얻기를 열망하게 하고, 민간 의사들과 개인 병원들은 자기들의 고객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은 없다. 국민들은 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민간 제공자들로부터 구입한다. 정부의 역할은 보조금을—제공자들에게가 아니라 스스로 기본적인 보건 의료를 살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인들과 달리, 스위스 국민들은 자기들이 보건 의료에 쓰는 것에 대해 돈의 가치를 얻는 것을 열망한다. 많은 유럽인들은 스위스의 대개 자유 시장적인 제도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제도일 것이라고 여긴다.

정부 없는 복지

가난한 사람에게 최상의 형태의 복지는 유급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계획은 일자리를 파괴한다. 많은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는데, 이것은 고용주들에 대한 비

용을 증가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만든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그 다음 채용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조세 증가를 필요로 하며, 그 결과 더욱 적은 고용이 초래된다. 그것은 나선형 하강이다.

스웨덴은 20세기 중반까지 자유롭고 세금이 낮으며 번영하는 국가였다. 그 다음 1970년부터 20년 동안 그것은 자신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들을 채용 조달하기 위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1976년에, 스웨덴의 한 여성 저자는 자기의 한계 세율이 102퍼센트에 도달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높은 세금들은 근로와 기업심에 주요 반유인이었다. 그것들은 스웨덴을 20년간의 저성장의 운명에 처하게 했다가, 그 정책은 1990년대에 반전되기 시작했다.

자유 국가들은 더 부유해지는 경향이 있고, 더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적 원조에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부들이 과세를 통해 국민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자기들 자신이 설계한 복지 프로그램들에 쓰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건강하다—그리고 정부들이 편익을 자기 친구들에게 주고 세금을 자기 적들에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진정한 자선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자발적인 이전이지, 강제된 이전이 아니다.

정부 복지 프로그램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들이 의존의 문화를 야기하는 방식이다. 크고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그것들

은 진정한 자선이 하듯이 수혜자들의 필요와 잠재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따라 운영되기보다 불가피하게 규칙들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그것은 사람들을 부추겨 자기들이 자격이 있도록 확보하기 위해 규칙들을 ‘조작(game)’하게 한다. 때때로, 가난한 가족들은 더 높은 급부금을 얻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고의로 자기들의 상황을—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악화시킨다. 영국과 같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복지 국가 나라들에서는, 공무원들은 지금 제3세대 의존—자기들 전에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똑같이 했듯 급부금으로 생활하는 가족들—을 보고 있다.

민간 자선 단체에 의해 뒷받침되는 자조는 더욱 인간적이고, 동기를 부여하며, 효과적인 대안이다. 영국은 1940년대 이전에는 번창하는 근로 계급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때 복지 국가가 그것을 쓸어버렸다. 이것들은 공제 조합들(friendly societies)이었는데, 회원들은 실업 수당, 의료 보험 그리고 심지어 장례비와 같은 급부금들의 대가로 조합에 매주 기여금들을 내곤 했다. 그것들은 보통 특정 직업들에 집중했고, 그래서 그것들은 그런 근로자들의 특별한 필요를 들어줄 수 있었다. 수백만의 가족들은, 특히 가난한 가족들은, 이런 단체들 중 하나의 회원이 되기로 선택했다. 정부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는 확실히 달성 가능하다.

자선 부문의 부활

민간 자선 단체와 자선 사업은 조세로 자금이 조달되는 사회적 급

부금과 연금의 관대함을 도저히 대체할 수 없다고 진전된 국가 복지 제도들을 가진 국가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물론, 정부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관대’하기는 매우 쉽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결국 과도한 급부금들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정치가들이 지금 그것들을 약속할 온갖 유인이 있다. 그것 자체야말로 정치가들을 사회 복지에서 손 떼게 만들 타당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덧붙여서, 만약 국가 급부금들이 높으면, 가족들이 자활할 유인과 개인들이 급부금으로 생활하기보다 일을 구할 유인이 더 적어진다—만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제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것의 의도는 좋지만, 최종 결과는 사람들의 희망과 야망을 고갈시키고 그들을 의존 생활의 운명에 처하게 한다.

자유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국가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국가 복지 제도들을 훨씬 더 작고 지방적인 제도들로 분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들은 심지어 어떤 종류의 개인 계정(personal account)으로 ‘개인화될(individuated)’ 수 있다. 그것은 가족들이 자기들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하는 데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분산된 ‘제도(system)’가 아니라 현실 납세자들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도를 분해하는 것은 그것이 민간 부문 제공자들에 의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한다.

하나의 예가 칠레 연금 제도다. 1981년에, 그 나라는 약해 가고 있고 불공정한 자신의 국가 연금 제도를 개인 계정들로 분할했다.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퇴직에 대비해 저축할 의무를 졌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민간 제공자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그 제도는 저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촉진했고, 근로자에 대해 더 나은 수익을 낳았으며, 그 이후 여러 대륙들의 많은 국가들에서 모방되었다.

또 하나의 예는 싱가포르의 보건 저축 예금 제도(위를 보라)인데, 이것은 개인들과 가족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과하여,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보건 의료와 기타 필요들에 대비하도록 장려한다. 영국의 오래된 공제 조합들은 국가 급부금들을 개인적, 사적 계정으로 분할함으로써 쉽게 재창조될 수 있었을 또 하나의 모형이다.

약해 가고 있는 국가 지원 기구가 그러한 방식들로 개혁될 때, 개인들이 일을 구할 더 큰 유인이 있고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가족들의 지원에 의존할 더 큰 유인이 있다. 여전히 민간 자선 단체와 자선 사업의 필요가 존재할 것이지만, 그것은 더욱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자유와 낮은 세금은 관대할 의지와 부양쪽 다름, 큰 국가와 높은 세금이 소멸시킬 동기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좋은 방식이다.

세계화와 무역

세계화의 편익

네팔처럼, 많은 국가들은 더욱더 세계화되는 시장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걱정한다. 그러나 많은 걱정은 초점

이 어긋난 것이고, 세계화와 무역으로부터 양의 이득은 상당하다.

시장 가격 메커니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부터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무역할 수 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의 집·사무실·공장에 있는 장비는 모두 놀랄 정도로 많은 먼 국가들의 제품들이다.

그러나 시장들의 세계화는 양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것은 부유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물건들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한때 외진 국가들의 국민들이 자기들의 제품에 대해 국제 시장들에 접속함으로써 자기들 자신의 장래의 가망을 향상시킬 수 있게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 농부가 무슨 작물들을 재배해야 할까? 전에는, 작물 가격들에 관한 유일한 정보원(源)들은 지방 상인들이나 국가 기관들이었는데, 물론 이들은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지방 가격들은 기후와 같은 요소들에 따라 넓게 변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 시장들은 항상 잘 조직되지도 않았다. 오늘날, 그 농부는 이동 전화를 꺼내어서, 전 세계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시장들에서 거의 어떤 작물에 대해서도—미래 가격 오퍼들을 포함하는—시장 가격들을 열거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을 검사할 수 있다. 어느 곳의 농부들이든 지금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가격들에 조직된 국제 시장에 팔 수 있다.

뉴질랜드의 개방

뉴질랜드는 상업과 무역에 대한 규제를 포기함으로써 방향이 바뀐

국가의 예다. 1980년대 초기, 그것은 대개 그러한 규제 때문에 매우 부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984년을 시작으로, 그것은 보호무역주의를 포기했고, 자신의 국제 무역을 자유화하였으며, 자신의 시장들을 세계 경쟁에 개방하였다. 공업과 농업에 대한 보조금들도 제거되었다. 크게 규제되던 노동 시장을 포함하여 국내 시장들은 규제가 완화되었다. 노동조합원 자격은 자발적이게 되었고, 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협상에 맡겨졌다.

로비스트들, 대학 교수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조합 임원들로부터 나온—이 규제 완화가 ‘노동자 착취 공장(sweatshop)’을 만들 것이라는—불길한 예측들은 모두 그림이 판명되었다. 평균 임금은 상승했다. 임금 계약은 더욱 빠르게 확정되었다. 파업 행동은 거의 0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은 떨어졌—고, 마오리(Maori), 이민자들 그리고 기타 가난하거나 차별받는 집단들에서 아주 빠르게 떨어졌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경쟁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되었다.⁵

문화적 정체성

시장들의 세계화는 국가들에게서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한다. 특히, 미국 브랜드들의 보급으로, 한때 뚜렷이 구별되던 국가들이 우울할 정도로

5 이런 개혁들의 입안자에 의한 개설에 대해서는, Roger Douglas, *Toward Prosperity*, David Bateman, Auckland, NZ, 1987을 보라.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서양의 재화와 태도가 다른 지역들의 그것들을 압도할 것이며, 세계의 가장 높은 문화들이 어떤 가장 낮은 공통분모에 의해 압도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된다.

확실히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들은 바뀌고 있다. 한때 특정 국가에 독특했던 제품들은 지금 모든 국가들의 변화가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선택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전에 언제나 가졌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선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국민들은 한때 자기 나라가 유명했던 맛없고 지나치게 구운 음식을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제 인도, 베트남, 라틴 아메리카, 이란, 몽골, 폴란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종류들의 음식을 파는 식당, 테이크아웃 매장 그리고 슈퍼마켓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와 같은 종류의 선택들—한때는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유한 운 좋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선택들—을 누린다. 문화들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나 다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들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는 세계화로부터 문화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축하듯이 여전히 정태적이고 불변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 국가의 문화는 항상 변하는데, 한 문화가 더욱 왕성하고 활기가 있을수록, 그것은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적 관념들을 발생시키고 그것은 더욱 많이 변한다. 오늘날 가장 활기찬 국가들의 미술, 음악, 문학, 생활양식, 기호 그리고 유행은 그저 1세기 전만 해도 그 국가

들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낯설 것이다.

문화들은 다른 문화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생활과 시간에 가장 적합한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국제 무역을 통해 우리는 해외로부터의 문화적 요소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적응시키는 것을 유용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은 누구라도 세계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오래 전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변화, 우리 문화의 가장 화려한 부분들의 상실은 해외로부터의 어떤 문화적 제국주의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현대화 효과들 때문이다. 예로부터의 의식(儀式), 관습 그리고 민족의상은 세계화 때문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사라진다. 한때 특정 계절들을 기념하던 축제들은 농업 공동체들에 중요했지만 지금 우리의 반이 도시들에 사는 세계에서는 거의 별로 반향이 없다.⁶

문화들이 변한다는 것은 아마도 다행일 것이다. 많은 세계 문화들은 점령 권력자들에 의해 자기 국민들에게 강제되었고, 많은 문화는 사실상 유해하다. 늘어난 여행과 더 넓어진 질문으로 어떤 집단들이 관례적으로 학대되거나 억압되거나 차별받는 문화를 국가들이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6 이 점들에 관해서는, Mario Vargas Llosa, 'The culture of liberty,' in Tom G. Palmer (ed.), *The Morality of Capitalism*, Students for Liberty and Atlas Foundation, Arlington, VA, 2011을 보라.

질문: 부유한 국가들은 세계의 부를 너무 많이 빼앗고 있지 않은가?

빼앗고 있지 않다. 부란 당신이 기술, 기업심, 정력, 노력, 조직 그리고 투자를 통해 창조하는(create) 어떤 것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확실히 부를 소비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것을 창조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사람의 생활, 특히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약간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긴요한 제품들과 과정들을 발견하고 개발한다.

예를 들면, 의학의 진보는 결핵과 말라리아 같은 세계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의 약간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유전공학은 쌀과 기타 주요 작물들의 산출량뿐만 아니라 해충 저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새로운 재료들은 건물들을 더 값싸고 더 안전하게 하고 있다.

부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부유한 국가들이 부당한 몫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부유한 국가들로부터의 전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고 있다.

평화의 중요성

애덤 스미스는 한때 ‘한 국가를 가장 낮은 미개 상태에서 최고도의 풍요로 올려놓는 데는 평화, 만만한 조세 그리고 견딜 만한 사법(司法) 외의 다른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고 썼다.⁷

7 Duguld Stewart, *Account of the Life and Writings of Adam Smith LLD*,

틀림없이 국내와 해외에서의 평화는 번영하는 자유 경제의 요건이다. 사람들은 만약 교전 중인 민병들이나 침략군이 자기들의 재산을 훔칠 것 같다고 믿으면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적 자본을 축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국민들이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과 무역에 종사하는 국가들은 그들과 갈등을 훨씬 덜 추구할 것 같다.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한 것으로 간주되는 말로는, ‘만약 재화가 국경을 넘지 않는다면, 군대가 국경을 넘을 것이다.’⁸

평화의 편익들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다. 평화는 노력과 자원들이 파괴적인 활동들보다는 생산적인 활동들에 집중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자본 창출과 번영하는 자유 경제를 위한 조건들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 미래에 관해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문화적 및 교육적 활동에 종사할 시간, 부 그리고 자신을 준다. 그리고 평화는 사람, 재화 그리고 사상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이해, 번영 그리고 혁신을 확산—한다.

애덤 스미스의 통찰력들 중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해 우리가 다른 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의 고객들이 가난하기보다 부유하다면 우리에게 더 좋

Section IV, 25에서 인용된 1755년의 강의.

⁸ 바스티아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말은 그의 관점을 요약한다. Frédéric Bastiat, *Bastiat's 'The Law,'*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2001 [1850]을 보라.

다.⁹ 마찬가지로, 강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국가들을 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양쪽 모두 평화의 편익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평화는 때때로 싸워서 얻어야 한다. 재산과 사람들은 방어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배치하는 데는 (제한된) 정부 개입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커지게 되는 정부들은—국가의 안전에는 희생, 목적의 통일 그리고 군사적 힘이 필요하다고 암시함으로써 아마도 번영과 자유의 결핍을 은폐하려고 하면서—종종 또한 군국주의적이게도 된다. 자유 사회들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국가에 못지않게 충성스럽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대해서와 자기들의 가족, 친구, 고객 그리고 자발적 결사에 대해서—지, 독재자, 깃발 혹은 어떤 국가주의 꿈에 대해서가 아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떤 종류의 초국가적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상상한다. 차이점들이 발표되고 잠재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국제적 공개 토론장을 가지는 것은 유용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세계 정부가 우리의 기존 국가 정부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거대한 규모와 대중으로부터의 더욱더 먼 거리를 전제할 때,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남용하는 경향은 더욱더 클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 남용을 피할 수도 없다. 아니, 평화를 촉진할 최선의 길은 정부들을, 더 크게 만들 것일 아니라, 더 작게

9 ‘부유한 사람이 자기 이웃의 근면한 사람들에 대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나은 고객일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국가도 더 나은 고객일 것 같다.’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1776, Book IV, ch. III, Part II.

만들고, 대신 인간들이 평화롭게 협동하고 자기들의 상호 조건을 더 낮게 만드는 자연적 경향에 의존하는 것이다.

9 논의의 요약

자유 의 옹호 논거

자유는 번영을 창출한다. 자유를 받아들인 사회들은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회들은 가난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자유 사회는 또한 비물질적인 면들에서도 우월하다. 그것은 권력과 강제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개인들 간의 협동에 기초해서 작동한다. 그것의 시민들은 깊은 문화적, 개인적 그리고 도덕적 유대들을 공유한다. 개인 간 행동의 규칙들이 자기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그들이 이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정부들은 피지배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고, 그 정부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규칙들의 지배를 그 정부 자신들도 받고 있다.

자유 사회는 인간 재능, 발명 그리고 혁신을 속박에서 풀어준다. 그것은 전에 자유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 자유 사회가 부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자유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엘리트들이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함으로써 부유하게 될 수 없다. 그들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더 낮게 함으로써만 부유하게 된다.

제한된 정부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개인들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목적들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정부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거의 모두가 의견이 일치한다. 자유 사회의 정부는 피해가 자기 국민들에게 끼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정의—인간들이 평화적으로 함께 협동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 규칙들—를 유지하고 시행한다.

자유 사회의 정부는 법의 지배에 의해 제약된다. 그것의 법들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그것의 지도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편익을 위해 국민들을 약탈하거나, 자기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적들에 반대하여 사용할 수 없다. 권한에 동반하는 부패를 줄이기 위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재직 시간 둘 다 제한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선거, 자유 언론에의 권리, 대표자들에 대한 임기 제한 그리고 헌법적 규칙과 같은 민주적 제도들은 모두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에 대한 제한을 유지한다.

더 큰 평등

자유 사회의 경제적 활력의 주요 수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 사회들은 경제적으로 비자유 사회들보다 더 평등하다. 가장 자유로운 사회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몇 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품들을, 비자유 국가들에서는 단지 지배 엘리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사치품들을, 향유한다.

자유 사회는 물질적 평등을 부과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나 소득을 평등화하려는 시도가 반생산적임을 인정한다. 그러한 시도는 자기 향상, 근면 그리고 기업심의 유인들을 파괴한다. 그것은 전체 사회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자본을 사람들이 축적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것은 개인들이 새로운 부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자유 사회들은 종종 비자유 사회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더욱더 중요한 평등을 누린다. 사람들의 도덕적 평등이 인정되는데, 모든 인간 생활은 귀중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이 존재하는데, 판결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적 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모두는 투표하고, 선거에 출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국에 얼마나 불쾌하건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의 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일이나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인종, 종교, 민족 혹은 어떤 다른 특징과 상관없이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 경제

자유 사회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선택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내맡겨 두듯이, 자유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경제적 선택을 내릴 자유를 준다. 자유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가치를 창조한다. 자유로운 교환은 양쪽 다를 더 낫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공급함으로써—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 대가로 얻음으로써—번영한다. 이득의 가망은 기업가들을 자극하여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공급하게 한다. 가격들은 부족과 잉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생산될 필요가 있고 무엇이 보존될 필요가 있는지 말해준다. 이런 식으로, 시간, 기술, 노력, 자본 그리고 기타 자원들은 자동적으로 수요가 절박한 곳으로 끌리고 덜 중요한 용도들로부터 벗어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명하는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 경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협동하는가에 관해 그저 일반적으로 인정된 틀의 규칙들만 필요로 한다. 이것들은 재산의 소유와 이전에 관한 규칙들과 협정들이 존중되는 계약의 규칙들을 포함한다. 만약 사람들이 사업들을 쌓아 올리고 재화들을 교환하려면 사적 소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또한 만약 다른 자유들이 존중되려면 그것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만약 당국이 모든

재산을 통제한다면, 정치적 행동과 공개적 토론은 불가능해진다.

정의와 법의 지배

정의는 입법자들이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정의의 규칙들은 인간 본성의 일부—개인들 사이의 평화로운 협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긴요한 일부—다.

자유 사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간성 덕분에 이 자연적 정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연적 정의는 법들이 명백하고 확실해야 한다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그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들이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형벌은 예측 가능하고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건들에 적법 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며, 재판 없는 장기 구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취급되어야 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 개인들을 여러 번 기소하여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런 원리들은 거의 누구나 다에 의해, 자기들의 국가, 문화, 인종 혹은 종교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 자연적 정의를 보장하고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 데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법부가 필요한데, 사법부는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비슷하게, 경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자유가 지배하려면 경찰과 사법부에 뇌물과 부패가 용인될 수 없다.

자생적 사회

자유 사회는 자생적 사회다. 그것은 평화로운 협동을 촉진하는 규칙들을 따르는 개인들의 행동들로부터 쌓아올려진다. 그것은 정치 당국에 의해 위로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득이 되게 협동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할 필요가 없다. 재화들을 교환하는 사람들은 단지 가격만 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 협동이 아주 유익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행동을 관용해야 한다. 자유 사회는 오로지 실제 피해가 끼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개인들이나 정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도록 허용한다. 우리가 사람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은 거슬린다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든 사람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막는 어떠한 방법도 제거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 생활양식을 관용하는 것은 사회에 이롭다. 진리는 항상 명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상들의 경쟁에서 생긴다. 우리는 검열관들이 오직 잘못된 사상들만 억압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들은 미래에 사회에 크게 이로울 사상들과 행동 방식들을 잘못 억압할지 모른다.

자유 의 세계

권위주의적인 정부들이 자기들의 행동들을 세계의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숨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더욱더 많은 국

가들이 무역과 여행을 개방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자유의 편익들을 보고,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자유 사회의 도덕과 제도들을 창설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들을 대대적으로 부과하려 하기보다는, 미시적 수준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의 행동들을 통해 자유 사회를 쌓아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의 주요 부분은 재산권을 설정해서 사람들이 사업들을 쌓아올릴 수 있게 하고 자기들의 재산이 몰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혁들은 연고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 산업들을 민영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너무 많은 정부들은 사실상 그저 자기들의 소유권을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이전했을 뿐이다. 진정한 변화가 있으려면, 전 국민이 경제적 개혁의 과정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들은 국제 무역을 개방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내 생산자들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은 그저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질을 의미할 뿐이다. 국제 무역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내 기업가들은 새로운 시장들과 기회들을 얻는다. 지난 30년간에 걸친 무역의 개방은 10억 이상의 사람들을 극심한 빈곤으로부터 구했다. 자유는 진실로 인간 역사에서 가장 자비롭고 생산적인 힘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려낸 참고 문헌

- Ashford, N. (2003), *Principles for a Free Society*, Stockholm: Jarl Hjalmarson Foundation.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가 근거하는 원칙들에 관한 철저하고 짧은 해설.
- Bastiat, F. (2001[1850]), *Bastiat's 'The Law,'*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프랑스 정치가이자 정치 사상가에 의한 자유주의 사상의 고전적 진술.
- Benn, E. (1964), *Why Freedom Works*, London: Sir Ernest Benn Ltd. 지도적인 영국 실업가가 자유 시장들에 대해 행한 시대에 뒤졌지만 계몽적인 변호.
- Butler, E. (2009), *The Best Book on the Market: How to Stop Worrying and Love the Free Economy*, Oxford: Capstone Books. 시장들과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간단한 개설.
- Butler, E. (2012), *Public Choice - a Primer*,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정부 실패와 민주주의 체제들에서의 자기 이익 문제들에 관한 간단한 설명.
- Butler, E. (2012), *Friedrich Hayek: The Ideas and Influence of the Libertarian Economist*, Petersfield: Harriman House. 자발적

인 사회에 관한 현대 사고의 많은 부분을 개발한 자유주의 정치 과학자에 대한 쉬운 소개.

Friedman, M. with R. Friedman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국 노벨 경제학 수상자에 의한 자유 사회와 자유 경제의 옹호에 관한 고전적 개설.

Friedman, M. and R. Friedman (1980), *Free to Choos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동일한 이름의 텔레비전 시리즈에 토대를 둔 매력적인 자유 사회 옹호.

Hayek, F. A. (1944), *The Road to Serfdom*, London: Routledge. 중앙 계획과 무제한 정부들의 위험들에 관한 고전적 전시(戰時) 해설.

Hayek, F.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자유주의 사상의 기원들과 자유 사회가 수립되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원칙들을 추적하는 방대한 책.

Meadowcroft, J. (ed.) (2008), *Prohibitions*,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많은 상이한 생활양식 선택들에 대한 정부 통제에 반대하는 강력한 집합의 논거들.

Mill, J. S. (1859), *On Liberty*, in J. S. Mill (2008), *On Liberty and Other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n Liberty*는 자유, 무해 원칙, 제한된 정부, 자연적 정의 그리고 관용의 옹호에 관한 고전적 교과서다.

Norberg, J. (2003), *In Defense of Global Capitalism*,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국제 자본주의에 의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편익들의 교훈적인 개관.

Palmer, T. G. (ed.) (2011), *The Morality of Capitalism*, Arlington, VA: Students for Liberty and Atlas Foundation. 도덕, 협동, 평등, 진보, 세계화 그리고 문화에 관한 에세이들의 흥미로운 수집.

Pirie, M. (2008), *Freedom 101*, London: Adam Smith Institute. 한 페이지에서 한 개씩 논파되는 101개의 자유 경제 반대 논거들.

Welling, R. (ed.) (2009), *A Beginner's Guide to Liberty*, London: Adam Smith Research Trust. 시장, 재산권, 자유, 정부 실패, 금지 그리고 국가 없는 복지의 알기 쉬운 설명.

유킨이에 대해

황수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하이테크소사이어티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2014년)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관심 분야는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과 이론이며, 이 방면의 역서들을 다수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쓴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그리고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이 포함된다. 2015년도 시장경제 교육상을 자유경제원으로부터 수상하였다.